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압력 평가 및 관리계획

2014. 9



(재)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Baekje Historic Area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undation

연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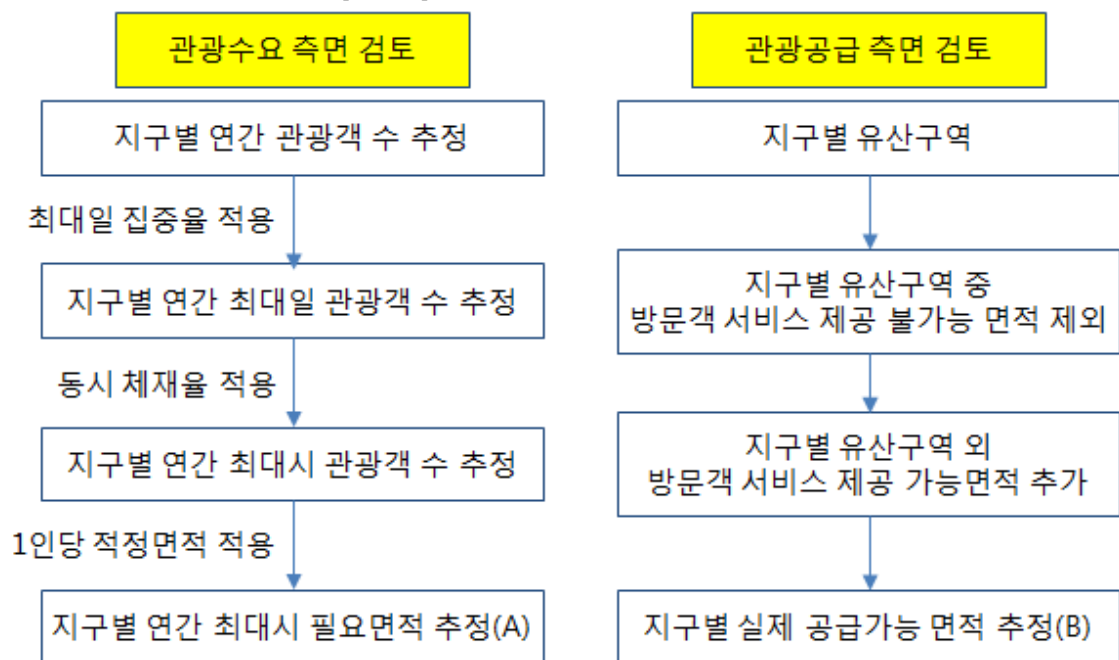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의 필요성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방문객의 경험과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필요함
- 방문객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등재 신청 문화유산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여러 관광수용력 중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1년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과 실제 등재 신청 지구별 공급 가능 면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 지구별 연간 관광객 수에 최대일 집중율과 동시 체재율을 적용하여 최대시 관광객 수를 추정한 후 1인당 적정면적을 적용하여 연간 최대시 필요면적(A)을 추정함
 - 지구별 유산구역 중 숲과 같이 방문객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하는 한편 유산구역과 접하여 하나의 단지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은 포함하여 실제 공급가능 면적(B)을 추정함
- 연간 최대시 필요면적(A)과 실제 공급가능 면적(B)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각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함

[그림 1]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절차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물리적 수용력 평가 결과 공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는 방문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물리적 관광수용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송산리고분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송산리고분군은 관광객 수 증가율이 30% 이상이 되면,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관광객 수 증가율이 70% 이상이 되면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	공산성	0.507	0.549	0.592	0.634	0.676	0.718	0.761	0.803	0.845
	송산리고분군	0.993	1.075	1.158	1.241	1.324	1.406	1.489	1.572	1.654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0.738	0.799	0.861	0.922	0.984	1.045	1.107	1.168	1.230
	정림사지	0.476	0.516	0.555	0.595	0.635	0.674	0.714	0.754	0.793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0.026	0.029	0.031	0.033	0.035	0.037	0.040	0.042	0.044
익산	왕궁리유적	0.248	0.269	0.290	0.310	0.331	0.352	0.372	0.393	0.414
	미륵사지	0.420	0.455	0.490	0.525	0.560	0.595	0.630	0.665	0.700

■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

- 각 지구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UNESCO의 세계유산 관리 모범사례(Best Practice), 국내외 수용력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을 제안함
 - UNESCO의 세계유산 관리 모범사례는 관광 및 해설(Tourism and interpretation)을 비롯하여 총 9개 항목에 대한 모범적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국내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을 도출함

■ 통합 및 지구별 관광객 관리 계획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각 지구별 현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을 마련함
- 각 지구별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인접 세계유산간 연과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세계유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함

[표 2] 각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안)

구 분		세부 내용
공통 사항		· 유적지별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수 제한 ·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관광해설 기능 제공 ·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관람정보 제공 · 예약제 시행을 통한 사전적 관광객 수요 관리 · 관람루트 제안을 통한 관광객 이동 동선 강제(일방통행) · 무인 관람활동 감시시스템
공주	공산성	

[목 차]

I. 연구 개요

①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② 연구 범위	5

II. 세계유산과 관광

① 유산과 관광의 연관성	9
1. 관광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	9
2. 유산 보존을 위한 관광의 노력	10
② 유산관광의 개념 및 성공요	

③ 관광수용력 평가	33
1. 관광수용력 평가시 고려 요인	33
2. 관광수용력 평가 연구	36
④ 관광수용력 관리 모델	37
1.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	37
2. 탐방객 영향 관리	41
3. 탐방객 경험과 자원 보호	44
⑤ 국내외 물리적 수용력 평가 사례	46
1. 국내 사례	46
2. 국외 사례	50
⑥ 관광수용력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Ⅵ.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모범 사례 분석

① 모범 사례 개요	99
② ‘관광과 해설’ 모범 사례 주요 내용	100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례	100
2. 유럽지역 사례	104
3. 아메리카 지역 사례	107
4. 아프리카 지역 사례	110
③ 시사점	111

Ⅶ.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①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

[표 4-2] 관광수용력에 대한 정의

학 자	주 요 내 용
Middleton & Hawkins(1998)	관광객 활동이 발생하는 특정 장소 또는 건물의 허용수준, 관광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
Chamberlain(1997)	지역의 파괴, 지역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문객 경험의 질 저하 등이 없으면서 지역의 편의를 제고하는 인간활동의 수준
Clark(1997)	- 자연 서식지를 포함하는 환경에 해를 미치는 관광활동의 임계치 수준 - 방문객 수 제한과 같은 실제 수용력은 자원의 지속가능성, 자원 이용자들의 만족, 사회경제적 영향 등과 관련하여 수용할 수 있는 변화 수준에 기초한 판단을 유도함
McIntyre(1993)	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문객 만족 감소,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 등이 없는 가운데 어떤 장소에 대한 최대 이용
WTO(1981)	- 동시에 특정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로, 지역의 환경적·물리적·경제적·사회문화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관광객 만족의 질도 수용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감소시키지 않아야 함 - 수용력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초가 됨. 즉 수용력은 어떠한 관광목적지에 대해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최대 사람 수를 의미함. 이때 방문객으로 인해 물리적·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의 파괴 또는 방문객의 만족의 질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됨
WTO(1999)	주어진 기간동안 특정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로, 지역의 환경적·물리적·경제적·사회문화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관광객 만족도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함
Coccossis & Parpairis(1992)	- 레크레이션·관광지역에서 각 연도마다 제공되는 이용객 단위 수(레크레이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여건에 대한 영속적인 자연적·물리적 파괴, 방문객 레크레이션 경험에 대한 분명한 손상 등이 없어야 함) - 수용력은 임계치 또는 한계의 개념으로 이는 관광 계획과 관리의 개념적 기초가 됨. 이론적으로 보면 수용력은 매년 레크레이션·관광 지역에서의 이용자 단위의 수로 정의할 수 있음 - 이 때 그 지역의 레크레이션을 지원하는 지역의 능력에 대한 영속적 자연적·물리적 파괴, 방문객의 레크레이션 경험에 대한 분명한 감소 등이 없어야 함

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2] 관광수용력 구성요소 및 유형

1. 관광수용력 구성요소

- 관광수용력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 생태학적 요소, 사회적 · 인구통계학적 요소, 정치적 · 경제적 요소 등 3개의 요소로 구성됨(Maggi & Fredella, 2011)
 - 물리적 · 생태학적 요소: 자연환경(생태학적 수용력, 자연 유산 수용력, 해안선의 길이, 기후 등)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스템(용수 공급, 하수 시설, 전기 및 가스 공급, 교통, 공공 서비스 등)과 관련한 모든 요소들임
 - 사회적 · 인구통계학적 요소: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거주 주민과 관광객간의 관계 등과 관련 있는 모든 요소들과 관련이 있음. 이는 활용가능한 인력,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 지역 주민들의 문화 정체성, 관광객 경험, 새로운 노동자와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능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정치적 · 경제적 요소: 주로 관광개발을 위한 예상 투자와 경제적 규모 등에 관한 것임
- 이들 3개 구성요소는 관광 목적지 특성(지역 자원, 지역 자연 생태계의 취약성, 인구 규모, 경제 구조, 문화 및 지역 유산 등), 관광객 특성, 각 목적지별 상이한 관광 유형, 관광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 관광과 환경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적용해야 함(Coccossis & Mexa, 2002; European Commission, 2002; O'Reilly, 1986; Martin & Uysal, 1990)
 - 관광 목적지 특성(지역성): 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구조를 제공하는데, 지역 자원, 지역 자연 생태계의 취약성, 인구 규모, 경제 구조, 문화 · 지역 유산 등으로 확인됨. 지역성이 갖는 특성은 관광으로 인한 압력에 대한 자신의 회복력을 어느정도 결정하는 역할을 함. 지역사회의 규모, 지역사회의 구조 및 활력, 문화와 경제는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과 영향에 대응하는 지역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관광 유형: 관광객 행동, 관광객 · 지역사회 상황, 관광 · 지역경제, 관광객 발전 · 환경적 질의 관계 등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을 결정함. 관광유형은 방문 동기, 교통 수단 유형, 체류 기간 및 빈도, 관광객의 활동 범위 등으로 설명됨. 이러한 맥락에서 각기 다른 유형의 관광객들이 갖는 기대, 태도, 행동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왜냐하면 이들 조건은 현장에서 관광의 압력과 영향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임
 - 관광과 환경의 상호작용: 앞 선 두 요소의 복합물로 주로 관광개발 유형 및 형태(공간 패턴), 관광목적지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 활용되는 조직 · 기술 시스템의 수준,

경영 주체 등이 해당됨. 관광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환경에 대한 관광의 영향 또는 관광에 활용되는 환경가치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 개념으로 표현됨

2. 관광수용력 유형

- 연구자들이 정의한 수용력 개념을 종합하면 개념 정립의 범위와 적용대상은 다양하게 세분되었으나 그 기본개념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휴양 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수용력 개념은 광범위하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김사현, 2003)

1) 생태적 수용력

- 특정 지역에서 환경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최대개체군 밀도로서 식생 · 토양 · 수자원 · 야생동물 등이 심각하게 훼손 또는 감소되어 자기회복 능력을 상실하는 정도 이내의 탐방 수준을 의미함(이대중 · 구철현 · 조계중, 2012)
 - 환경에 어떠한 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 즉 환경 또는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자기치유 능력을 상실하는 정도 이내의 이용수준을 의미함
- 자기회복 능력이나 자기정화 능력의 한계 내에서 자연생태계의 본질적인 메카니즘을 교란 ·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 활동을 흡수 · 지탱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최대 인간활동 강도 또는 밀도를 의미함(김선희, 2005)
- 자연 및 생태적 자원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주요 지표로는 동식물의 비율, 개체수, 토양침식 및 토양압박 정도 등 자연요소의 내성 등이 있음(김선희, 2005)
- 생태적 수용력은 환경생태학적 입장에서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LAC) 및 휴양기회분포(ROS) 모델 등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틀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2) 사회심리적 수용력

-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탐방경험의 질을 제공하는 동안에 관광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지속시킬 수 있는 탐방 수준, 즉 관광객 만족이 극대화되는 탐방밀도, 관광객이 타 대체지역으로 회피되지 않을 정도의 탐방수준을 의미함(이대중 · 구철현 · 조계중, 2012)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 관광목적지 지역에서 관광객의 등장과 행동 등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Maggi & Fredella, 2011), 이용자 만족이 극대화되는 이용밀도 또는 이용자가 다른 대체지역으로 회피하지 않을 정도의 즉 이용자가 묵인할 수 있는 혼잡 정도(김사현, 1999) 등을 의미함
-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탐방객 입장에서 혼잡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얼마나 만족하였는가에 대한 것, 어떠한 관광목적지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의 질이 감소하지 않는 것, 어떤 지역의 관광개발이 지역주민들의 레크레이션에 절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등과 관련이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사회심리적 수용력의 주요 지표로는 이용자 수, 이용밀도, 혼잡도, 조우 횟수, 조우 빈도, 시계 거리, 프라이버시 등이 있음

3) 물리적 수용력

- 인공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최적 공간 규모 즉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도시 및 지역 계획상의 실내외 공간 규모설정에 많이 적용되며 장소(건물) 내에서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탐방객의 최대허용 수준을 의미함(이대중 · 구철현 · 조계중, 2012)
- 특정 공간 내에 입장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최대 인원 또는 인공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최적 공간규모 등 휴양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인간 활동의 공간량적 한계(최소 공간 규모)를 의미함(지봉구, 1997)
- 물리적 환경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변화, 방문객의 경험의 질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저하 등이 없는 가운데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Mathieson & Wall, 1982; Simon et al., 2004)
- 해수욕장이나 유물·유적지, 사찰 등 물리적 경계개념이 확정되어 있는 장소(건물 등) 내에서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이용자의 최대 허용 수준(김사현, 1999)
- 물리적 수용력의 주요 지표로는 단위면적 당 사람 수와 밀도, 화장실·주차장·야영장 등의 시설 이용자 수, 각종 시설의 점유율, 시설을 이용할 때 기다리는 시간, 탐방객과 관리요원의 비율 등이 있음(김선희, 2005)

3] 관광수용력 평가

1. 관광수용력 평가시 고려 요인

- 수용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공통적 요소는 관리목표, 탐방객 만족도, 자원 등 3가지 항목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 야외휴양 분야에서 수용력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휴양지역에서 수용력 적용은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수용력의 3가지 기본적인 개념인 자원, 탐방객 경험의 질, 관리목표에 따라 자원의 변화를 얼마만큼 허용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임(한상열 · 권헌교, 2009)
- 이들 구성요소는 대상지의 특성, 즉 탐방객 중심적이냐 자원 중심적이냐에 따라서 수용력 산정(물리적, 사회 · 심리적)시 각기 다른 중요도를 가지며, 또한 상호복합적인 양상을 갖기도 함(이대중, 2012)
- 따라서 수용력 추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한정된 자연자원 및 생태계 보호와 양질의 탐방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관리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함(이대중, 2012)

1) 관리목표

- 수용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공통적 요소 중 휴양지역의 수용력을 평가하는데 선결되어야 할 것은 명확한 관리목표임. 즉 대상지의 관리목표가 먼저 선결되어야 수용력의 개념을 설정하고 적절한 탐방객을 추정해 낼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관리목표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거나 형성하는 과정 또는 인간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과정 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정도를 정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에 의한 변화의 허용한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력 평가시 가장 먼저 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관리목표는 경쟁적 이용간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이용에 의한 피해를 극소화시키며, 지역의 내성을 증가시키고, 탐방객의 즐길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탐방경험의 질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행위 방침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 관리목표의 역할은 생물 · 물리적 자원과 탐방객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하여 이들의 변화를 목표와 비교하여 평가하고 규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만약 평가를 통해서 허용할 수 있는 변화의 발생이 지적된다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안이 모색되어야 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경우에 따라서 관리목표는 재평가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관리 목표에 부합되는 관리행위를 수반해야 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수용력은 오로지 주어진 지역의 특수한 관리목표 하에서만 고려될 수 있으며, 명확한 관리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수용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상지의 관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됨(국립공원연구원, 2007)
- 따라서 한 지역의 수용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명확한 관리목표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2) 탐방객 만족²⁾

- 탐방활동을 즐기는 탐방객들은 개인이나 그룹의 형태로 구성되며 각기 다른 교육적 · 경험적 배경을 갖고 있어 이용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식정도에도 차이를 갖게 됨
- 탐방객들은 어떤 휴양을 통해 즐거움이나 긴장 완화 등의 혜택을 얻으려 하는데, 이것은 곧 탐방객 만족도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만족의 정도는 같은 탐방경험이라도 개인의 성격, 사회문화적인 배경, 경험정도 등의 차이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지각될 수 있고, 같은 개인도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 따라서 탐방객의 만족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탐방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조우하는 탐방객 수 및 규모, 행락, 장소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회적 만족도
 - 탐방로의 상태, 쓰레기의 양, 시설물의 유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물리적 만족도
 - 지피식생의 피복정도, 수질 및 야생동물의 유무나 조우정도 등의 생물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태적 만족도
 - 이상과 같은 3가지 범주의 만족도가 혼합된 상태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만족도
- 환경에 대한 친밀정도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탐방객들과 관리자간의 생각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자는 탐방객이 바라는 탐방경험의 질이나 선호도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만일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상지는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변화성이 결여된 채 관리자 중심의 균일한 탐방 기회만을 제공하게 될 것임

3) 자원³⁾

- 수용력을 추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구성요소로서의 자원은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자연자원과 시설물과 같은 인위적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

가. 자연자원

- 식생, 토양, 물, 야생동물 등의 자연자원 요소들은 자연생태계 내에서 미묘한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과잉이용에 의해 어느 한 인자가 영향을 받게 되면 다른 인자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됨
 - 탐방객에 의한 답압은 하부식생을 파괴하여 침식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의 긴밀화를 조장하여 유기물량이나 수분침투율을 감소시켜 식생의 성장을 저해함
 - 계류나 호수 등의 수자원의 이용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쓰레기나 배설물의 적절하지 못한 처리 혹은 취사나 세척 등에 의해 부영양화나 오염현상이 발생함
 - 탐방영향은 야생동물의 출현빈도를 변화시키는데 인간의 출현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인간출현에 의한 인위적인 식이공급의 증가로 개체수의 증가할 수 도 있음
- 이와 같이 과잉이용은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 일단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생태계의 변화정도에 부합하여 이용률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관리 기법을 통해 악영향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함

나. 인위적 자원

- 인위적 자원은 탐방로, 야영장, 화장실,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인공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이들 시설물은 탐방객 행태나 탐방량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탐방객은 이들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설물의 적절한 배치나 유지 등이 필요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특정대상지의 시설물 규모는 물리적인 수용력을 결정하며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행위는 탐방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2. 관광수용력 평가 연구

- 관광수용력 연구의 궁극적 과제는 모든 종류의 관광지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각각의 관광목적지에 맞는 기준을 정의할 수 있는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임(Castellani & Sala, 2012)
- UNEP·PAP·RAC(1997)가 개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수용력 측정을 위한 좋은 방법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 조사(예: 지역 단위에서 지표 및 기준을 정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자, 지역 전문가 포함 등)에 기초한 지역내 우선순위 고려
 - － 중요한 유인 요소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관련 제약 요인, 새로운 관광 인프라 수요와 지역 환경 보호 필요성 간의 균형 등에 대한 정의
 - － 체계적인 자료 출처(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자료의 이용 가능성 및 질이 확인되어야 함)에서 확보할 수 있어 모든 관광영역의 관리자에게 유용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표 체계 선택
 - － 관광목적지 개발에 대한 시나리오
- 야외휴양분야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적정 수용력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연구자 사이에서 제기되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 야외휴양자원 관리에 있어 탐방객들이 선호하는 휴양자원에 대한 탐방수준 제한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수용력에서 제기되면서 밀도(density), 혼잡(crowding), 밀도와 만족도(density-satisfaction), 혼잡과 만족도(crowding-satisfaction) 간의 이변수 접근방법이 사회적 수용력 연구에서 계량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하였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사회적 수용력 개념 연구는 혼잡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혼잡은 수용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지각활동으로서, 개인이 바라는 것 보다 많은 사회적 자극 수준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탐방객들의 존재가 방해로 느껴질 때 발생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 따라서 그 지역이 혼잡하나, 혼잡하지 않느냐 문제는 개인의 주관(국립공원연구원, 2007)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남
-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자들은 야외휴양지역에서 사회적 수용력 적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들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용력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탐방밀도와 혼잡지각이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된 주장들이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4] 관광수용력 관리 모델

- 과거 수용력 연구의 대부분은 탐방수요 증가가 자원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단순 선형관계로 가정했지만 실제 연구결과에서는 직접적 선형관계보다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 관계로 나타났음
 - 또한 수용력은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영향 수준과 성장을 제한해야 할 수준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수용력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켰고, 1980~1990년대 이후에는 수용력 개념에 대한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관리 모델들이 북미 공원관리 연구가들에 의해 개발되었음
 - 수용력 관리 모델로는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LAC; Limits of Acceptable Change), 탐방객 영향관리(VIM; Visitor Impact Management), 탐방객 경험과 자원보호(VERP; Visitor Experience and Resource Protection) 모델 등이 있음
- 이 가운데 탐방객 경험과 자원보호(VERP)모델은 미국의 NPCA(national park & conservation association)에서 기존 수용력 모델을 보완하여 9단계 체계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요세미티국립공원 등에서 적용·모니터링 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2012)

[표 4-3] 수용력 모델 비교

수용력 모델	기 본 개 념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 Limit Acceptable Change	이용의 양과 수준보다는 이용에 의한 얼마만큼의 변화가 적절한 수준인가? 에 관심을 둔 개념
탐방객 영향 관리 Visitor Impact Management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의 변화가 적절한 수준인가? 에 관심을 둔 개념이며 과다이용, 사회환경에 대한 문제해결 접근법 제시
탐방객 경험과 자원보호 Visitor Experience and Resource Protection	탐방객의 경험과 공원의 자원에 대한 탐방객의 이용영향에 초점을 둔 관리·계획 모델(Zoning System으로 공원관리)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6), 입장료 폐지시 공원관리 강화 방안

1.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4)

- LAC 모델은 휴양지역이 얼마만큼의 이용을 견디어 내는가를 탐구하려던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수용력 접근방식에서, 그 휴양지역의 바람직한 상태를 정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관점으로 수용력 개념을 새롭게 재형성하였음(Stankey & McCool, 1984)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 LAC 모델은 야외휴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리 모델이지만 수용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한 대표적 관리기획 프로그램임
- LAC 모델은 특히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나 그 변화는 탐방량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개발된 것으로, 기존 수용력 모델이 탐방량에 관심을 두었다면 LAC는 관리될 휴양지역이 탐방에 의한 훼손 또는 변화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 개념임
- LAC 모델은 관광지에서 자원이나 시설의 이용과 그 영향에 대한 관계를 다루지 않고, 어떤 영향이 일어났을 때 그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고태규, 2007; Stankey and McCool, 1984)
- 결국 공원관리자가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탐방객 수가 아니라 탐방결과가 야기하는 자원의 영향이라 할 수 있으며, LAC 모델은 바로 이런 탐방영향의 변화에 초점을 둔 개념임
- LAC 모델의 핵심은 얼마만큼의 탐방이 적절한 수준인가? 라는 관점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변화가 적절한 수준인가? 라는 관점임
- LAC 모델은 우선 관광지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결정한 후 실제 상태가 목표로 정한 수용 가능한 기준 내에 있는지 모니터링 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만일 그 영향의 크기가 수용한계를 벗어난다면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관리정책을 수립함(Stankey & McCool, 1984; McCool & Stankey, 1992)
- LAC 모델은 자원과 사회적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서로 관련된 9단계의 연속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휴양지역의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 그 지역에 대한 특성과 성격, 야생지역의 시스템 그리고 휴양기회가 제공되는 비야생 지역에 대한 지역적 관계 등과 관련된 이슈들과 관리할 문제점들을 파악함
 - 2단계(휴양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휴양기회 분류 정의 및 설명): 휴양기회 분류는 기본적으로 휴양기회 스펙트럼(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자원의 종류와 사회적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그 지역 자원이 가진 특성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또는 관리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휴양기회를 분류함. 각 휴양기회 분류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자원의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영향의 종류, 영향의 심각성, 영향의 확대 범위, 영향의 구분정도를 확인하여야 함
 - 3단계(휴양지역의 자원 및 사회적 상태에 대한 측정 인자 및 지표 설정): 측정 인자는 휴양지역의 상태와 특성을 대표하는 속성들로 구성됨

- 4단계(현재 자원 및 사회적 상태에 대한 목록 조사): 조사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조사 자료는 관리자에게 측정 인자에 대한 상태를 제공해서 어디에 어떤 관리활동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5단계(휴양기회 분류를 위한 자원 및 사회적 인자 및 지표 기준 구체화): 각 인자에 대한 계량적 또는 구체적인 측정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절한 상태를 묘사하는 기준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음
- 6단계(휴양지역의 이슈와 현 자원 및 사회적 상태를 반영하는 대안적 휴양기회 분류 분포 방안 마련): 6단계의 목표는 어떤 자원과 사회적 상태가 특별한 기준에서 특정 야생지역에서 유지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 6단계를 거쳐 대안적 휴양기회 분류 분포의 지도와 표를 정리할 수 있음
- 7단계(각 대안들에 대한 관리 방안 규명 및 설정): 각 대안들을 실행하기 위한 비용 평가와 구체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선정함.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상태들이 기준보다 나빠진 장소에 대한 목록이나 지도를 얻고, 어떤 관리 방안이 기준보다 상태를 더 좋게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 8단계(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평가 및 선택): 자원 비용, 사회적 비용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분석과정과 자원적·사회적 편익분석 과정을 통해 휴양분류와 관리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단계임
- 9단계(관리 방안의 시행 및 모니터링): 선택된 대안과 이에 관련된 관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실행하고 평가를 수행함. 모니터링은 관리 방안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리 방안들로 인해 레크리에이션 상태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체계적으로 되돌아보는 과정임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표 4-4] LAC 프레임워크 및 단계별 고려 요소

구분	프레임워크	고려 요소
1단계	휴양지역의 문제점과 이슈 파악	공원 특성, 가치 규명, 관리 목표 등
2단계	휴양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휴양기회 설정	제공가능한 휴양기회 분포 결정
3단계	자원 및 사회인자에 대한 영향지표 선정	신뢰성, 민감성, 용이성, 경제성 고려
4단계	현재 자원 및 사회적 상태 조사	3단계 지표인자의 객관적 자료 수집
5단계	휴양기회 분류를 위한 영향지표 기준 구체화	모니터링을 근거로 한 관리자의 가치 판단
6단계	대안적 휴양기회 분류 방안 마련	자원, 사회적 조건 유지 수준 결정 후 zoning map 작성
7단계	각 대안들에 대한 관리 방안 설정	탐방객 여론, 예산, 인력, 정책 효율성 고려
8단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평가 및 선택	비용편익분석, 의견수렴, 가치판단 필요
9단계	관리 방안 시행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효율성 평가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2. 탐방객 영향 관리⁵⁾

- VIM 모델은 일반적 수용력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방대한 이론적 검토 과정을 바탕으로 수집된 다양한 원리들을 결합하고 실제 적용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의 결과임(Graefe, Kuss & Vaske, 1990)
- VIM 모델은 탐방객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세우려는 관리기획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VIM 모델은 수용력의 생태적·사회적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들을 극복하고 이러한 연구를 인간영향과 상호작용에 적용하려는 접근 방법임
 - VIM 모델은 관광지에서 방문객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관광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 VIM 모델은 문제가 되는 상황 인식,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발생시키는 잠재적 요인 결정,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관리전략 선정 등 3가지 주요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8단계의 연속된 과정으로 구성됨
- 1단계: 사전 자료 검토
 - 기획자료(관리지침이나 억제요인 등의 자료)와 휴양지역 자료들이나 기존 방문자 조사 등을 통해 그 휴양지 방문자의 특성, 동기와 참가형태 등 관광 기초 정보를 확인함
 - 이 단계의 목적은 현재의 상황을 밝히고 정리하며, 동시에 법적·정치적 방향, 기존 연구와 휴양지역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존재하는 상황을 정리하는 것임
- 2단계: 관리 목표의 검토
 - 기획목적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최근 여러 연구자들은 분명하며 상세한 기획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효과적인 관리기획을 위해 관리목표는 적절한 환경적·사회적 상태의 관점에서 경험의 형태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
- 3단계: 주요 영향 측정 척도 선정
 - 어떻게 특별한 경험을 측정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측정도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과 특징들을 선정하는데, 한 가지 측정도구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상황의 특수성과 특별한 영향형태에 기초하여 측정도구를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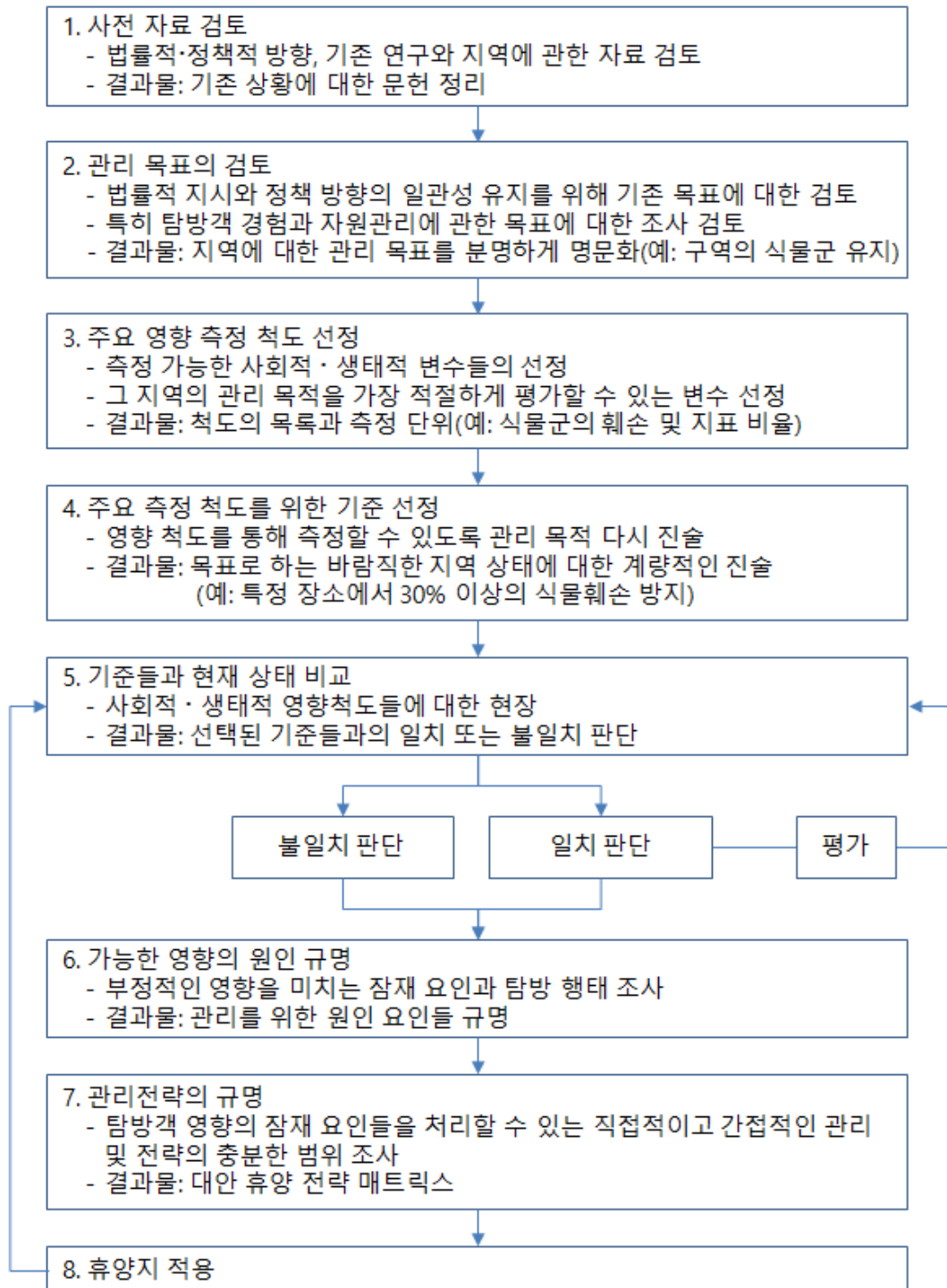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 유용한 측정 도구들은 직접적으로 측정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쉽고,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위한 관리목표와 직접 관련되고, 관리와 조화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이용 상태에 민감하여야 하고, 측정 가능한 사회적·생태적 변수들을 규명하여야 함
- 대안적 도구들의 평가를 위해 여러 기준들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 단계를 통해 측정도구나 단위의 목록을 작성함
- 4단계: 주요 측정 척도를 위한 기준 선정
 - 선정된 영향측정 도구들을 위해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계량적 측면에서 관리목적을 재 진술하는 단계임
 - 이 단계에서 측정단위로서 경험의 형태를 묘사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크기나 형태의 집단과 조우하는 횟수, 스키리프트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또는 어떤 관광지역에서 만나는 사람의 숫자 등(Shelby & Heberlein, 1984)이 있음
- 5단계: 평가기준들과 현재 상태 비교
 - 3단계에서 선택된 영향측정 척도들을 위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만약 타당한 측정 척도들의 현재 측정이 기준과 일치한다면 그 지역은 현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험형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미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만 필요함
 - 만약 어느 척도의 값이 그 지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문제 상황으로 판단함. 이처럼 측정 척도들은 관광경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영향 원인들을 밝히기 위해 이용됨
- 6단계: 가능한 영향의 원인 규명
 - 잠재 인과요인을 평가할 때 탐방 시각 및 시간, 참가 기간, 그룹 크기, 탐방 집중도, 성수기 빈도, 전반적인 탐방량, 탐방객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자 이용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이용·영향 관계는 휴양지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다양함
- 7단계: 관리전략 규명
 - 특정지역의 탐방량, 탐방형태와 이용분포가 적절한 영향척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리전략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함
 - 영향상태 자체보다는 방문자 영향을 야기하는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며 대안관리 전략들을 평가하는 매트릭스 기법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8단계: 휴양지 적용 및 실행
 - 선택된 관리전략은 과도한 영향이 미치는 휴양지역에 가능한 빨리 실행되어야 함

- 방문자 영향의 특성과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들은 탄력적이어야 하며, 변화된 상태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영향측정 척도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관리행위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중요함

[그림 4-1] VIM 모델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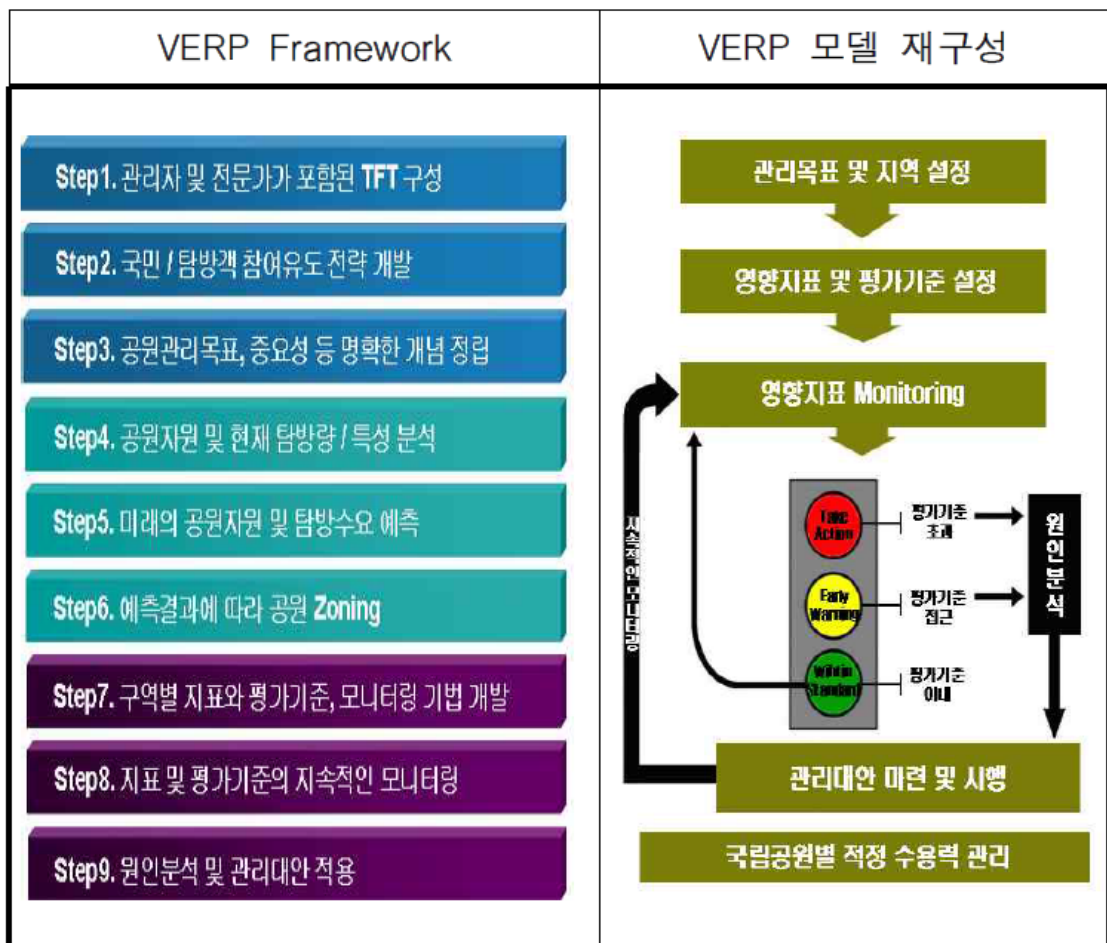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3. 탐방객 경험과 자원 보호⁶⁾

- VERP 모델은 탐방객의 탐방영향(탐방객의 행동, 탐방수준, 시·공간별 탐방 집중도 등)이 탐방객 경험의 질과 공원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관리 프레임워크임
- VERP 모델은 1993년 미국 국립공원보존협회(National Park & Conservation Association)에서 개발했으며 현재 Arches 및 Yosemite 국립공원 등에 적용되고 있음
- VERP 모델은 총 9단계의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로 재구성한 결과는 아래 [그림 4-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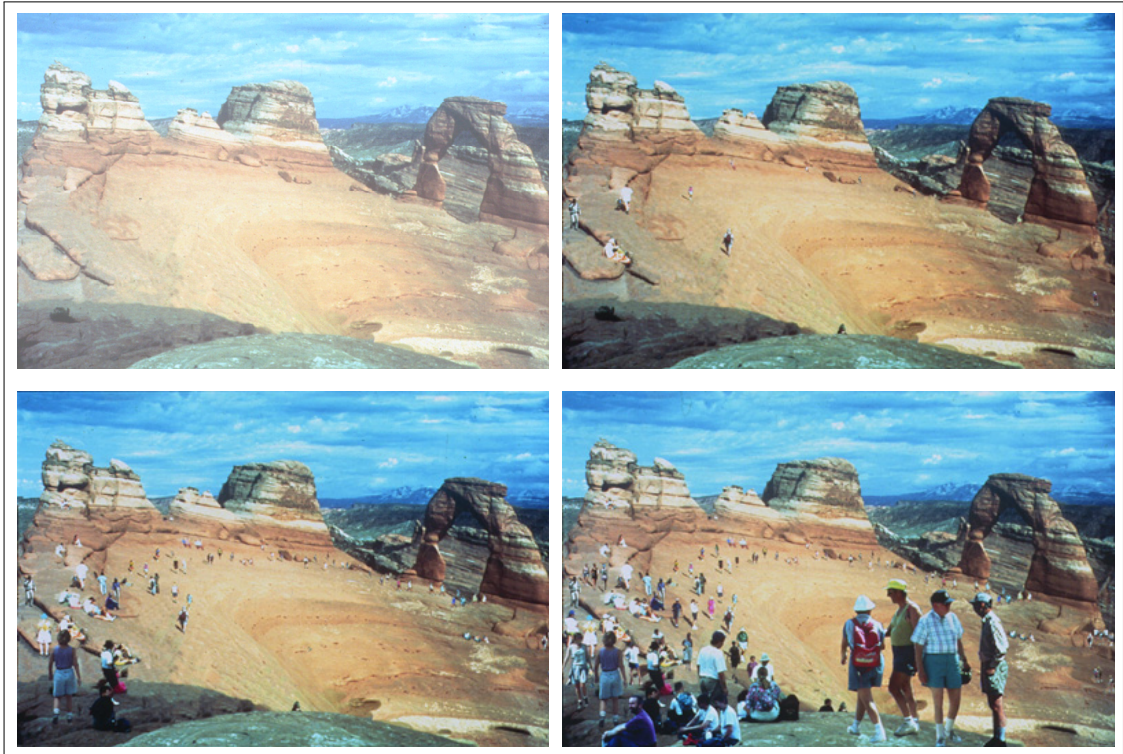
[그림 4-2] VERP 모델 프레임워크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 VERP 모델의 분석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갖는 분석 대상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4-3]과 같이 분석 대상지의 이용 수준(방문객 수)을 반영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제작한 후 응답자에게 선호 상태를 질문함

[그림 4-3] VERP 모델 분석 방법



자료: Vereczli(2006), Statistical and sustainability indicators concerning tourism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5 국내외 물리적 수용력 평가 사례7)

1. 국내 사례

- 관련학계(공원관리학, 관광학, 임학, 조경학, 건축학, 생태학 등)에서는 수용력의 인접개념인 혼잡-만족도의 관계, 관광자의 선호도 및 행태 특성을 조사하여 특정 자원의 적정 수용력을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됨(이대중, 2012)

1) 국립공원 수용력 평가 사례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차(2000년, 2004년, 2005년)에 걸친 국립공원 수용력 추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국립공원 수용력 연구를 수행하였음

■ 1차 연구(2000년)

- 1차 연구에서는 물리적 수용력을 적용하여 북한산, 설악산, 내장산, 가야산,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총6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수용력을 추정(이대중, 2012)
- 탐방로 환경피해도와 통행패턴 및 통행량 조사를 통해 확보한 두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탐방로 노폭을 기준으로 피해등급이 없는 수준에서의 1일 구간 최대통행량과 1시간 구간 최대통행량의 수용력을 파악하였음(이대중, 2012)
 - 분석 결과 중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탐방로 폭 2.0m, 환경피해도 5~6등급 기준으로 보면 1일 구간 최대통행량을 이용하여 추정된 최대 수용능력은 1일 35,205명, 연간 2,112,024명이고, 1시간 구간 최대통행량을 이용하여 추정된 최대 수용력은 1일 8,480명 연간 508,770명 규모임

[표 4-5] 북한산 국립공원의 1일 및 1년 최대 수용능력 추정

(단위: 명)

구분	노폭 환경피해도	최대 수용력					
		1.5m		2.0m		2.5m	
		1일 최대	1년 최대	1일 최대	1년 최대	1일 최대	1년 최대
1일 구간 최대 통행량	3-6	1,298	77,890	4,147	248,816	10,210	612,517
	4-6	5,855	351,258	13,555	813,201	25,995	1,559,486
	5-6	12,563	753,721	35,205	2,112,024	78,288	4,696,753
1시간 구간 최대 통행량	3-6	178	10,667	694	41,651	1,997	119,806
	4-6	1,039	62,359	2,783	166,964	5,974	358,420
	5-6	2,523	151,363	8,480	508,770	21,717	1,302,880

주: 노폭 1.8m와 2.2m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고 편집하였음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소(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 2차 연구(2004년)

- 6개 산악형 국립공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자 설문조사, 전국민 조사, 관리자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생태적 수용력, 사회·심리적 수용력, 관리적 수용력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대상지 국립공원의 수용력을 도출
- 분석 결과 중 소백산국립공원을 살펴보면 겨울조사로 밝혀진 적정수용력은 2,996명/일, 단위구간별 적정수용력은 78명/(일·km)로 나타났다

[표 4-6] 소백산 국립공원의 적정 수용력 추정

계절	적정수용력(명/일)	단위구간별 적정수용력(명/일·km)
여름(6월-8월)	733	19
가을(9월-11월)	2,196	58
겨울(12월-2월)	2,996	78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소(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 3차 연구(2005년)

- 4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1개의 해안형 국립공원의 수용력을 추정하였음
- 환경생태 수용력 등급과 관리지수 등급을 이용하여 초과시설 수용력을 구역별로 추정하였고,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과 기준 환경생태 보전 필요성의 표준편차를 이용해 수용력을 추정하였음
- 추정 결과 중 지리산국립공원의 구역별 관리방안을 살펴보면 바래봉·성삼재·백무동 등 총 16개 구역은 ‘유도’로 추정되었으며, 화엄사·쌍계사 구역은 ‘분산’으로 추정되었음
-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을 살펴보면 ‘산덕 임도~부운치 갈림길 구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인 일시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백산 국립공원 시설 수용력 평가(2007년)

- 국립공원의 시설수용력을 크게 활동시설 수용력과 체류시설 수용력으로 구분하고 시설수용력을 평가함
 - 활동시설 수용력 평가인자로는 탐방로, 야영장, 대피소가, 체류시설 수용력 평가인자로는 주차장과 숙박시설이 활용되었음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 시설수용력은 각 평가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의미하는 절대적 수용력이며 활동시설 수용력과 체류시설 수용력의 합은 순간최대시설수용력을 의미
- 국립공원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추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의 순간최대시설수용력은 총 9,215명(탐방로 4,297명, 야영장 564명, 주차장 4,354명)으로 분석되었음

[표 4-7] 소백산 국립공원 물리적(시설) 수용력 추정시 적용했던 방법

구분	시설명	시설 수용력 추정 방법
활동 시설	탐방로	• 적정 이용률: 탐방로 면적 ÷ 34㎡/인 = 인원 수
	야영장	• 야영가능 텐트 수가 제시된 경우 – 야영가능 텐트 수 × 0.85(이용률) × 3명 = 인원 수
	대피소	• 수용가능 인원 수 × 0.85(이용률) = 인원 수
체류 시설	주차장	• 주차가능 차량 수가 제시된 경우(C = A + B) – 대형차량 주차가능 대수 × 45명 × 0.9(이용률) = 인원 수(A) – 소형차량 주차가능 대수 × 4명 × 0.9(이용률) = 인원 수(B)
	숙박 시설	• 수용가능 인원이 제시된 경우 – 수용가능 인원 수 × 0.85(이용률) = 인원 수
		• 수용가능 방 수만 제시된 경우 – 수용가능 방 수 × 3명 × 0.85(이용률) = 인원 수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소(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 기타 연구

- 권영선 · 이경제 · 송근준(1988)은 치악산국립공원 야영장 탐방객의 만족도가 최대인 수용력을 75㎡/인으로 추정하였음
- 조현길(1989)은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지구를 대상으로 자원의 지력 저하를 막는 동시에 탐방객 경험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용력을 추정한 결과 생태적 수용력은 100㎡/인, 심리적 수용력은 38.3㎡/인으로 평가하였음
- 엄봉훈(1992)은 혼잡지각을 기준으로 경주보문단지 내의 공원 잔디공간의 수용력을 60㎡/인 이하로 추정하였음
- 한상열 · 권현교(2009)는 한계효용이론 모델을 적용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의 사회 · 심리적 수용력을 추정한 결과 1일 약 65,000명 수준으로 평가하였음
- 김보현 · 오구균(2012)은 무등산도립공원의 시간대별 탐방객 이동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음
- 연구에서 2008년 기준 주요 국립공원의 연간 탐방밀도(탐방객 수 ÷ 공원면적)는 북한산국립공원 116,567명/㎢, 계룡산국립공원 30,914명/㎢, 설악산국립공원 8,199명/㎢, 지리산국립공원 5,645명/㎢, 치악산국립공원 2,368명/㎢, 무등산도립공원 92,290명/㎢로 분석하였음(김보현 · 오구균, 2012)

- 권헌교 · 신원섭 · 한상열(2010)은 VERP 모델을 이용하여 한라산국립공원 수용력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표 4-8]과 같은 영향지표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음

[표 4-8] 8개 영향지표의 평가 기준

지표명(indicators)	평가기준(standard)		산출 근거
탐방객 수	탐방로	1,235명	물리적 수용력
	야영장	489명	
	주차장	3,626명	
	대피소	244명	
혼잡지역 탐방집중도	공원 전체 1일 6,085명		사회 · 심리적 수용력
계곡 수질	환경부 하천생활환경 기준 유지		환경부 기준
종 다양성	5,240종		한라산 데이터북 2007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탐방로 훼손정도	탐방로 노폭	평균 1.5m	탐방로 훼손정도 기준표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로 침식깊이	평균 10cm	
	탐방로 훼손정도	건전	
	셋길 발생 수	2007년 기준	
오물 수거량	2007년 쓰레기 발생량 기준		국립공원 기본 통계
시설물 이용 대기시간	주차장	3분	사회 · 심리적 수용력
	휴게소	2분	
	화장실	3분	
주차장 수용력 초과율	1일 3,626명 이내		1일 주차장 물리적 수용력

자료: 권헌교 · 신원섭 · 한상열(2010), VERP 모델을 이용한 한라산국립공원 수용력 지표관리프로그램 개발

2) 기타 자원 수용력 평가 사례

- 김선희(2005)는 설문조사, 출구조사, 기초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광릉지역의 적정 수용력을 산정하였음
 - 관광객의 혼잡인지도 및 순간이용밀도에 근거한 광릉지역의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혼잡인지 고점을 나타내면서 오전에 비해 오후의 혼잡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김선희, 2005)
 - 그러나 시간대별 최대 순간 이용객은 491여명, 차량은 140여대 수준으로 순간이용밀도를 기초한 심리적 혼잡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김선희, 2005)
 - 이용면적을 기초한 물리적 수용력은 1인당 적정 점유면적을 17㎡로 산정할 때 관광객 약 600여명으로 분석되었고, 차량 1대당 적정 주차면적을 평균 30㎡로 산정할 때 적정 주차대수는 약 130여대로 추산되었음(김선희, 2005)
 - 관광객보다 차량에 대한 혼잡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용공간에 대한 혼잡도에서도 주차장이 가장 높게 평가되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해석함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 반상·서환·강태호(2012)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주 동궁과 월지의 물리적 수용력과 심리적 수용력을 추정하였음
 - 동궁과 월지의 관광탐방 유형이 경관관람과 산책 등 단순함을 고려하여 건물 외 공지 1인당 적정 점유면적 기준을 15㎡로, 건물 내 1인당 적정 점유면적 기준을 3㎡로 정하여 분석한 결과 경관 결절점의 순간 적정 공간용량은 212명으로 추정함([표 4-9] 참조) (반상·서환·강태호, 2012)
 - 분석 결과 적정 물리적 수용력은 1시간 당 731인, 1일 8,768인으로 산정되었음. 또한 각 조사 시간대 별로 1인당 이용가능 면적을 계산한 결과 주간에는 9.18~128.51㎡인 반면, 저녁에는 4.38~7.49㎡인 것으로 분석함(반상·서환·강태호, 2012)
 - 1인당 이용가능 면적과 세부항목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대만족도는 9.18㎡/인으로 나타났음(반상·서환·강태호, 2012)

[표 4-9] 경관 결절점의 적정 공간용량

명칭	개인(min)	단체(min)	이용가능면적(㎡)		적정 용량(인)	
			건물 내	건물 전 공지	건물 내	건물 전 공지
제1건물	4	5	100	960	34	64
제3건물	4	6	140	500	47	34
제5건물	2	3	70	190	0	13
D지점	3	4	180		12	
석수조	1	1	120		8	
계	14	19	2,260		212	

주: 건물 내 적정 공간용량은 이용가능면적을 1인당 단위점유면적(3㎡/인)으로 나눈 값이며, 건물 전 공지 적정 공간용량은 이용가능면적을 1인 당 단위점유면적(15㎡/인)으로 나눈 값임

자료: 반상·서환·강태호(2012), 경주 동궁과 월지의 적정수용력 연구-물리적·심리적 수용력을 중심으로

2. 국외 사례

- 국외 사례의 경우 물리적 수용력만을 평가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다양한 수용력을 평가한 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 물리적 수용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관광객 1인당 적정 소요면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함

1) Castellani & Sala(2012)

- Castellani & Sala(2012)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Lombardy) 지역에 위치한 2개 권역(Oltrepo Mantovano, Alpi Lepontine Mountain Community)을 대상으로 보호지역의 관광수용력을 평가함

- 관광수용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택한 지표는 [표 4-10]과 같음

[표 4-10] 관광수용력 평가를 위해 선택한 지표

구분	지표
식수 공급 및 소비	• 식수 공급의 균형 • 지하수계에 물이 흡수되는 비율 • 1일 소비
담수의 수질	• 잠재적 주민평등 지수 ÷ 실제 주민평등 지수 • 담수의 생물학적 상태 • 정수된 물을 공급받는 인원 • 호수의 생물학적 상태
에너지 소비	• 지역 에너지 소비 ÷ 국가 평균 에너지 소비
쓰레기 관리	• 1인당 1일 쓰레기 생산량 •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오차 수용력 • 분리수거 비율
공기의 질	• 연간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일 수
생물 다양성	• 종 감소, 교란
토지 이용	• 환대시설 밀집도 • 자연 지역과 보도의 혼잡 • 관광용 건물 • 1일 방문객 수
관광분야 경제의 효율성	• 관광 구조의 효율
교통	•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비율 • 지역 내 자동차 수 ÷ 거주 인구 수 • 철도 서비스 • 관광 성수기 수송수단 수
관광 밀도	• 성수기 관광 밀도

자료: Castellani & Sala(2012). Carrying capacity of tourism system: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nd management constraints towards sustainability

- 이상의 지표 중 관광과 관련 있는 지표 및 판단 기준은 [표 4-11]과 같음

[표 4-11] 관광관련 지표 및 판단 기준

구분	지표	지표 생산 방식	판단 기준		
			High	Medium	Low
토지 이용	환대시설 밀집도	침상 수 ÷ 주민 1,000명	0~100	10~300	> 300
	관광용 건물	비 호텔 건물 ÷ 총 환대 시설 건물	> 20%	10%~20%	< 10%
		외지인 사용 가구 수 ÷ 총 가구 수	< 20%	20%~50%	> 50%
	자연 지역과 보도의 혼잡	-	전문가가 판단함		
	1일 방문객 수	$V = 1일 방문객 수 ÷ 체류 관광객 수$	$V < 1$	$1 < V < 2$	$V > 2$
관광분야 경제의 효율성	관광 구조의 효율	숙박객 수 × 침상 수 × 365	< 0.2	0.2~0.4	> 0.4
관광 밀도	성수기 관광 밀도	$I = (성수기 숙박객 수 ÷ d) ÷ 주민 수$	$I < 0.5$	$0.5 < I < 1$	$I > 2$

자료: Castellani & Sala(2012). Carrying capacity of tourism system: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nd management constraints towards sustainability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2) Maggi & Fredella(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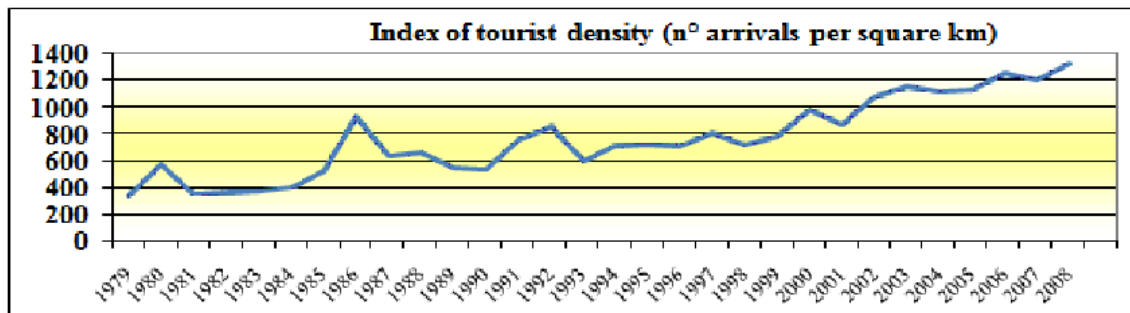
- Maggi & Fredella(2011)는 이탈리아 남부 Vieste 해안지역의 관광수용력을 평가하면서 관광객 밀도(tourist density)는 km^2 당 도착 관광객 수와 km^2 당 숙박객 수로 평가하였음
- 분석 결과 Vieste 지역의 관광객 밀도는 1979년 340에서 2008년 1,328로 증가하였으며, 극성수기 Vieste 해변은 높은 포화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1인당 최소 면적을 3m^2 로 설정한 분석 결과임)
- 이밖에도 토지 이용(km^2 당 주민과 관광객을 합한 인구 수), 1인당 침상 수, 포화정도(도착 관광객 수 $\div$ 지역 거주 주민 수), 주민 1,000명당 숙박 관광객 수 등의 지수를 활용하여 관광수용력을 분석하였음

[표 4-12] 최고 포화상태의 Vieste 해변

해변 이름	해변 길이(m)	최대 이용자 수(A)	효율적인 이용자 수(B)	차이(A-B)
Sfimalicchio	460	1,385	1,577	-192
Crovatico	320	535	475	60
Chianca	216	850	720	130
Scialmarino	2,850	15,570	19,692	-4,122
Molinella	380	1,515	1,650	-135
Braico Defensola	100	950	947	3
S. Lorenzo Defensola	195		194	
Baia San Felice	120	400	1,344	-944

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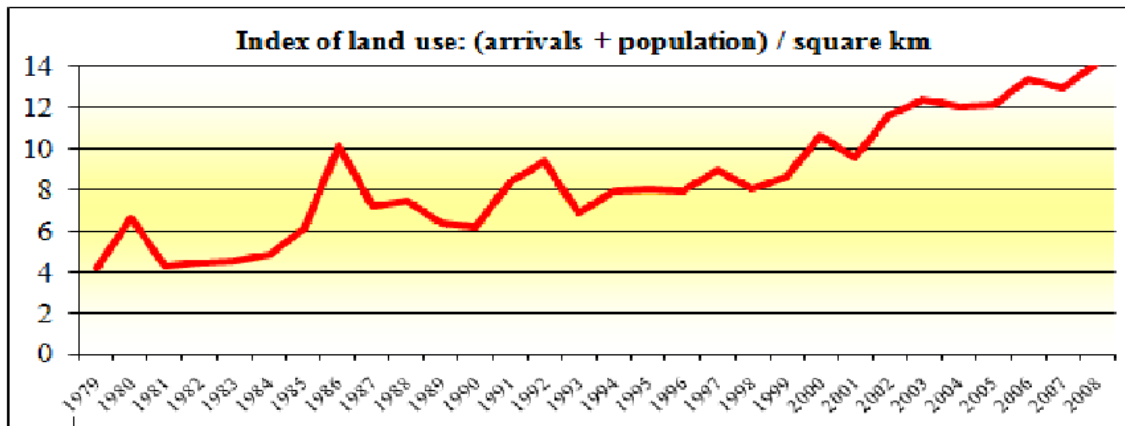
[그림 4-4] 관광 밀도 지수



Source: our elaboration data of "APT" (Tourist Office) of Vieste and I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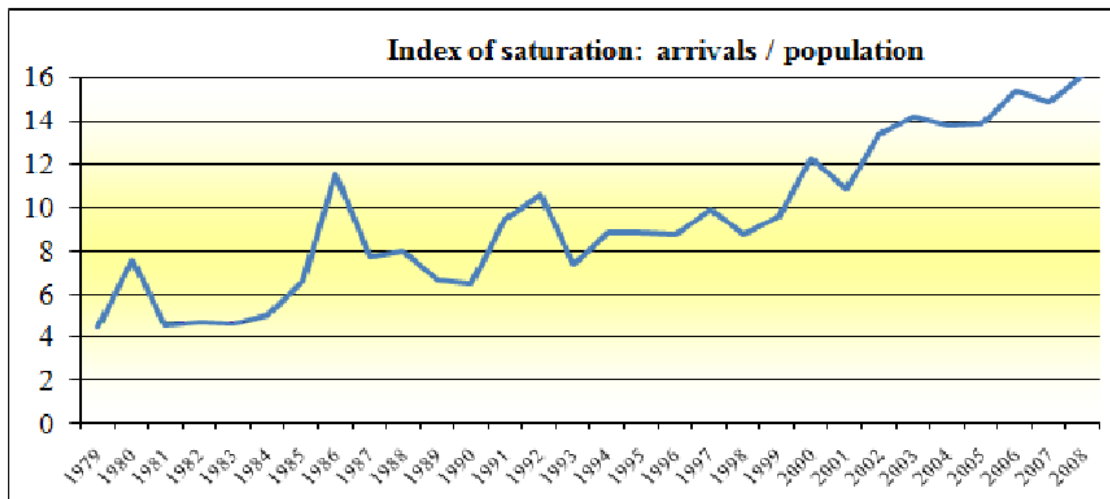
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그림 4-5] 토지 이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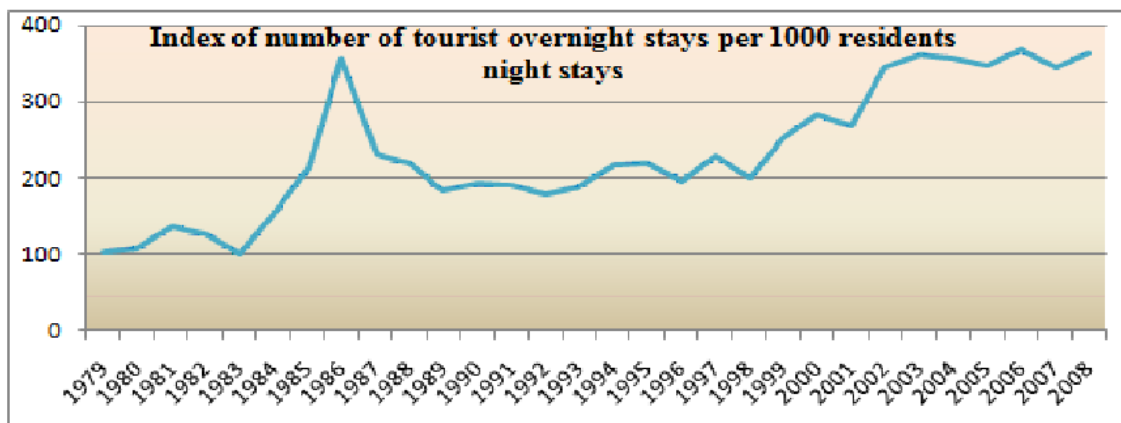
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그림 4-6] 포화 지수



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그림 4-7] 숙박 관광객 수 포화 지수



자료: Maggi & Fredella(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3) Santonocito(2009)

- Santonocito(2009)는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여러 국가 및 섬들의 관광수용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몰타(Malta)에는 km^2 당 23,623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주민 1,000명당 관광객 수는 50명 수준으로 평가함
- 키프로스(Cyprus)에는 km^2 당 1,615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주민 1,000명당 관광객 수는 49명 수준임
- 이들 국가들의 km^2 당 관광객 수는 이스라엘(862명), 이탈리아(798명), 그리스(409명)보다 많은 수준으로 상당히 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4-13] 지중해 지역 국가들의 관광압력 지수(2005년)

국가		국토면적(km^2)	인구(천명)	km^2 당 관광객 수	인구 1,000명당 관광객 수
비 EU 국가	알제리	2,381,741	3,285	2	0.4
	이집트	1,001,450	77,154	92	3.3
	모로코	446,550	30,495	34	1.4
	튀니지	163,610	9,878	222	10.1
	이스라엘	22,145	6,692	862	7.8
	요르단	92,300	5,566	60	2.7
	시리아	185,180	19,121	49	1.3
EU 국가	키프로스	9,250	836	1,615	49.0
	프랑스	675,417	61,013	293	8.9
	그리스	131,940	11,064	409	13.4
	이탈리아	301,338	58,645	798	11.2
	몰타	316	403	23,623	50.7
	포르투갈	92,391	10,547	384	9.2
	슬로베니아	20,273	2,001	245	6.8
	스페인	504,645	43,060	303	9.7

자료: Santonocito(2009), Sustainable tourism and carrying capacity in the Mediterranean area focus on Sicily

4) Coccossis & Mexa(2002)

- Coccossis & Mexa(2002) 그리스의 Rhodes 섬을 대상으로 관광수용력을 평가하면서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여 물리적 수용력을 분석하였음
 - 1ha당 관광객 수 수준: 50명이면 높은 수준의 시설, 90명이면 중간 수준의 시설
 - 해변의 수준: 1인당 6m^2 는 중간 수준, 1인당 8m^2 는 높은 수준

5) Regional Activity Centre(2007)

- Regional Activity Centre(2007)는 키프로스(Cyprus) Larnaca 거리의 관광수용력을 평가하면서 관광객 밀도 등을 조사하였음

[표 4-14] 키프로스 및 유사한 지중해 섬들의 기초 자료

구분	Cyprus	Balearics	Corsica	Sicily	Malta	Crete
면적(km ²)	5,896	4,992	8,680	25,708	315	8,336
2007년 인구(천명)	735,800	1,031,617	279,440	5,245,806	386,007	635,031
인구 밀도	124.8	206.7	32.2	204.1	1,225.4	76.2
해안선 길이	431	790	784	990	320	836
2005년 외국인 관광객 수	2,470,063	9,657,516	280,388	1,540,745	1,171,000	1,414,626
2005년 내국인 관광객 수	913,820	2,972,026	806,016	2,762,903	—	318,053
2005년 총 관광객 수	3,383,883	12,629,542	1,086,404	4,303,648	1,171,000	1,732,679
내국인 관광객 비율	27.0	23.5	74.2	64.2	0.0	18.4
거주민당 관광객 수	4.6	12.2	3.9	0.8	3.0	2.7
km ² 당 관광객 수	574	2,530	125	167	3,717	208
해안선 km당 관광객 수	7,851	15,987	1,386	4,347	3,659	2,073

자료: Regional Activity Centre(2007),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for tourism of the Larnaca district, Cyprus

6) Alcatraz Island⁸⁾

- Alcatraz Island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Golden Gate National Recreation Area에 위치한 역사적인 장소임
- Alcatraz Island 관리자들은 적정 수용력 관리를 위해 탐방객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지표 및 평가기준을 설정한 후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적정 이용수준을 결정하였음
- 연구결과 탐방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한 지역에 머무르는 탐방객의 규모는 25명을 가장 선호하였고 44명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적정 수용력은 1일 4,800명으로 나타났음

[표 4-15] Alcatraz Island 적정수용력 추정 결과

평가 기준	1일 수용력	비고
선호 수용력	2,560명	동시에 25명 수용
허용가능 수용력	4,800명	동시에 44명 수용
운영단계 수용력	4,800명	동시에 44명 수용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6] 관광수용력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1. 관광수용력 선행연구들의 교훈

■ 관광수용력에 대해 객관적인 과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함

- 관광지의 일정 단위면적에서 일어나는 관광활동과 관광객 수가 관광지의 자연 생태계 및 문화자원에 큰 영향과 훼손을 주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야 하는 관광지 관리에서 수용력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 － 관광목적지 수용력 평가의 목적은 수용할 수 없는 관광활동으로 인하여 관광목적지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발생하는 변화수준을 측정하는 것임(Castellani & Sala, 2012)
- 관광목적지 수용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관광목적지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한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객 수에 대한 정의 등을 통해 양적 수용력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시도로 이어졌음
 - － 정확한 기술을 활용한 수용력 평가는 1960년대 토지 이용의 한계를 설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학적 방법과 컴퓨터를 활용한 계산 등의 방법으로 소개되었음(Clark, 1997)
 - － 이러한 방법이 관광에 적용된 초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은 숫자를 추구했음. 실제로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에는 어떤 해변에 1인당 점유공간을 적용하여 활용 가능한 구역을 구분하는 등의 계산이 매우 간단하였음
-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관광수용력에 대해 객관적인 과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엄격한 분석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이러한 이유로 어떤 연구자들(Buckley, 1999; Papageorgiou & Brotherton, 1999)은 관광수용력 개념을 비판하기도 함
 - － 방문객 숫자와 그들이 미치는 영향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관광지에서의 수용력을 측정하는 일도 어려움을 겪어왔음(고태규, 2007)
 - － 시간이 지나는 동안 관광 영향을 일으키는 많은 변수와 관광자원의 가치 저하 간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님이 확인되었음
- 즉 수용력 적용에 있어 가장 큰 오해는 각 지역은 고유 수용력을 가지고 있고 연구나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임(이대중 · 구철현 · 조계중, 2012)
 - － 이런 오해는 공원지역설계나 관리지침에 있어서 최대 탐방객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의 탐방은 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이나 탐방객의 만족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믿게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관광수용력은 관광객들의 주관적 평가 및 행동, 관광자원의 특성 등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로 실제 측정이 어려움**

- 관광수용력 평가가 어려운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McCool & Lime, 2001)
 - 관광목적지는 객관적인 변수(예: 자원의 이용 가능성 등)와 주관적인 변수(예: 관광객 관점, 지역 사회 관점 등)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시스템임(Bimonte & Punzo, 2005)
 - 영속적인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관광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 관광객 수의 정의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됨.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운영상의 시사점은 없음(Hof & Lime, 1997)
 - 관광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의 범위는 단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관광객들의 행동(Ioannides & Billing, 2005; Wagar, 1974)이나 지역사회의 특성 등에 따라 더욱 커다란 영향을 받기도 함
 - 관광수용력은 자연적·물리적 자원의 이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의 특성, 관광 유형,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예: 혼잡에 대한 인식), 기타 지역의 상황 등에 의해 결정(Ioannides & Billing, 2005)되기 때문에 관광목적지는 하나의 수용력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개의 수용력을 갖게됨(Lime, 1970)
- 몇몇 연구자(Lindberg, McCool, Stankey, 1997; McCool & Lime, 2001)들은 ‘얼마의 사람 수가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연환경 변화가 그 지역의 주어진 목표와 목적 내에서 수용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 관광수용력을 유일무이한 값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능한 변화에 대한 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준들로 구성된 체계로 제안함(Ahn, Lee, Shafer, 2002)
- 관광지에서의 기대, 관광상품에 대한 선택, 관광행위, 관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이 관광객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광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관광지의 사용 정도와 그 영향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결과를 파악하는데도 실패하였음(고태규, 2007; Ceballos-Lascurain, 1996; Graefe, Vaske & Kuss, 1984; Washburn, 1982)
- 또한 자연환경보호구역 등에서 민감한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 숫자를 제한하는 관리방법 등의 수용력 조절방법은 제한된 방문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비판과 그들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음(고태규, 2007; McArthur, 1997)



IV. 수용력의 개념 및 특성

■ 관광수용력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숫자로 완성될 수 없음

- 수용력은 일반적으로 숫자로 표시하지만 Magic number(현실성 없는 가상적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 모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수용력을 결정되지 않는 한 수적인 수용력 결정은 시설 수용력 산정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 만약 관광, 환경, 사회 등을 모두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관광객 흐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는 것 보다 모니터링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관광수용력은 방문객 수와 같이 하나의 숫자로 완성되지 않지만 비록 이러한 숫자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값은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지속되는 기준으로 인식될 필요는 없음(Coccossis & Mexa, 2002)
- 모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용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한 수치화된 수용력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야외 휴양지역을 대상으로 수용력을 산정한 사례는 전혀 없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 결국 관광수용력이란 기술적인 산물이 아니며 오히려 가치 판단의 산물로 보아야 함. 수용력을 가치 판단의 산물로 보는 관점은 그 지역의 최적 이용 수준 목표 선정에 있어서 생물학적·물리적 영향의 고려뿐만 아니라 사회적·관리적 요인 조사까지도 포함함(이대중·구철현·조계중, 2012)

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수단으로서 관광수용력

- 관광수용력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과정과 체계적인 전략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야지 과학적 크기 또는 유일무이한 숫자로 인식해서는 안됨(Abernethy, 2001; Coccossis & Mexa, 2004; Lindberg, McCool & Stankey, 1997; Miller, 2001)
 - 수용력은 관광계획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기준으로 분석되고 있음
 - 수용력은 지역 관리목적을 위해 수용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생태학적·사회적 조건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관리 시스템이지 면적당 이용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며, 수용력 분석은 100% 정확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벤치마킹 요소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음(Hall & Lew, 1998)

- 관광수용력은 3개 구성요소(물리적·생태학적, 사회적·인구통계학적, 정치적·경제적)에 대한 다양한 수용력 한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수단으로 인식해야지 숫자적 가치로 보아서는 안됨(Coccossis & Mexa, 2002)
- 수용력은 절대적인 한계치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관심이 필요한 중요한 경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리에 있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O'Reilly, 1986)
- 관광수용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관광의 성장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관리 기술과 통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Saveriades, 2000)
- 적정 수용력이란 몇 명의 탐방객이 적절한 수준인가의 관점이 아니라 탐방객 영향 즉, 탐방량, 탐방활동, 탐방객의 시·공간적 분포, 집단의 규모, 기후변화,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자원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목표 설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원 및 탐방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국립공원연구원, 2007; 이대중, 2012; Cole, 1994; Hammitt & Cole, 1987; Hendee, Stankey & Lucas, 1990; McCool & Lime, 2001)
- 수용력이란 단순히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산물이 아니라 생태학적, 물리(시설)학적, 사회·심리학적 요인 조사와 공원 관리 계획 및 정책, 탐방객 의견, 자원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한 가치판단의 산물로 보아야 함(신원섭, 1999; 국립공원연구원, 2007)
- 결국 관광수용력이란 지역의 특정한 관리 목표와 목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Maggi & Fredella, 2011),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에 자원의 훼손 또는 탐방 경험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이용을 의미하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6)



05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1. 평가개요
2. 필요 면적 추정
3. 공급 면적 분석
4.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1 평가 개요

1. 평가 대상 관광수용력

- 본 계획에서는 연구 기간, 분석활용 가능 자료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함
 - 생태적 수용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에 대한 동식물 개체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 대한 다양한 항목(타 관광객 조우 현황, 혼잡도 인식, 만족도 등) 등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함
 - 생태적 수용력 및 사회심리적 수용력 모두 계절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 동안 계절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점별로 여러번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본 계획에서는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2. 평가 방법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8개 지구별 물리적 수용력은 ‘단위면적 당 사람 수 및 밀도’ 지표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이러한 분석을 위해 우선 관광수요의 규모 및 특성, 관광객 1인당 적정 소요 공간 면적 등을 추정함. 또한 8개 지구별 총 공급 면적 중 관광객 방문이 가능한 면적의 규모 등 관광공급에 대한 내용을 분석함
- 관광수요와 관광공급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주로 「관광수요 원단위(A)」을 적용하여 추정한 공급 필요 면적과 각 지구의 실제 「공급면적(B)」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관광수용력의 적정성을 평가함

[표 5-1] 관광수요 및 관광공급 분석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관광 수요	관광객 수	• 8개 지구별 총 방문객 수 전망 • 연간 최대 관광객 수 추정	• 통계 자료 • 최대일 집중율, 동시체재율 등 적용
	관광 수요 원단위(A)	• 관광객 1인당 필요한 적정 공간면적 도출	• 국내외 사례 분석
관광 공급	공급 면적 (B)	• 8개 지구 지정 면적 검토 • 녹지, 보호지역 등 관광객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제외, 유산구역과유산구역 단일 단지를 형성하는 지역 포함 등	• 지구별 내부자료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3. 전제 사항

1) 필요 면적관련 경우의 수

- 세계유산 등재 후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관광수요 전망, 연간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점의 관광객 수 전망, 1인당 적정 공간면적 등의 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본 계획에서 검토한 자료 및 사례 등을 기초로 설정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08가지(3가지×9가지×4가지)임([표 5-2] 참조)

[표 5-2] 필요 면적 산정시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구 분	주요 내용	경우의 수
관광수요 예측 기초 자료	• 여러 출처의 통계 자료 중 최소값 적용, 평균값 적용, 최대값 적용	3가지
관광수요 증가율	• 20%, 30%, 40%, 50%, 60%, 70%, 80%, 90%, 100%	9가지
최대일 관광수요 예측	• 최대일 집중율: 2-3계절 및 3-4계절 중 단일값 적용 • 동시 체재율: 1시간 및 1-2시간 중 단일값 적용	1가지
1인당 원단위	• 15㎡, 30㎡, 60㎡, 140㎡	4가지

2) 공급 면적관련 경우의 수

- 백제역사유적지구 면적은 크게 ①유산구역 전체와 ②이들 면적 중 관광객의 진입이 불가능한 녹지 등은 제외하나 유산구역과 단일 단지를 형성하는 지역은 포함하는 면적 등 2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3) 최종 평가 대상 조건

- 필요 면적관련 경우의 수와 공급 면적관련 경우의 수를 종합하면 8개 지구별로 각 2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중 본 계획에서는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를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조건은 [표 5-3]과 같음

[표 5-3]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조건

구 분	주요 내용
필요 면적 관련	관광수요 예측 기초 자료
	관광수요 증가율
	1인당 원단위
공급 면적관련	• 유산구역 중 녹지 등 관광객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제외, 유산구역과 단일 단지를 형성하는 지역 포함

2 필요 면적 추정

1. 연간 관광수요 전망

1) 관광객 수 기초 자료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자료

- 유네스코 제출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객수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표 5-4]와 같음
 -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5년간 연평균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미륵사지(680,499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567,067명), 왕궁리유적(387,133명), 송산리고분군(382,7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로 인해 공주와 부여의 2010년 방문객 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5-4]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유적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공주	공산성	163,820	235,882	296,638	189,535	214,706	220,116
	송산리고분군	422,589	323,661	491,808	371,660	304,258	382,795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509,518	636,538	736,050	516,551	436,676	567,067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44,255	169,76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78,288	55,043	136,802	68,420	65,832	80,877
익산	왕궁리유적	304,823	378,365	367,359	413,488	471,629	387,133
	미륵사지	638,815	794,236	604,873	615,377	749,196	680,499

자료: 백제역사유적지구세유산등재추진단(201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자료(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승인통계(승인번호 11305호)인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중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지점은 공산성, 무령왕릉, 부소산성, 정림사지, 왕궁리유적전시관, 미륵사지 등임
 -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5년간 연평균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미륵사지(639,801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소산성(521,792명), 무령왕릉(445,072명), 왕궁리유적전시관(336,34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2013년 입장객 수 정보가 공표된 일부 지점 중 왕궁리유적전시관(82.5% 감소) 및 미륵사지(41.8% 감소) 방문객 수는 201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5]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의 유적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공주	공산성	433,755	155,056	339,856	192,580	214,575	248,426	264,041
	무령왕릉	622,667	295,093	575,678	385,627	346,296	-	445,072
부여	부소산성	509,518	636,538	672,329	507,270	357,164	447,931	521,792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37,985	-	168,506
익산	왕궁리 유적전시관	304,823	378,365	367,359	413,488	471,629	82,404	336,345
	미륵사지	638,815	794,236	604,873	615,377	749,196	436,308	639,801

주 1) 공산성, 무령왕릉, 부소산성, 정림사지는 입장권 수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왕궁리유적전시관 및 미륵사지는 시설 자체 집계에 기초한 자료임

2) 공산성, 부소산성, 왕궁리유적전시관, 미륵사지의 연평균 자료는 2008년부터 2013년 기간의 평균이며, 무령왕릉과 정림사지의 연평균 자료는 2008년부터 2012년 기간의 평균임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시군별 통계연보

- 각 시군에서 매년 발간하는 승인통계인 통계연보의 관광객 수 자료 중 백제 역사유적지구 내 지점은 공산성, 무령왕릉,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등임
- 익산시의 경우 통계연보에 시 소재 7개 유료관광지 관광객 수의 합에 대한 정보는 수록되어 있으나 개별 지점별 관광객 수 정보는 존재하지 않음
-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5년간 연평균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부소산성(536,564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령왕릉(450,786명), 공산성(268,393명), 정림사지(168,5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6] 시군 통계연보의 유적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공주	공산성	433,755	161,198	339,856	192,580	214,575	268,393
	무령왕릉	622,667	323,661	575,678	385,627	346,296	450,786
부여	부소산성	509,518	636,538	672,329	507,270	357,164	536,564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37,985	168,506
	능산리고분군	na	na	136,802	68,420	54,524	86,582

주 1) 부여군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은 유료 방문객 수 자료이며, 2010년부터는 유료 및 무료 방문객 수를 합한 자료임

2) 능산리고분군의 평균은 2010년부터 2012년 기간의 평균임

자료: 공주시 및 부여군 각연도 통계연보

■ 관광객 수 기초 자료 종합

- [표 5-4]부터 [표 5-6]을 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점에 대한 관광객 수 정보가 출처에 따라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음
 - 보다 엄격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를 위해서는 각 출처별 자료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축제(예: 2010 세계대백제전) 등 일회성 행사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했던 연도의 관광객 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본 계획에서는 향후 세계유산 등재 후 유사한 축제 등이 개최될 것을 전제로 별도의 보정 없이 해당 연도의 관광객 수 정보를 그대로 반영하였음
- 마지막으로 왕궁리 유적전시관, 미륵사지와 같이 관광객 수가 급변하는 경우 이의 원인이 무엇이며 해당 자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본 계획에서는 2013년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시하고 분석에는 반영하지 않았음
- 이처럼 각 출처별 관광객 수 자료가 상이한 문제, 일회성 행사 등으로 인한 관광객 수 증감 문제, 연도별 관광객 수가 급증 또는 급감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필요함
- 각 출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유적별 관광객 수 자료 중 최소값([표 5-7]), 평균값([표 5-8]), 최대값([표 5-9])을 기준으로 정리한 방문객 현황 자료는 다음 표들과 같음

[표 5-7] 각 출처별 최소값 기준 유적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공주	공산성	163,820	155,056	296,638	189,535	214,575	203,925
	송산리고분군	422,589	295,093	491,808	371,660	304,258	377,082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509,518	636,538	672,329	507,270	357,164	536,564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37,985	168,506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78,288	55,043	136,802	68,420	54,524	78,615
익산	왕궁리유적	304,823	378,365	367,359	413,488	471,629	387,133
	미륵사지	638,815	794,236	604,873	615,377	749,196	680,499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표 5-8] 각 출처별 평균값 기준 유적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공주	공산성	343,777	184,045	325,450	191,565	214,619	251,891
	송산리고분군	555,974	314,138	547,721	380,971	332,283	426,218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509,518	636,538	693,569	510,364	383,668	546,731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40,075	168,924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78,288	55,043	136,802	68,420	60,178	79,746
익산	왕궁리유적	304,823	378,365	367,359	413,488	471,629	387,133
	미륵사지	638,815	794,236	604,873	615,377	749,196	680,499

[표 5-9] 각 출처별 최대값 기준 유적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공주	공산성	433,755	235,882	339,856	192,580	214,706	283,356
	송산리고분군	622,667	323,661	575,678	385,627	346,296	450,786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509,518	636,538	736,050	516,551	436,676	567,067
	정림사지	170,779	145,425	208,536	179,805	144,255	169,76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78,288	55,043	136,802	68,420	65,832	80,877
익산	왕궁리유적	304,823	378,365	367,359	413,488	471,629	387,133
	미륵사지	638,815	794,236	604,873	615,377	749,196	680,499

- 이상의 내용 중 연평균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5-10]과 같음
 - － 왕궁리유적 및 미륵사지는 3가지 경우 모두 관광객 수가 동일하나 나머지 유적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0] 유적별 연평균 방문객 현황 종합

(단위: 명)

구 분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공주	공산성	203,925	251,891	283,356
	송산리고분군	377,082	426,218	450,786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536,564	546,731	567,067
	정림사지	168,506	168,924	169,76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78,615	79,746	80,877
익산	왕궁리유적	387,133	387,133	387,133
	미륵사지	680,499	680,499	680,499

2) 국내 유사사례 방문객 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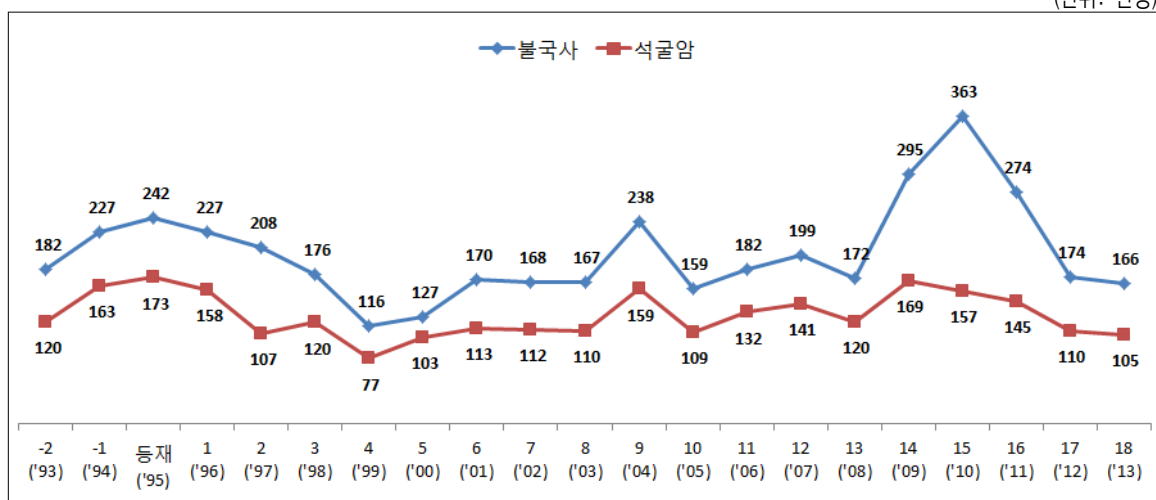
- 국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중 방문객 수 추이를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는 불국사 및 석굴암(1995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양동마을 및 하회마을(2010년), 수원화성(1997년) 등이 있음
 - 이중 수원화성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도 유사사례로 분석에 포함하였음

■ 불국사 및 석굴암(1995년)

- 불국사 및 석굴암은 199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전반적으로 방문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유산 등재 직전 2년의 평균 방문객 수는 불국사 204만명, 석굴암 141만명이었는데, 세계 문화유산 등재 후 19년(1995년~2013년) 평균 방문객 수는 불국사 201만명(-1.6%), 석굴암 127만명(-10.0%) 수준임
 - 불국사 방문객 수는 세계 문화유산 등재 후 19년 동안 12번, 석굴암 방문객 수는 13번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적었음
 - 2009~2011년 불국사 방문객 급증 상황을 조정하면 감소율은 더욱 커지는 상황임

[그림 5-1] 불국사 및 석굴암 방문객 수 추이

(단위: 만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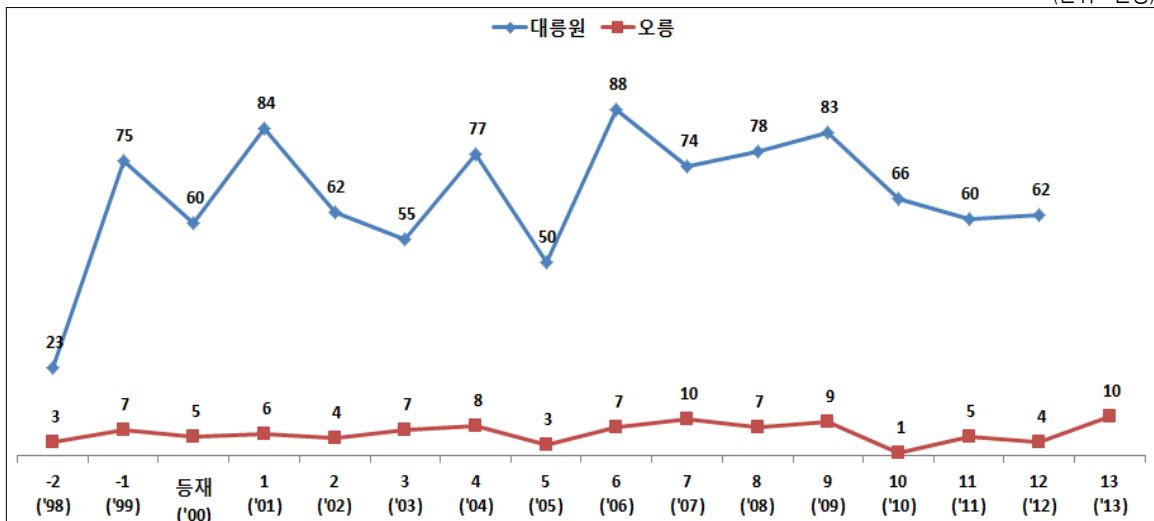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 경주역사유적지구 중 방문객 수 자료 확인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함
- 대능원지구 중 대릉원의 세계유산 등재 후 13년간 평균 방문객 수(69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49만명) 보다 41.2% 증가하였음
 - 등재 후 13년 동안 대릉원 방문객 수는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 대능원지구 중 오릉의 세계유산 등재 후 14년간 평균 방문객 수(6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5만명) 보다 19.0% 증가하였음
 - 오릉 방문객 수는 등재 후 14년 동안 6번이나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적었음

[그림 5-2]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대능원지구 방문객 수 추이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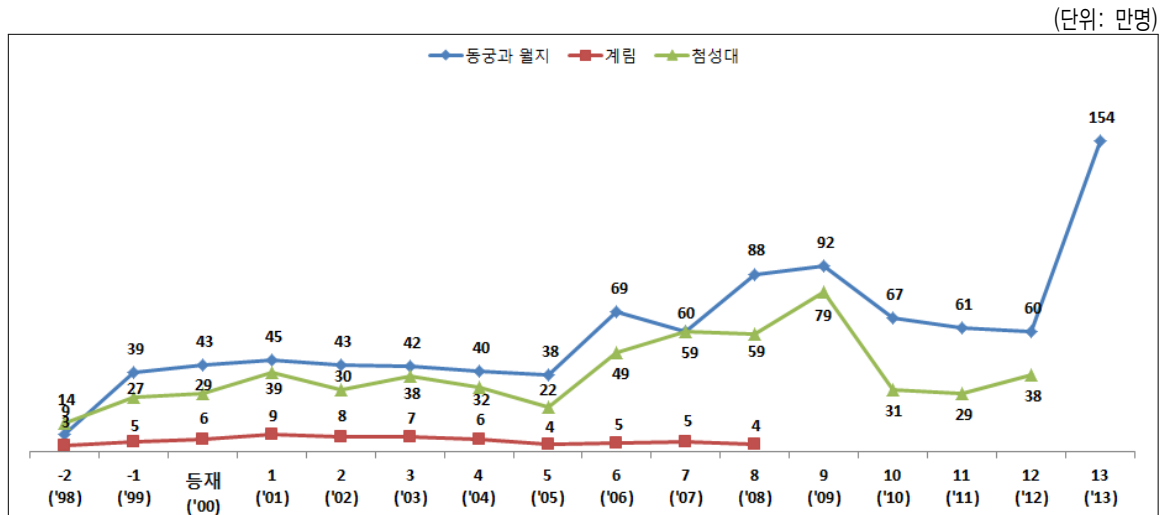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월성지구 중 동궁과 월지의 세계유산 등재 후 14년간 평균 방문객 수(64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24만명) 보다 152.3% 증가하였음
 - 동궁과 월지 방문객 수는 등재 후 14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으며, 특히 2013년에는 등재 직전 2년 대비 6.5배 급증하였음
- 월성지구 중 계림의 세계유산 등재 후 9년간 평균 방문객 수(6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4만명) 보다 44.2% 증가하였음
 - 계림 방문객 수는 등재 후 9년 동안 2번이나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적었음

- 월성지구 중 첨성대의 세계유산 등재 후 13년간 평균 방문객 수(41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21만명) 보다 97.9% 증가하였음
- 첨성대 방문객 수는 등재 후 13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그림 5-3]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월성지구 방문객 수 추이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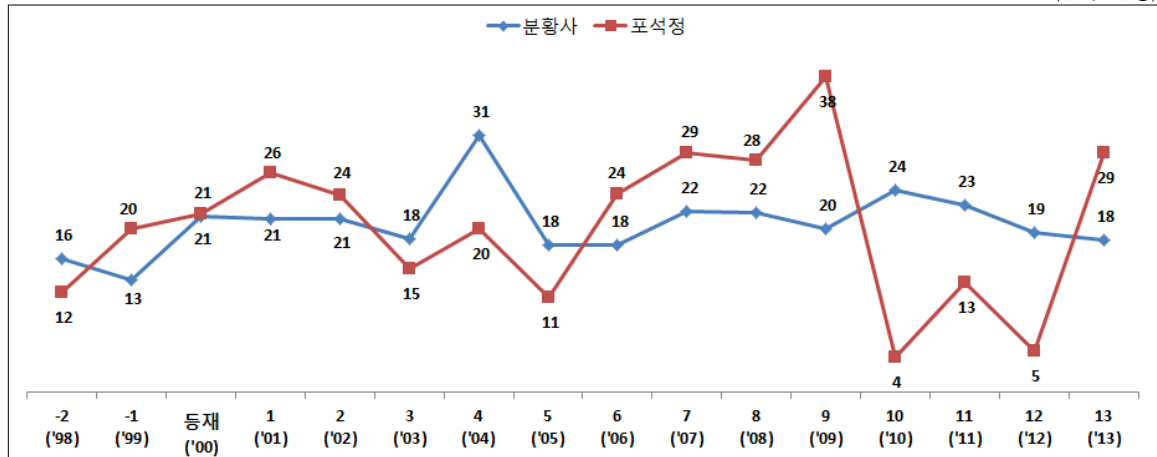
- 향릉사지구 중 분황사의 세계유산 등재 후 14년간 평균 방문객 수(21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15만명) 보다 42.9% 증가하였음
- 분황사 방문객 수는 등재 후 14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 남산지구 중 포석정의 세계유산 등재 후 14년간 평균 방문객 수(21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16만명) 보다 29.5% 증가하였음
- 포석정 방문객 수는 등재 후 14년 동안 5번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적었음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그림 5-4]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분황사 및 포석정 방문객 수 추이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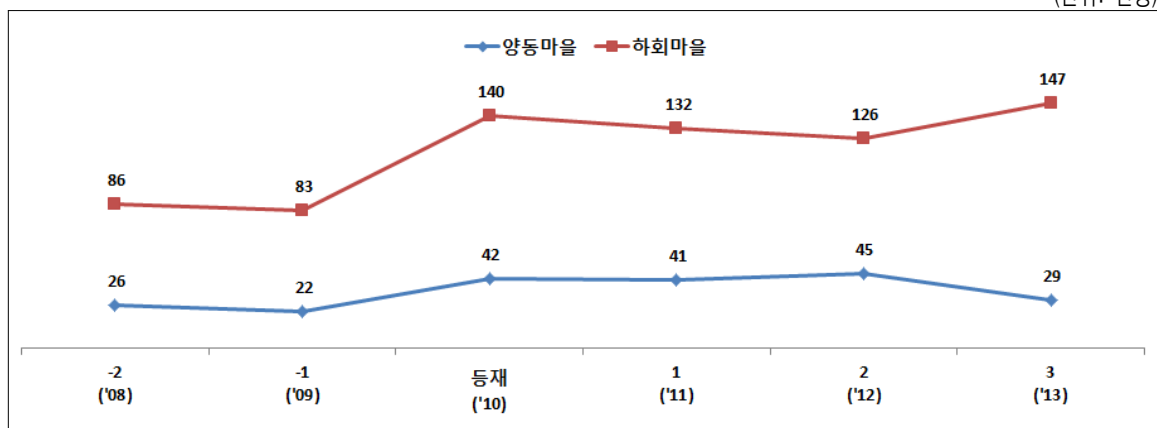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양동마을 및 하회마을(2010년)

- 양동마을의 세계유산 등재 후 4년간 평균 방문객 수(39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24만명) 보다 61.9% 증가하였음
 - 양동마을 방문객 수는 등재 후 4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 하회마을의 세계유산 등재 후 4년간 평균 방문객 수(136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85만명) 보다 60.8% 증가하였음
 - 하회마을 방문객 수는 등재 후 4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그림 5-5] 양동마을 및 하회마을 방문객 수 추이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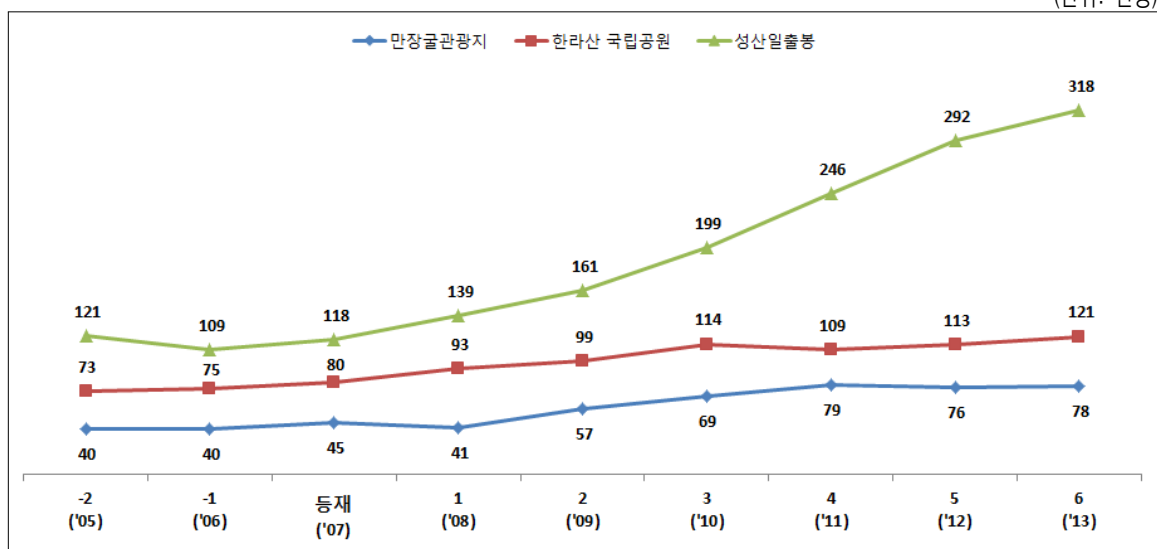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 만장굴 관광지의 세계유산 등재 후 7년간 평균 방문객 수(64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40만명) 보다 57.7% 증가하였음
 - 만장굴 관광지 방문객 수는 등재 후 7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 한라산 국립공원의 세계유산 등재 후 7년간 평균 방문객 수(104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74만명) 보다 40.2% 증가하였음
 - 한라산 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등재 후 7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 성산 일출봉의 세계유산 등재 후 7년간 평균 방문객 수(210만명)는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115만명) 보다 82.8% 증가하였음
 - 성산 일출봉 방문객 수는 등재 후 7년 동안 모두 등재 직전 2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았음

[그림 5-6]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방문객 수 추이

(단위: 만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시사점

- 국내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등재 지역의 경우 불국사와 석굴암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등재 후 방문객 수 가 등재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유산 등재 후 방문객 수 증가 상위 지점은 동궁과 월지(152.3%), 첨성대(97.9%), 성산 일출봉(82.8%), 양동마을(61.9%), 하회마을(60.8%) 순임
 - 세계유산 등재 후 방문객 수 증가 하위 지점은 석굴암(-10.0%), 불국사(-1.6%), 오릉(19.0%), 포석정(29.5%), 한라산 국립공원(40.2%) 순임
 -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동궁과 월지의 경우 15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은 40%~6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성산 일출봉과 같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 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등재 후에도 연도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총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객 수 전망

-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 각 지구별 관광객 수 기초자료와 향후 관광객 증가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각 지구별 관광객 수 기초자료는 [표 5-7]부터 [표 5-9]에 제시된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을 사용하였음
 - 관광객 수 전망 과정에서는 각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모두 실시한 후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에는 평균값을 활용한 관광객 수 전망 결과를 활용하였음
- 향후 관광객 증가율 시나리오는 국내 세계유산 등재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20%부터 100%까지를 10% 간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는 등재 후 관광객 수 증가율을 20% 적용하였으나 국내 사례를 고려해보면 20%는 최소 증가율 수준으로 판단됨
 - 관광객 수 기초자료는 평균값만을 적용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하였으나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 최소값 기초자료 적용시 관광수요 전망

- 최소값 기초자료에 방문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망한 각 지구별 관광객 수 전망은 [표 5-11]과 같음

[표 5-11] 최소값 기초자료 적용시 시나리오별 관광수요 전망

(단위: 명)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산성	244,710	265,102	285,495	305,887	326,280	346,672	367,065	387,457	407,850
송산리고분군	452,498	490,206	527,914	565,622	603,331	641,039	678,747	716,455	754,163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43,877	697,533	751,189	804,846	858,502	912,158	965,815	1,019,471	1,073,128
정림사지	202,207	219,058	235,908	252,759	269,610	286,460	303,311	320,161	337,012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94,338	102,200	110,062	117,923	125,785	133,646	141,508	149,369	157,231
왕궁리유적	464,559	503,273	541,986	580,699	619,412	658,126	696,839	735,552	774,266
미륵사지	816,599	884,649	952,699	1,020,749	1,088,799	1,156,849	1,224,899	1,292,949	1,360,999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평균값 기초자료 적용시 관광수요 전망

- 평균값 기초자료에 방문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망한 각 지구별 관광객 수 전망은 [표 5-12]와 같음

[표 5-12] 평균값 기초자료 적용시 시나리오별 관광수요 전망

(단위: 명)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산성	302,269	327,458	352,648	377,837	403,026	428,215	453,404	478,593	503,782
송산리고분군	511,461	554,083	596,705	639,327	681,948	724,570	767,192	809,814	852,435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56,078	710,751	765,424	820,097	874,770	929,443	984,117	1,038,790	1,093,463
정림사지	202,709	219,601	236,494	253,386	270,278	287,171	304,063	320,956	337,848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95,695	103,670	111,645	119,619	127,594	135,569	143,543	151,518	159,492
왕궁리유적	464,559	503,273	541,986	580,699	619,412	658,126	696,839	735,552	774,266
미륵사지	816,599	884,649	952,699	1,020,749	1,088,799	1,156,849	1,224,899	1,292,949	1,360,999

■ 최대값 기초자료 적용시 관광수요 전망

- 최대값 기초자료에 방문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망한 각 지구별 관광객 수 전망은 [표 5-1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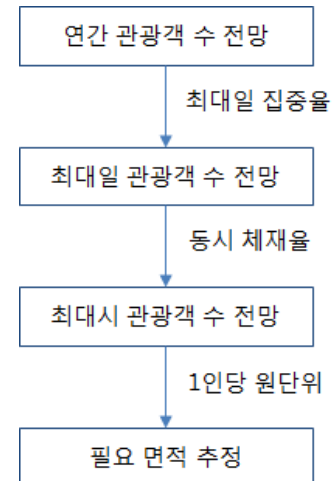
[표 5-13] 최대값 기초자료 적용시 시나리오별 관광수요 전망

(단위: 명)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산성	340,027	368,363	396,698	425,034	453,369	481,705	510,040	538,376	566,712
송산리고분군	540,943	586,022	631,100	676,179	721,257	766,336	811,414	856,493	901,572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80,480	737,187	793,893	850,600	907,307	964,013	1,020,720	1,077,427	1,134,133
정림사지	203,712	220,688	237,664	254,640	271,616	288,592	305,568	322,544	339,52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97,052	105,140	113,228	121,316	129,403	137,491	145,579	153,666	161,754
왕궁리유적	464,559	503,273	541,986	580,699	619,412	658,126	696,839	735,552	774,266
미륵사지	816,599	884,649	952,699	1,020,749	1,088,799	1,156,849	1,224,899	1,292,949	1,360,999

2. 최대시 관광객 수 전망

[그림 5-7] 필요 면적 추정 과정



- 앞서 전망한 연간 관광객 수(평균값 기준)에 각 지구별 최대일 집중율과 동시 체재율을 적용하여 최대시 관광객 수를 전망함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는 일본이 1961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최대일을 및 회전율 값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반영되었음
 - 이는 일본의 자원개발 특성에 기초한 분석 결과이며 시기적으로도 50년 이상 지난 자료로 활용 자료의 적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 최대일 집중율 및 동시 체재율을 적용하였음
-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점에서의 관광수용력이 의미 있으므로 8개 지구별로 연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관광객 수(최대시 관광객 수)를 추정함

1) 최대일 집중율

- 최대일 집중율은 1년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날의 관광객 수가 연간 총 관광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연간 총 이용객 수 중 공급규모 산정시 요구되는 특정일의 시설 이용객 수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임

$$\text{※ 최대일 집중율} = \frac{\text{최대 계획일 이용객 수}}{\text{연간 총 이용객 수}}$$

- 계절적 특성에 따라 이용객의 1일 집중도가 상이하고 그 결과 관광자원 및 시설 이용객 수의 편차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일반적으로 최대일 집중율은 4가지의 계절형으로 분류됨
 - 특정 계절의 이용객 수가 많으면 최대일 집중률 값이 높으며 이용객 수가 연중 고르게 분포될수록 최대일 집중률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 본 계획에 적용한 최대일 집중율과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시 적용한 최대일 값을 [표 5-14]와 같음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문화관광부(2007)는 최대일 집중율을 단일 값과 함께 구간 값으로 제시하고 있어, 각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표 5-14] 최대일 집중율

구 분		1계절형	2계절형	3계절형	4계절형
한국	최소값	0.028	0.010	0.008	0.007
	단일값	0.034	0.017	0.012	0.010
	최대값	0.040	0.024	0.015	0.012
일본		1/30(0.033)	1/40(0.025)	1/60(0.017)	1/100(0.010)

주: 일본은 1961년 자료로, 최대일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자료: 문화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각 지구별 계절형은 승인통계인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의 월별 방문객 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판단하였음
-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월간 관광객 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분류하면 계절별 관광객 수 등 관광객 분포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각 지구의 월별 관광객 수 자료는 [표 5-15]와 같이 3개의 월을 하나의 계절로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통합하였음

[표 5-15] 2012년 계절 구분 예시

겨울	봄	여름	가을
2011년 12월~2012년 2월	2012년 3월~5월	2012년 6월~8월	2012년 9월~11월

- 각 지구의 월별 관광객 수 분포는 [표 5-16]과 같음. 공주시와 부여군에 위치한 지구의 경우 겨울철 관광객의 비중은 10% 이하로 나타났으나 여름철 관광객 수의 비중도 작다고 보기 어려워 2~3계절형으로 판단하였음
- 익산시에 위치한 지구의 경우 겨울철 관광객 수는 4계절 중 가장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10% 이상이며 여름철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3~4계절형으로 판단하였음
- 계절형 분류를 위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는 부여군 능산리 고분군 및 나성은 부여군의 다른 지구 계절형 및 성격이 유사한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 계절형을 고려하여 2~3계절형으로 분류하였음

[표 5-16] 계절별 관광객 수 비율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공주	공산성	봄	13.7	39.6	20.8	30.8	35.5	28.1
		여름	5.5	20.8	12.0	18.7	13.5	14.1
		가을	77.6	25.8	62.1	38.9	43.5	49.6
		겨울	3.2	13.8	5.1	11.6	7.4	8.2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	봄	23.3	44.7	27.8	39.9	38.2	34.8
		여름	11.4	25.2	13.7	20.5	27.7	19.7
		가을	61.4	17.1	53.1	30.9	34.1	39.3
		겨울	3.9	13.0	5.4	8.8	—	6.2
부여	부소산성 (관북리 포함)	봄	35.0	30.8	27.9	42.6	38.5	35.0
		여름	18.8	14.4	19.0	23.2	22.3	19.5
		가을	37.0	44.4	46.2	27.8	30.3	37.2
		겨울	9.1	10.4	6.9	6.4	8.8	8.3
	정림사지	봄	36.0	43.2	36.4	39.6	44.6	40.0
		여름	19.9	26.8	23.4	21.7	21.0	22.5
		가을	37.6	19.0	32.9	29.5	34.5	30.7
		겨울	6.5	11.1	7.3	9.2	—	6.8
익산	왕궁리 유물 전시관	봄	18.7	31.9	30.8	29.9	34.2	29.1
		여름	17.3	20.2	19.5	20.6	22.8	20.1
		가을	43.8	29.4	30.0	29.6	35.4	33.6
		겨울	20.2	18.6	19.7	20.0	7.6	17.2
	미륵사지	봄	21.0	35.1	37.6	36.1	38.4	33.6
		여름	22.1	26.6	22.3	21.7	21.6	22.9
		가을	36.0	20.0	22.5	23.7	31.4	26.7
		겨울	20.9	18.3	17.6	18.5	8.6	16.8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각 지구는 하나의 계절형이 아닌 복수 계절형(2~3 계절형 또는 3~4계절형)으로 설정하였음
- 그러나 [표 5-14]에는 이와 같은 복수 계절형 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본 계획에서는 [표 5-14]에서 제시하는 계절형 값 중 복수 계절형에 포함되는 계절형의 단일값 평균을 최대일 집중율 값으로 설정하였음
 - 예를들면 2~3계절형의 경우 2계절형 단일값(0.017)과 3계절형 단일값(0.012)의 평균값(0.0145)을 최대일 집중율로 설정하였음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표 5-17] 계절형 분류 및 적용 최대일 집중율

구 분		계절형	계획일 집중율 적용 값
공주	공산성	2~3 계절형	0.0145
	송산리고분군	2~3 계절형	0.0145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2~3 계절형	0.0145
	정림사지	2~3 계절형	0.0145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3 계절형	0.0145
익산	왕궁리유적	3~4 계절형	0.0110
	미륵사지	3~4 계절형	0.0110

2) 동시 체재율⁹⁾

- 동시 체재율은 연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최대일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특정 시점의 비율을 의미함
 - 동시 체재율은 최대일의 1일 총 이용객 수 대비 최대시 이용객 수를 의미함. 즉, 동시 체재율은 특정 단위시간에 관광자원 및 시설 이용객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개념임

$$\text{※ 동시 체재율} = \frac{\text{최대시 이용객 수}}{\text{최대일 총 이용객 수}}$$

- 본 계획에 적용한 동시 체재율과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시 적용한 회전을 값은 [표 5-18]과 같음
 - 문화관광부(2007)는 우리나라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활동 현황분석에 기초하여 체류 시간을 1시간부터 최대 6시간까지로 설정하였음

[표 5-18] 동시 체재율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한국	0.16	0.31	0.47	0.62	0.77	0.92	-	-
일본	1/4 (0.250)	1/2.5 (0.400)	1/2 (0.500)	1/1.7 (0.588)	1/1.5 (0.667)	1/1.4 (0.714)	1/1.3 (0.769)	1/1.2 (0.833)

주: 일본은 1961년 자료로, 회전율이라는 용어로 사용

자료: 문화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 각 지구별 동시 체재율 설정을 위해 각 지구별 관리자 면담, 현장 조사를 통한 방문객 행태 확인 등에 기초하여 각 지구별 관광객 체류시간을 설정하였음
 - 다만 하나의 체류시간대 설정이 곤란한 경우(공산성,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에는 최대일 집중율과 같이 복수 체재시간형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반영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각 지구별 동시 체재율은 [표 5-19]와 같음

[표 5-19] 체류 시간 분류 및 적용 동시 체재율

구 분		방문 시간	동시 체재율 적용 값
공주	공산성	1~2 시간	0.235
	송산리고분군	1 시간	0.160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1~2 시간	0.235
	정림사지	1 시간	0.16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1 시간	0.160
익산	왕궁리유적	1 시간	0.160
	미륵사지	1 시간	0.160

3) 최대시 관광객 수 전망

- 관광객 수 전망에 사용한 기초자료 및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에 최대일 집중율([표 5-17])과 동시 체재율([표 5-19])을 적용하여 전망한 최대시 관광객 수는 [표 5-20]과 같음

[표 5-20] 시나리오별 최대시 관광객 수 전망

(단위: 명)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최소값 기준	공산성	834	903	973	1,042	1,112	1,181	1,251	1,320	1,390
	송산리고분군	1,050	1,137	1,225	1,312	1,400	1,487	1,575	1,662	1,750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2,194	2,377	2,560	2,743	2,925	3,108	3,291	3,474	3,657
	정림사지	469	508	547	586	625	665	704	743	782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19	237	255	274	292	310	328	347	365
	왕궁리유적	818	886	954	1,022	1,090	1,158	1,226	1,295	1,363
	미륵사지	1,437	1,557	1,677	1,797	1,916	2,036	2,156	2,276	2,395
평균값 기준	공산성	1,030	1,116	1,202	1,287	1,373	1,459	1,545	1,631	1,717
	송산리고분군	1,187	1,285	1,384	1,483	1,582	1,681	1,780	1,879	1,978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2,236	2,422	2,608	2,794	2,981	3,167	3,353	3,540	3,726
	정림사지	470	509	549	588	627	666	705	745	784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22	241	259	278	296	315	333	352	370
	왕궁리유적	818	886	954	1,022	1,090	1,158	1,226	1,295	1,363
	미륵사지	1,437	1,557	1,677	1,797	1,916	2,036	2,156	2,276	2,395
최대값 기준	공산성	1,159	1,255	1,352	1,448	1,545	1,641	1,738	1,835	1,931
	송산리고분군	1,255	1,360	1,464	1,569	1,673	1,778	1,882	1,987	2,092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2,319	2,512	2,705	2,898	3,092	3,285	3,478	3,671	3,865
	정림사지	473	512	551	591	630	670	709	748	788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25	244	263	281	300	319	338	357	375
	왕궁리유적	818	886	954	1,022	1,090	1,158	1,226	1,295	1,363
	미륵사지	1,437	1,557	1,677	1,797	1,916	2,036	2,156	2,276	2,395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3. 원단위 설정

- 원단위는 주로 관광 및 조경분야에서 옥외공간에 조성된 시설의 1인당 요구되는 자원의 개발면적을 의미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및 관광지 등의 적정 배분을 위한 것으로 토지공간을 의미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는 1인당 17㎡를 원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가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등재 신청서 작성에 활용한 김선희(2005)가 제시한 1인당 17㎡는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아니라 국내외 선행연구(油井·岡本, 1989; 이창환, 1991; 내무부, 1995; 국립공원관리공단, 2000)에서 제시한 값을 재인용한 것임
 - －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표준 공간에 근거하여 1인당 평균 점유면적을 15~30㎡로 산출하고 있다고 김선희(2005)에서 재인용하고 있음
- 관광분야 원단위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국외에서는 원단위 개념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수용력을 관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력 평가시 1인당 소요면적 등을 주요 지표로 고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절대적 값을 설정하지는 않으며, 몇몇 연구에서 일부 원단위를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
- 국내연구들은 주로 자연자원(국립공원, 순천만 등)을 대상으로 수용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수용력을 평가하기 위해 원단위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원단위가 존재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임
- 국립공원관리공단(2000)은 표준공간 개념을 이용한 물리적 수용력 분석에서 1인당 적정면적의 기준은 관광지의 특성과 입지, 관광행태, 이용공간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간표준 공간에 근거하여 1인당 평균 점유면적은 15~30㎡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김선희, 2005)
- 국립공원관리공단(2007)은 국립공원 탐방로의 적정 이용을 위한 1인당 공간을 34㎡로 설정하고 있음
 - － 이대중·구철현·조계중(2012)은 국립공원관리공단(2007)의 기준을 인용하여 최대이용율 기준시 1인당 10㎡, 적정 이용율 기준시 1인당 34㎡를 적용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2007)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원단위를 분석한 결과 문화유적형 관광자원은 60~150㎡, 문화 테마파크는 30~50㎡, 민속촌은 65~85㎡로 제시하고 있음

- 이밖에도 반상·서환·강태호(2012)은 경주 동궁과 월지의 건물외 공지의 수용력을 평가한 결과 1인당 적정 공간면적을 15㎡로 제시하였음

[표 5-21] 관광객 원단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구 분	분석 대상	1인당 원단위	분석 지역
권영선 등(1988)	심리적 수용력	•만족도 최대 수용력: 75㎡	치악산 국립공원
조현길(1989)	생태적 수용력	•적정 수용력: 100㎡	지리산 국립공원
	심리적 수용력	•적정 수용력: 38.3㎡	
엄봉훈(1992)	심리적 수용력	•적정 수용력: 60㎡	경주보문단지 잔디공간
국립공원관리공단 (2000)	물리적 수용력	•적정 점유 면적: 15~30㎡	-
김선희(2005)	물리적 수용력	•적정 점유 면적: 17㎡	광릉지역
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물리적 수용력	•적정 이용율: 34㎡	소백산 국립공원 탐방로
문화관광부 (2007)	문화유적형 관광자원 원단위	•위락·체험형: 110~130㎡ •관람형: 130~150㎡ •휴양형: 60~80㎡	전국 관광지
	문화 테마파크 원단위	•위락·체험형: 30~50㎡	
	민속촌 원단위	•관람형: 65~85㎡	
이홍·강태호 (2012)	생태적 수용력	•한계 수용력: 19.8~69.7㎡ •표준 수용력: 30.5~107.2㎡ •적정 수용력: 56.6~199.0㎡	경주 동궁과 월지
반상·서환·강태호 (2012)	물리적 수용력	•건물외 공지 수용력: 15㎡ •실내 수용력: 3㎡	경주 동궁과 월지
	사회·심리적 수용력	•적정 수용력: 9.18㎡	
이대중·구철현· 조계중(2012)	물리적 수용력	•최대 이용율: 10㎡ •적정 이용율: 34㎡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탐방로
Coccossis & Mexa (2002)	물리적 수용력	•중간 등급 공간 기준: 6㎡ •높은 등급 공간 기준: 8㎡	그리스 Rhodes 섬
Maggi & Fredella (2011)	물리적 수용력	•1인당 적정 공간: 3㎡	이탈리아 남부 해안지역

- 이와 같이 원단위에 대한 국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외에서는 절대적 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본 계획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1인당 원단위를 4개 시나리오(15㎡, 30㎡, 60㎡, 140㎡)로 설정하되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에는 30㎡를 적용하였음
 - 1인당 30㎡는 국내에서 수용력 연구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안한 적정 점유면적으로, 국립공원에는 사찰 등 역사문화 자원도 다수 분포하고 있음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4. 지구별 필요 면적 추정

- 관광객 수 기초자료 중 평균값을 기준으로 전망한 연간 관광객 수에 최대일 집중율 및 동시 체재율을 적용하여 최대시 관광객 수를 전망한 이에 원단위 (1인당 30㎡)를 적용하여 공급이 필요한 면적을 추정하였음
- 방문객 수 증가율을 50%로 산정할 경우 공급이 필요한 면적은 공산성 38,324㎡, 송산리고분군 44,497㎡,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83,834㎡, 정림사지 17,636㎡,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8,326㎡, 왕궁리유적 30,661㎡, 미륵사지 50,303㎡ 등으로 추정됨

[표 5-22] 지구별 필요 면적 추정

(단위: ㎡)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산성	30,899	33,474	36,049	38,624	41,199	43,774	46,349	48,924	51,499
송산리고분군	35,598	38,564	41,531	44,497	47,464	50,430	53,397	56,363	59,330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7,068	72,657	78,245	83,834	89,423	95,012	100,601	106,190	111,779
정림사지	14,109	15,284	16,460	17,636	18,811	19,987	21,163	22,339	23,514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6,660	7,215	7,770	8,326	8,881	9,436	9,991	10,546	11,101
왕궁리유적	24,529	26,573	28,617	30,661	32,705	34,749	36,793	38,837	40,881
미륵사지	43,116	46,709	50,303	53,896	57,489	61,082	64,675	68,268	71,861

3 공급 면적 분석

1. 지정 면적 분석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서는 각 지구별 유산구역 면적을 관광수용력 분석을 위한 기준 면적으로 설정하였음

[표 5-23] 지구별 구역 등재 신청 면적 현황

(단위: m²)

구 분		면적		
		계획구역 면적	유산구역	완충구역
공주	공산성	413,300	203,100	210,200
	송산리고분군	220,900	16,300	204,600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1,302,600	606,000	696,600
	정림사지	80,900	15,200	65,700
	능산리고분군	286,000	21,000	265,000
	나성	1,176,900	245,200	931,700
익산	왕궁리유적	248,500	123,500	125,000
	미륵사지	658,300	120,700	537,600

2. 가용 공급면적 분석

- 각 지구별 유산구역 면적 내에는 녹지, 숲 등 방문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유산구역은 아니지만 방문객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하나의 단지 형태로 분포하고 있음
 - 공산성이나 부소산성 등의 경우 대부분이 숲 지역으로 관광객 접근이 어려운 곳이 상당히 넓게 포함되어 있음
 - 송산리고분군, 정림사지,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등은 유산구역과 접하여 전시시설 등이 조성되어 유산구역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방문객들은 유산구역과 이들 전시시설을 모두 관람하고 있음
- 보다 현실적인 관광수용력 평가를 위해서는 방문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은 공급면적에서 제외하고, 반면 실제 방문객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은 공급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즉 등재 신청서에 제안된 유산구역 중 방문객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가용 공급면적에서 제외함. 대신 비록 유산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산구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공간은 가용 공급면적으로 포함함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다만 이러한 면적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산구역 면적 대비 비율로 그 규모를 추정함

1) 공산성

- 공산성 전체면적의 약 70% 면적(142,170m²)은 실질적으로 방문객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 서비스 불가능 지역은 대부분 방문객이 출입 불가능한 숲 지역이며, 공산성 지구의 방문객은 산성의 성곽 탐방로와 유적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8] 공산성 가용 공급면적 분석



2) 송산리고분군

- 송산리고분군 지구의 유산구역 면적 중 약 20% (3,260m²)는 숲, 왕릉 등으로 방문객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송산리고분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주차장으로부터 고분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웅진백제역사관,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등을 대부분 방문하고 유산구역으로 진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즉 송산리고분군 유산구역은 웅진백제역사관,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등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들 단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면적(유산구역의 약 140%인 22,820m²)의 면적을 가용 공급면적에 포함하였음

[그림 5-9] 송산리고분군 가용 공급면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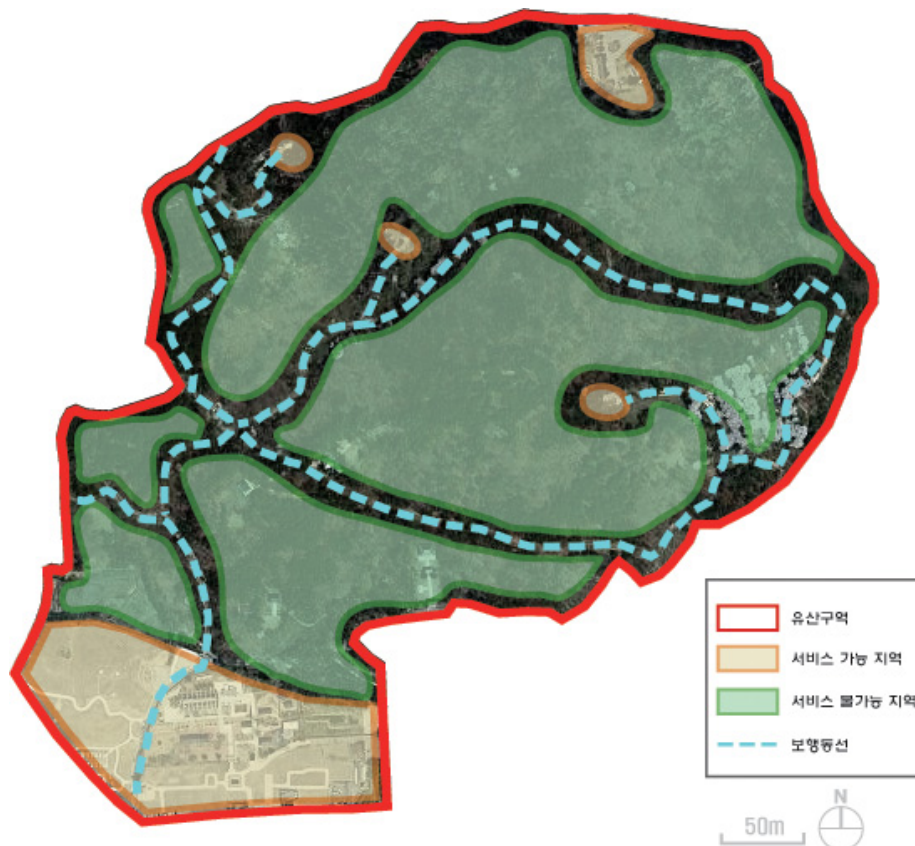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3)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지역은 등재 대상 유적지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곳으로 두 개의 유산의 면적이 합쳐졌기 때문에 타 지구에 비해 면적이 넓은 특성이 있음
- 실제 방문객 서비스가 가능한 면적은 전체면적의 약 15%(90,900m²)의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면적에 비해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는 유적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산림지역의 면적이 넓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그러나 면적이 넓고 방문형태가 유적지 보다 산림휴양과 산책 등의 겸목적 방문이 많아 특정지역에 방문객이 집중될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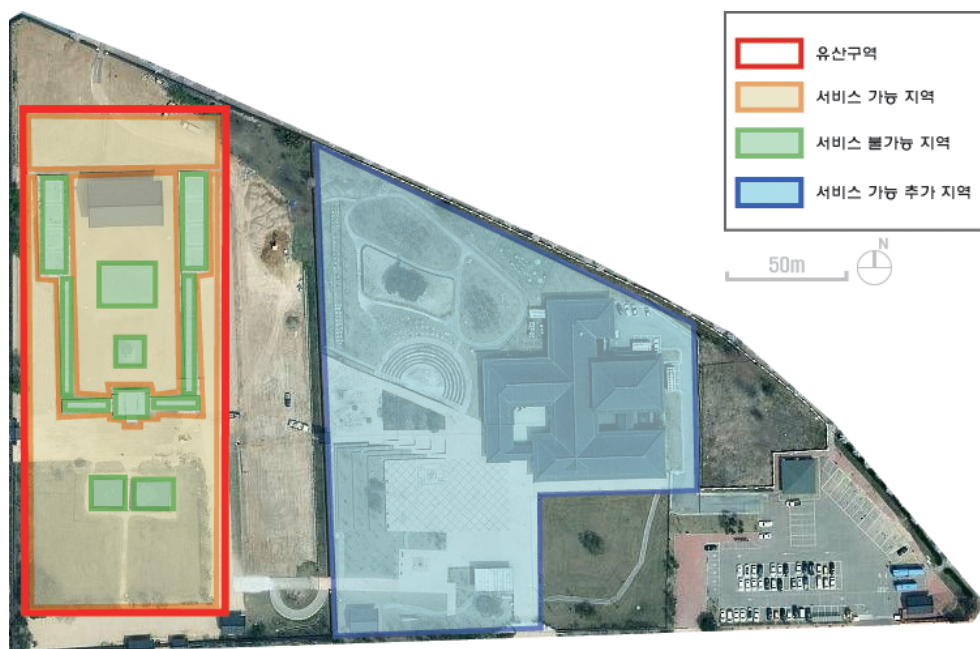
[그림 5-10]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가용 공급면적 분석



4) 정림사지

- 정림사지 지구의 유산구역 면적 중 약 15%(2,280㎡)는 정림사지 5층 석탑, 건물지 등으로 방문객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정림사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유산구역과 접해있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정림사지 박물관을 대부분 방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면적(유산구역의 약 110%인 16,720㎡)의 면적을 가용 공급면적에 포함하였음

[그림 5-11] 정림사지 가용 공급면적 분석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5) 능산리고분군

- 능산리고분군의 서비스 가능지역은 유산구역 면적의 약 50%(10,500m²)로 추정되며, 고분군의 특성상 방문객 탐방로 이외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산구역이 거의 고분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등 주변시설에서의 접근 또는 관광객의 이동 동선 관리가 해당지역의 수용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12] 능산리고분군 가용 공급면적 분석



6) 나성

-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진 나성의 길이는 약 6.3km이며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일반 방문객을 위한 방문루트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구간이 길기 때문에 방문객의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은 없음
- 성의 축조술 등을 중심으로 특정구간의 관람을 준비 중에 있어 완공된 이후에는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나성은 전체 면적 중 서비스 불가능지역을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가용 공급면적으로 산정함

[그림 5-13] 나성 가용 공급면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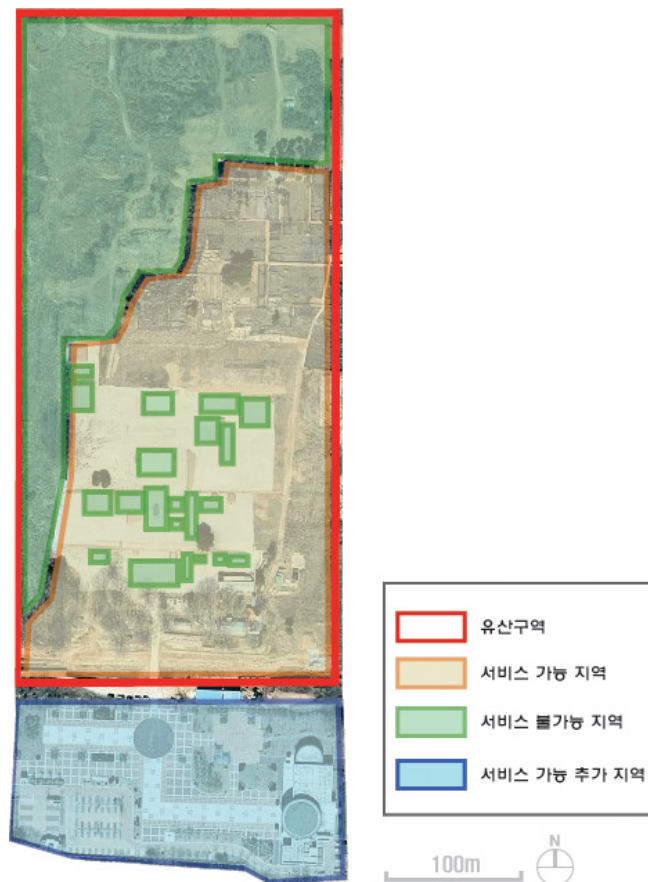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7) 왕궁리 유적

- 왕궁리 유적은 건물지와 녹지사면을 제외한 전체면적의 약 60% (74,100m²)가 서비스 가능지역인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왕궁리 유적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왕궁리 유적전시관을 먼저 방문하고 유산구역으로 진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즉 왕궁리 유적 유산구역은 왕궁리 유적전시관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들 단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면적(유산구역의 약 20%인 24,700m²)의 면적을 가용 공급면적에 포함하였음

[그림 5-14] 왕궁리 유적 가용 공급면적 분석



8) 미륵사지

- 미륵사지는 연못과 문화재 면적을 제외하면 유산구역 면적중 약 75% (90,525m²)가 서비스 가능지역으로 분석됨
- 한편 미륵사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먼저 방문하고 유산구역으로 진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즉 미륵사지 유산구역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들 단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면적(유산구역의 약 10%인 12,070m²)의 면적을 가용 공급면적에 포함하였음

[그림 5-15] 미륵사지 가용 공급면적 분석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이상에서와 같이 유산구역 중 서비스가 불가능하여 관광수용력 평가시 제외하여야 하는 면적, 비록 유산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산구역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어 관광수용력 평가시 포함하여야 하는 면적은 [표 5-24] 및 [표 5-25]와 같음

[표 5-24] 지구별 서비스 가능 및 불가능 공간 비율 추정

(단위: m², %)

구 분		유산구역	서비스 가능 지역		서비스 불가능 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공주	공산성	203,100	60,930	30.0	142,170	70.0
	송산리고분군	16,300	13,040	80.0	3,260	20.0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06,000	90,900	15.0	515,100	85.0
	정림사지	15,200	12,920	85.0	2,280	15.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66,200	252,890	95.0	13,310	5.0
익산	왕궁리유적	123,500	74,100	60.0	49,400	40.0
	미륵사지	120,700	90,525	75.0	30,175	25.0

주: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은 능산리고분군 면적의 50%(10,500m²), 나성 면적의 100%(245,200m²)를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가정 후 서비스 가능 면적 합(255,700m²)이 두 유적의 유산구역 합(266,200m²)에서 차지하는 비중(96.1%)을 고려하여 서비스 가능 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5-25] 지구별 가용 공급면적 추정

(단위: m²)

구 분		유산구역 (a)	서비스 불가능 제외 면적 (b)	서비스 가능 추가 면적 (c)	공급 면적 (a - b + c)
공주	공산성	203,100	142,170	-	60,930
	송산리고분군	16,300	3,260	22,820	35,860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06,000	515,100	-	90,900
	정림사지	15,200	2,280	16,720	29,640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66,200	13,310	-	252,890
익산	왕궁리유적	123,500	49,400	24,700	98,800
	미륵사지	120,700	30,175	12,070	102,595

4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관광수용력 평가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반영된 수용력 평가 결과는 [표 5-26]과 같음
 - 유산구역과 수요 부지 면적을 비교하여 수용력을 판단한 결과 모두 수용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송산리고분군은 서비스율 100%의 경우 수요 부지 면적(1.562ha)이 유산구역(1.63ha)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됨

[표 5-26]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수용력 분석 결과

구 분		유산구역(ha)	동시수용력(인)		수요 부지 면적(ha)	
			서비스율 100%	서비스율 70%	서비스율 100%	서비스율 70%
공주	공산성	20.31	528	370	0.898	0.629
	송산리고분군	1.63	919	643	1.562	1.093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0.60	1,217	852	2.069	1.448
	정림사지	1.52	407	285	0.693	0.485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6.62	194	136	0.330	0.231
익산	왕궁리유적	12.35	929	650	1.580	1.106
	미륵사지	12.07	1,633	1,143	2.776	1.944

■ 본 계획에서의 관광수용력 평가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와 본 계획의 관광수용력 평가와 관련한 기준 등은 [표 5-27]과 같음

[표 5-27]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와 본 계획의 관광수용력 평가 기준

구 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본 계획
관광 수요	관광객 수 기초자료	• 1개 출처 자료 검토	• 3개 출처 자료 검토
	관광객 증가율	• 20% 가정	• 20~100% 범위 내에서 9개 시나리오 설정
	최대일 집중율	• 일본(1961년) 자료 활용	• 한국(2007년) 자료 활용
	동시 체재율	• 일본(1961년) 자료 활용	• 한국(2007년) 자료 활용
	원단위	• 1인당 적정면적: 17m ²	• 1인당 적정면적: 30m ²
관광 공급	공급면적 산정	• 유산구역 전체를 공급면적으로 적용	• 유산구역 중 서비스 불가능 지역 제외 • 유산구역 외부라도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포함



V.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표 5-22]와 [표 5-25]를 비교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한 결과는 [표 5-28]과 같음
 - 물리적 관광수용력은 필요 면적([표 5-22])을 공급 면적([표 5-25])으로 나눈 값으로 분석 값이 1보다 큰 경우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할 것으로 평가됨
- 분석 결과 공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는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물리적 관광수용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송산리고분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송산리고분군은 관광객 수 증가율이 30% 이상이 되면,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관광객 수 증가율이 70% 이상이 되면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5-28]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	공산성	0.507	0.549	0.592	0.634	0.676	0.718	0.761	0.803	0.845
	송산리고분군	0.993	1.075	1.158	1.241	1.324	1.406	1.489	1.572	1.654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0.738	0.799	0.861	0.922	0.984	1.045	1.107	1.168	1.230
	정림사지	0.476	0.516	0.555	0.595	0.635	0.674	0.714	0.754	0.793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0.026	0.029	0.031	0.033	0.035	0.037	0.040	0.042	0.044
익산	왕궁리유적	0.248	0.269	0.290	0.310	0.331	0.352	0.372	0.393	0.414
	미륵사지	0.420	0.455	0.490	0.525	0.560	0.595	0.630	0.665	0.700



06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모범 사례 분석

1. 모범 사례 개요
2. ‘관광과 해설’ 모범 사례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모범 사례 개요

- 유네스코는 전세계 유산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세계유산을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그 주요 모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 모범 사례 중에는 세계유산 관리에 지역 학교의 학생들을 참여시킨 사례(슬로베니아), 지역 주민을 관광 가이드로 훈련시킨 사례(페루), 서식지를 벗어난 호랑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일론 담장을 설치한 사례(인도) 등이 있음
-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관리 범주를 9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세계유산 관리를 위해서는 9개 범주 모두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9개 범주를 상호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표 6-1]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범주 및 주요 내용

관리 범주	주요 내용
보전 (Conservation)	자원의 보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관리 방안이나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예: 보다 우수한 관리·복원·재활 방안, 다양한 위협과 도전 요인에 대한 소개 등)
지역사회 (Local people)	자원이 위치한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자원관리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범적인 방안이 있는가?
법률 체계 (Legal framework)	세계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범위 (Boundaries)	완충지역 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자원의 범위를 관리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있는가?
지속가능한 자원 (Sustainable finance)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직원 교육 및 개발 (Staffing training and development)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전략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자원 내 사용 지역 또는 자원 주변지역이 지속가능하며 또한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 (Education and interpretation programmes)	자원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 해설,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가?
관광과 해설 (Tourism and interpretation)	방문객들이 자원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한 혁신적인 계획이나 성공 방안은 무엇인가?



VI.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모범 사례 분석

2 '관광과 해설' 모범 사례 주요 내용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례

1) Wet Tropics of Queensland World Heritage Area(호주)

- 호주 북동부 지역의 열대 우림 지역으로, 관리당국(Wet Tropics Management Authority)은 지역의 관광사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유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양질의 경험을 하고 동시에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체들의 사업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음
- 세계유산에 대한 관광 체계는 호주의 자연관광 전략(Nature Based Tourism Strategy)에 맞추어 마련되었음
- 이 유산지역에서 관광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략은 접근성과 관련 있음. 최근에 조성된 캐노피 보도(canopy walkway)는 방문객들이 우수한 해설을 들으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세계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훌륭한 사례임
- 관리당국 등은 지역의 관광 안내소 등에 안내 및 해설 자료와 직원교육 등을 지원하며, 우림지역의 관광활동에 지역의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지역 관광사업체들은 관광의 품질과 지속가능한 실천에 대한 명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높은 비율의 사업자들이 호주의 생태관광 인증제도(Ecotourism Australia) 인증을 받았음
 - － 최근 퀸즐랜드 정부는 세계유산 지역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인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음
- 관리 당국은 퀸즐랜드 관광산업협회(Queensland Tourism Industry Council) 등과 협력하여 관광 가이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음
- National World Heritage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 등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세계유산 가치 발굴, 지역의 토착 세력이 관광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지역 토착 세력들이 세계유산을 통해서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토착 세력들이 세계유산 지역에서 문화적·환경적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하도록 함

2) Mogao Caves(중국)

- 실크로드에 위치한 유산으로 492개의 동굴과 동굴 신전, 조각상, 벽화 등이 주요 자원인 지역으로 세계유산의 가치, 보전, 관리 등에 대해 대중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대한 수용력 연구를 수행하고 각기 다른 상황별로 적정한 방문계획을 수립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해설 모델도 개발함
- 방문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의 Getty Conservation Institute와 공동으로 Mogao Grottoes Visitor Capacity Study를 진행하고 보전을 위한 안전 기준과 방문 영향을 도출함
 - 방문객 수용력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황별로 최대 방문 수용력, 각 지점별 적정 방문 수준을 결정하였음
 - 방문 예약 시스템 시행, 다양한 방문 루트 설정 등을 통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문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음
- Dunhuang Academy는 방문객들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점들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 현재의 관리 상황, 동굴의 보존 상태 등에 기초하여 적정한 수용력을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Dunhuang Academy은 동굴 안 기후와 방문객 흐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굴 안의 온도, 습도, CO₂ 뿐만 아니라 동굴 안의 방문객 수도 측정함
 - 이러한 자료는 실시간으로 사무실로 전송됨. 실시한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CO₂나 습도 수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비가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 등에는 동굴 개방을 중단하기도 함
-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방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1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였음
- 많은 수의 방문객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한 방문객들의 이해를 제고하며 세계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사용했으며, 안내인이 동행하는 단체 관광유형을 1인에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이러한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방문객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문객들이 동굴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보전과 방문 모두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
- 최근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시각 현실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동굴 해설을 실험하여 동굴 개발로 인한 압력을 줄였음



VI.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모범 사례 분석

- 이러한 방식이 동굴을 보존하는데 매우 효율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지금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유산지역 전체를 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성수기에는 탐방 루트를 늘리고 루트를 시기적절하게 조정하여 방문객 흐름과 방문 시간을 줄임으로써 동굴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켰음

3) Jiuzhaigou Valley Scenic and Historic Interest Area(중국)

- 원뿔형 카르스트 지형, 폭포 등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숲 생태계이며 자이언트 판다 등이 서식하는 지역임
- 여행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성수기에는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다른 곳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방문객 압력을 줄이고 있음
- 관광 성수기에는 시공간적 분산을 위하여 Entropy-RFID-Based Management Model을 적용하고 있음
- Digital Jiuzhaigou와 Smart Jiuzhaigou 프로젝트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방문객들이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문객 관리를 운영함

4) Sundarbans National Park(인도)

- 세계 최대 규모의 맹그로브 숲과 호랑이가 서식하는 지역인 Sundarbans은 매우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지역인데 양질의 야생 경험을 제공하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음
 - Sundarbans 전 지역을 ‘플라스틱 없는 지역(No Plastic Zone)’으로 선포하였으며, 캠핑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재활용 쓰레기는 모두 콜카타로 보내지며 나머지는 모두 소각로로 보내 처리하고 있음
- 관광보트와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며, 방문객과 동행하며 현장에서 자연 및 자연자원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에코 가이드를 34명 배치하였음
-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생태관광 및 교통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25%는 지역 사회의 Joint Forest Management Committees(JFMC)에 지원됨. 이러한 혁신적인 실행은 지역에 대한 수익을 증대시킴

5) Shiretoko(일본)

- 해양과 육지 생태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지역임
-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의 관련된 조직, 관광협회 등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2009년 Shiretoko Rules을 제정하였음
- Shiretok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Regional Liaison Committee(지역 연락 위원회)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서 2010년부터 Shiretoko 생태 관광 전략을 추진하였음
 - 전략의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 지역의 자연적 가치 보호, 방문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연 경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임
 - 첫째 해에는 전략의 주요 내용을 준비하고 둘째 해에는 이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며 셋째 해에는 전략 실행방안을 마련함
- 호수 주변은 갈색곰 서식지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2011년부터 생태관광 전략의 주요 내용(세계유산 지역의 자연적 가치 보호, 방문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연 경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관리계획에 따라 대규모 방문객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6) The Historic Town of Vigan World Heritage Site(필리핀)

- 16세기에 세워진 스페인 식민 도시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도시임
-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Vigan시는 방문객들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몇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음
 - 중심 역사 거리와 일부 보호구역에는 동력 교통수단 진입 금지
 - 보호구역 내 적절한 쓰레기 처리 방안 마련
 - 역사적 건축물의 전기 시스템에 대한 정기 검사와 역사적 건축물 거주자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정기 소방 훈련 실시



VI.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모범 사례 분석

2. 유럽지역 사례

1) Archaeological Ensemble of Merida(스페인)

- Merida 종합관리계획에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세계유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 통과된 연간 계획에 따라 세계유산 지역 내 각 요소들에 대한 보호활동
 - 2001년부터 기념물들을 위한 대중 방문 규정(Public Visit Rules) 제정 및 실행
 - 2001년부터 기념물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Rules For The Use Of Monumental Spaces 제정 및 실행
 -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대중들은 기념물 공간에 대한 방문자와 사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함
- 방문활동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이행하는 Comprehensive Management Project를 마련함
 - 조정 계획: 대중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계획 수립, 대중의 방문을 위한 여행 디자인, 공간 관리(인적 자원, 서비스, 일정, 수용력 등)를 위한 종합 기준을 마련함
 - 방문 및 사용 규정: 방문 및 사용 규정 실행은 방문 활동이 세계유산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도함

2) Teide National Park(스페인)

-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화산지형으로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 계획 필요한 지역임
- Teide National Park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음
 - Zoning. 자연자원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공원내부를 구역화하고 이용 수준 등을 정함. 가장 높은 등급의 보호구역은 과학 및 관리 목적 이외에는 개방하지 않음
 - 전망 포인트,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대량 관광객들이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체류하도록 유도함
 - 자동차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포장 산책로를 폐쇄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보호막을 설치하였음.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국립공원의 넓은 지역이 인간 활동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었음

- 공원 전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특히 방문객들이 집중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되었음
- 방문객들이 국립공원 자연 유산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생각을 갖을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해설을 제공함
- 연간 300만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외부 관광 가이드의 해설이 증가하고 있음. 외부 관광 가이드들이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은 매년 가이드들을 위한 교육코스를 운영하는데, 가이드들이 국립공원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함

3) Acropolis, Athens(그리스)

-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기념물들이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임
- 세계유산에 대한 접근성, 방문객 편의시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04년 리프트를 건설함
- 방문객 안전을 위한 비상계획,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과학적 연구(예: 지진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 등을 수행하였음
-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던 낡은 박물관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등재 구역 외부에 새로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건립함
 - 새로운 박물관 운영으로 언덕지역의 방문객 혼잡과 대기시간은 감소하였음
 - 또한 방문객들은 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상시 또는 일시 전시시설과 편의시설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동안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었음

4) Medieval City of Rhodes(그리스)

- 중세의 모습이 남아 있는 도시로 관광개발과 여름철 관광객의 증가는 도시를 위협하는 주요 문제가 되었음
- 관광객 압력의 증가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세 거주지역내 차량통행 통제, 도시 성벽 외곽에 주차구역 조성, 혼잡을 피하기 위해 박물관 및 고고학적 유적지 개방시간 연장, 거주지의 음식점 등 상업 활동 지역 운영 관리, 법규 위반의 경우 치안 강화 및 보다 엄격한 법률 적용 등을 실시함



VI.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모범 사례 분석

5) Historic and Architectural Complex of the Kazan Kremlin(러시아)

- 고대 도시에 세워진 역사적 · 건축학적 복합 유산임
- 세계유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주의깊은 관리를 위하여 Kazan Kremlin 방문 규정, 관광 서비스 규정, 가이드 인증 규정 등을 제정함
- Kazan Kremlin 내에서의 관광활동 증진을 위하여 2005년 Kazan Kremlin Museum Reserve 내에 Sightseeing Department를 설치함
- 유산 운영의 최적화를 위하여 2개의 교통탑을 운영중이며 여름 시기에는 시설 개방시간을 연장함
- Kul-Sharif 모스크의 경우 성수기 1일 방문객이 3천명 이상인데 관광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모스크의 로비에 4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모스크 내부 장식을 보여주고 있음
- 기도실을 대규모 단체 관광객들에 개방함으로써 단체 관광객들이 모스크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복도를 관람하는 인원 수도 감소시킴
- Kazan Kremlin Museum Reserve는 지속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여가 공간을 조성함
- 또한 젊은 방문객들을 위하여 QR코드를 설치함으로써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또한 환승 관광객들을 위한 Infotec Booking System을 구축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6) Šocjan Caves(슬로베니아)

- 석회암 지대의 지하에 형성된 깊고 넓은 협곡과 광범위한 공간임
- 성수기 관광객 관리가 핵심적인 업무인데, 성수기 관광객 방문이 동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방문객들은 공원과 완충지역으로 구분해서 안내됨. 또한 모든 단체는 방문 전에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성수기에는 학교의 단체 방문은 불가능함
- 세계유산을 방문할 수 있는 루트를 3개 운영하며, 세계유산과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자 센터 개보수 하였음

7) Boyana Church(불가리아)

- 3개(11세기, 13세기 중엽, 19세기 중엽)의 건설 단계를 걸쳐 건축되어 건축적으로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 유산임
-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8개 언어로 된 단편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 방문객들이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10분이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 8인의 방문객 당 2명(경호인, 안내자)의 박물관 직원이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문객들은 가이드 관광을 할 수 있고 또한 5개 언어(불가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된 간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3. 아메리카 지역 사례

1) Gros Morne National Park(캐나다)

- 육지로 둘러싸인 경관, 피요르드, 빙하지대 등 자연 경관이 우수한 지역임
- 연간 약 18만명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구역 수용력 설정 등과 같은 방문수요 관리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을 할 경우 환경적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Gros Morne Institute for Sustainable Tourism(GMIST)을 설립하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과 실행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음. 또한 지역 관광사업자들에게 미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GMIST는 지속가능한 관광, 효율적인 관광을 위해 관광사업 대표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담당함
 - 국내외 관광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과 실행,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경험 제공, 모험 관광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함
 - GMIST의 교육 및 훈련의 성과로 방문객들의 경험의 질이 향상되었음
-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 인쇄 정보 자료, 안내 지도 등을 제공하며, 일부 계층에 특화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VI.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모범 사례 분석

- 2008년부터 캐나다 관광 위원회(Canadian Tourism Commission)가 개발한 가치기반 방문객 세분화 모델¹⁰⁾(Values-based Visitor Segmentation Model)을 계획 수립 및 상품 개발 활동에 활용하고 있음
 - 방문객들이 문항에 응답하면 그 즉시 그들의 여행 유형에 대해 피드백을 받게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행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관광적 가치에 대해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지역의 문화 및 환경에 맞게 방문객을 9개의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형성 능력을 높여 주었음
- EQ의 활용 경험을 토대로 방문객 경험 기회(VEOC; Visitor Experience Opportunity Concept) 모델을 개발해서 모든 목적지에 활용하고 있음
 - VEOC 모델은 Gros Morne 방문객들의 경험 기회가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역 대표자, 관광 관계자, 지역 원주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만들었음
 -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유된 비전은 방문객의 가치와 관심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와 협력적 활동의 기초가 됨
 - VEOC는 지역사회 등이 방문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방문 기회를 강화함. 또한 VEOC는 방문객들이 그들이 원하는 Gros Morne의 사람, 장소,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화 서비스의 수를 설정하고 있음
- Gros Morne 국립공원은 Geospatial Research Facility의 파트너로 생물다양성 모델링, 숲 및 생태계 모델링, 디지털 3D 시각화 수단,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하며, 지속가능한 숲 관리, 자원평가, 생태관광 마케팅 등의 실행을 위한 방안도 연구하고 있음
- 공원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광수요 관리 전략도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뇌조와 북극 산토끼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일시적 구역정책(매년 7월 1일 까지 Gros Morne Mountain 폐쇄)을 실시함
 - 스노모빌링 활동이 야생지역, 식물, 환경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활동 가능한 장소 및 시기가 정해져 있음. 또한 한 시즌에 스노모빌링을 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정해서 성장을 제한하고 있음
- 새로운 하수 처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2) SGang Gwaay(캐나다)

- Haida의 삶과 예술을 보여주는 대형 삼나무 집, 몇몇 조각된 무덤과 기념물 등 Haida의 수렵 및 사냥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지역임
- 방문객들이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AMB의 관리 방향(방문객들에게 혼잡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맞추어 관리방안을 추진함
- 관광 시즌동안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방문지의 동시 방문객 수가 Backcountry Management Plan에 부합하도록 관리함
 - 또한 감시인력이 방문객과 동행할 경우 문화·역사와 관련한 해설을 함으로써 유산 공간과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임.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유산지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잠재성을 줄여나감
- SGang Gwaay Site Plan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계획은 개발에 대한 제한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
 - 예를 들면 매우 민감한 문화자원의 주변에는 보도(boardwalk) 등을 설치해야 함

3) Cueva de las Manos, Rio Pinturas(아르헨티나)

- 10,000년에서 1,300년 전 동굴 벽화 등이 남아있는 유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특히 방문객 수가 급증하였음. 관광객 중 34%가 외국인임
-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무로 된 통로(boardwalks)에는 동시에 20명 이상 방문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2010년 4월 해설센터(Interpretation Center)를 오픈하고 브로셔, 새로운 안내표지 등 제공하고 있음
 - 세계유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수기 동안 수용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 유산 지역에 있는 강을 건너기 위해 만들어졌던 다리가 매년 얼음이나 눈이 녹으면서 부서져 다리를 보수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튼튼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였음



VI.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모범 사례 분석

4) Sacred City of Caral-Supe(페루)

- 약 5,000년 역사의 고고학적 유적지역임
- Caral시 내 고고학적 유적 지역은 순회 관광 코스로 디자인 되어 있음. 순회 관광 코스에는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시간 지체없이 도시의 건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줌. 또한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전략적인 공간에 ‘전망 지점’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기념물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하고 기념물들이 방문객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 교통수단을 이용한 접근은 금지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걷거나 말을 타고 도보용 다리를 건너 시내로 들어감. 교통수단은 옛 도시 주변 지역에만 접근할 수 있음
- 방문객들은 현지 관광가이드 없이 관광할 수 없으며 가이드 1명당 관광객은 20명이 넘어서는 안됨

5) Coffee Cultural Landscape(콜롬비아)

- 커피 농업과 경관이 우수한 지역임
- 콜롬비아 커피 재배자 연합은 관광사업자를 위한 e-learning 코스를 개발 하고, 커피 농장에서 커피음료 제조까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각 자료도 제작함
- Departmental Coffee Committee of Caldas는 지역의 방문자 센터를 만들어 관광정보 뿐만 아니라 커피산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함

4. 아프리카 지역 사례

1) Cradle of Humankind World Heritage Site(남아프리카공화국)

- 유인원 화석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관광객 수를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주요 방문센터를 핵심지역의 외곽에 조성하고 14개 화석 발굴 지역 중 2군 데만 대중에 개방함
- 방문객 관리는 위탁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음. 위탁 계약서에는 관광 및 해설 등에 대한 최고의 실행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문객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연간 방문 인원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화석 실험실을 설립하여 방문객들이 작업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대규모 학교 단체를 수용함
- 세계 유산지역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민간영역에서 관리하나 모든 운영자는 관리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2) Le Morne Cultural Landscape(모리셔스)

- 울퉁불퉁한 바위산 지역으로 방문객들이 세계유산지역의 진정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방문객 행동과 관련된 법률이 계획되었음
 - 방문객 만족과 경험을 높이기 위해 방문객은 유산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여정, 다양한 루트, 루트의 난이도, 체류기간, 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 2008년부터 매년 2월 1일 노예제도 폐지 기념식이 열려 세계유산 지역에 커다란 혼잡이 발생함.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식 의식과 문화 프로그램이 단축되었음
 - 또한 행사 참석을 위한 버스 제공을 줄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참가자 수도 줄였음

3 시사점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계유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종합관리 계획과 연계된 세계유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가고 있음
- 세계유산에 대한 수용력 평가, 다양한 해설 방안, 실효성 높은 관리 방안, 유산 모니터링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세계유산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편익이 직접 발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IT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유산을 재현하고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훼손을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음



07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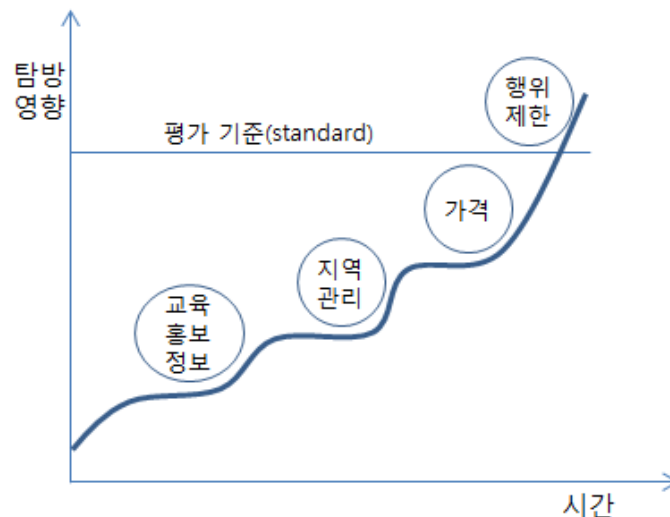
1.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2.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관광객 관리계획
3. 지구별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1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1. 단계별 관광수용력 관리¹¹⁾

- 탐방 수요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자원의 훼손과 탐방경험의 질 저하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자연해설, 생태관광 프로그램), 지역관리(훼손지 복구·복원, 특별보호구 제도), 가격·규칙(시설이용 예약제, 탐방 등급제), 행위제한(수영 및 야간산행 금지) 등의 관리정책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음(신원섭 등, 2007)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수용력 관리 역시 교육·홍보·정보, 지역 관리, 가격, 행위 제한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그림 7-1] 단계별 공원관리 방안



자료: 권현교·신원섭·한상열(2007), 계룡산국립공원 수용력 관리를 위한 휴식일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1단계: 교육·홍보·정보

- 관광객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자율성을 보장하며 이용선택의 폭을 넓게 해줄 수 있도록 교육·홍보·정보를 제공함
- 관광정보 체계 구축, 안내표지판(자원 해설 등), 세계유산 해설 프로그램 다양화 및 기회 확대, 지역 사회 및 NGO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저밀도 이용지역에 관한 정보 및 인센티브 제공, 세계유산 훼손 및 예방에 관한 교육·캠페인 등이 포함됨

11) 국립공원 수용력 조사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2008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2단계: 지역 관리

- 세계유산 지구 내 혼잡지역 훼손 및 접근 방지, 설계변경을 통한 시설물 재배치, 식생·펜스 등 장애물 설치, 순찰 강화, 관광객 분산을 위한 탐방로 정비, 관광객 유도 시설물 설치(탐방로, 관찰로, 주차장, 화장실, viewpoint 등), 문화적 민감지역·훼손지역 등에 대한 일시적·영구적 폐쇄(특별보호구 제도 등), 혼잡예방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셔틀버스 등) 활용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음

■ 3단계: 가격

- 가격정책으로 훼손지역 이용시 부하가격요금제(peak-load pricing), 혼잡요금제(congestion pricing) 등을 부과하는 방안임
 - 부하가격요금제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관광객 수가 현저히 상이할 경우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간대나 공간에 높은 요금을 책정하고 관광객 수가 적은 시간대나 공간에는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관광객 측의 요인에 의해 요금에 차이를 두는 요금제임
 - 혼잡요금제도는 세계유산을 방문한 관광객 혹은 시설의 혼잡으로 인해 세계유산 훼손, 방문 만족도 저하, 시간가치의 손실, 차량운행비의 증가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혼잡을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비용만큼 혼잡을 유발하는 사람 혹은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 4단계: 행위 제한

- 행위 및 활동(세계유산 접근, 사진 촬영 등) 제한, 입장시간 제한(계절, 요일, 시간대별), 적정 수용력을 고려한 방문예약제, 쿼터제,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사법권 강화, 차량 통행량 제한(자동차 통행금지 구역 설정) 등이 있음

[표 7-1] 단계별 관광수용력 관리 방안(안)

단계	관리 대안	세부 내용	장단점
1단계	교육, 홍보, 정보	• 양질의 정보 제공(홈페이지, 광역정보체계 및 모바일 환경) – 세계유산, 주변 관광지, 기타 문화재, 혼잡 정보 등	• 잠재된 강력한 관리수단 • 관광객 행동 변화 강조 • 자유의지 존중
		• 저혼잡 관람유도 프로그램 마련 – 혼잡도 등급제, Diet Map, 자기안내식, 전시물 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 학계, 도민, NGO 등과 협의체 구성 운영	
		• 세계유산 안내소 기능 강화(신설 또는 보수)	
2단계	지역 관리	• 혼잡지역의 훼손 및 접근 방지 – 시설물 재배치, 식생·펜스 등 장애물 설치, 순찰 강화 등	• 필수 관리수단 • 자원보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목적
		• 관광객 분산·유도 시설물 설치 – 유적지 내 탐방로, Viewpoint 등	
		• 관광객 분산을 위한 시설물 제한(주차장, 화장실 등)	
		• 민감한 세계유산지역에 대한 일시·영구적 폐쇄(휴식년제 등)	
3단계	가격	• 성수기 요금 차등화, 혼잡요금제(congestion pricing)	• 정책효율성은 큰 반면 갈등요인
4단계	행위 제한	• 혼잡시기 방문예약제, 휴식일제 등 관광객 수 제한 정책	• 행위규제 강조 • 관광경험의 질 저하 우려
		•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부과 등 사법권 강화	
		• 차량통행 제한(극성수기 셔틀버스 운행 등)	

2. 직간접적인 관광객 관리계획

- 관광객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 관광객 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관광객 행위조절은 직접적 관리 또는 간접적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짐(국립공원연구원, 2006)
 - 직접적 관리는 관광객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행위를 규제하거나 통제(예: 벌금)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관광객이 기대하는 경험과 상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관광객 선택의 자유박탈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자원관리 편익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행해야 함
 - 간접적 관리는 최소한의 통제만으로 관광객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격정책 활용, 정보 제공과 교육, 자원관리 시스템 개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관광객의 이해와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임(국립공원연구원, 2006)
- 일반적으로 직접적 관리는 간접적 관리에 비해 관광객의 휴양경험에 많은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간접적 관리로 인한 관광객 행위 조절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만 직접적 관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됨(국립공원연구원, 2006)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비록 정책효율성은 다소 미진하더라도 관광객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관광 집중 지역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간접적 관리전략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국립공원연구원, 2006)
-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공원관리상 부정적 영향이 커질 때는 직접적 관리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다른 관광객의 휴양경험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직접적 관리 정도가 적정할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6)

[표 7-2] 탐방객 관리방안

관리방안	특 성	관리방안 사례
직접적 관리방안	• 행동의 규제 • 개인의 선택을 제약 • 통제가 강함	• 특정지역의 이용 규제(자동차 통행금지 구역 등) • 시간대별 이용의 규제 • 탐방로, 계곡 등의 자연휴식년제 • 탐방예약제 • 시설예약제(야영장, 대피소) • 집단탐방구성원의 수 제한 • 특정지역내의 이용시간 제한 • 특정탐방활동 금지
간접적 관리방안	•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줌 •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 • 통제성이 적고 이용선택의 폭이 넓음	• 가격차등화정책: 부하가격요금제, 혼잡요금제 • 탐방로 및 야영장의 정비 • 저밀도이용지역에 대한 홍보와 유인 • 야생 동식물의 증식 • 정보제공 및 친환경 교육 • 다양한 휴양기회(recreation opportunity) 제공 • 입장료/시설사용료 부과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06), 입장료 폐지시 공원관리 강화 방안

1) 직접적 관광객 관리계획

- 직접적 관리계획은 세계유산 구역 중에서 관광객이 이용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지역과 시설 등을 규정하여 전면 제한(휴식년제) 또는 조건부 제한(방문예약제) 하는 경우와 세계유산 규칙을 위반한 관광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광객 활동을 직접적으로 단속, 규제하는 제도가 대표적임(국립공원연구원, 2006)
- 직접적 관리계획은 세계유산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세계유산 훼손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관광행위에 대한 직접적·물리적 제한으로 관광객의 불만을 초래하게 됨

■ 휴식년제

- 관광객의 집중적인 방문으로 세계유산이 훼손되거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계유산과 그 주변 문화·생태자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세계유산의 훼손을 예방하는 제도임

■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예약제

- 세계유산 지구 내 각종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수기와 비수기, 휴일과 비휴일 이용에 극심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에 불편이 발생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및 세계유산 훼손 위험이 높아짐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지구 내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설물별 또는 프로그램별 수용범위 내에서 예약제를 실시함

■ 방문 예약제

- 세계유산 지구 방문 예약제는 세계유산 자원의 관광수용력 및 관리적 수용력을 고려하여 관광객 수·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일부 지역과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계유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함
- 방문 예약자에 대하여 세계유산 해설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세계유산 자원 보호와 함께 관광객 경험의 질을 제고함

■ 위법·무질서 행위 계도 및 단속

- 세계유산의 훼손 및 잡상행위, 무단 취사 및 야영, 동·식물 채취, 무단 주·정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위법 및 무질서 행위가 심화될 경우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익근무요원 등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음
- 직접적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관광객의 불쾌감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인력을 통해 관리한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어 간접적 관리방안과 적절한 병행 시행이 필요함

2) 간접적 관광객 관리계획

- 관광객에게 세계유산 관람 규칙,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세계유산 자원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광객 스스로 훼손행위를 자제하고 세계유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하는 방법임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이는 일종의 Communication기법으로 세계유산 방문객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장기적으로 시설 및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침을 전달하고 관광활동에 있어 자발적 문화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임

■ 세계유산 안내소

- 세계유산 안내소는 관광객에게 방문하는 세계유산의 내용·특징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세계유산 관람 및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함

■ 세계유산 관찰로

- 세계유산 관찰로는 관광객이 세계유산 지구의 특정지역을 탐방하면서 주변에 전개되는 세계유산 및 문화자원을 감상·관찰하고 세계유산의 내용과 가치를 이해하며, 나아가 세계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세계유산 및 주요 자원 등에 대한 해설 및 체험시설을 제공하는 탐방로임

■ 자원봉사 프로그램

- 세계유산 지구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발적 의지를 지닌 지역민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민의 의식고취와 유산 보존·감시·관리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계유산 지구에서의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개념보다는 세계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운용되어야 함
-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의 시행과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 계층 및 이해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여야 함

■ 관람안내 및 정보 제공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세계유산 지구별 관광객 이용 현황 및 정보를 전달하여 혼잡 발생 지역을 피하도록 유도함
- 이러한 관리방안은 관광객이 특정 지구 또는 특정 시기에 집중됨으로써 세계유산 훼손은 물론 관광객의 안전과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음

■ 세계유산 해설 프로그램

- 관광객에게 세계유산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 유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세계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이끌어 내도록 함
- 해설사 및 유관 여행사 직원들의 문화재 이해도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등의 개발이 필요함
 - 적절한 해설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여행업 등 유관 사업체 직원들을 교육하고 해설사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함
- 고품격 해설 서비스 제공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IT·IOT 기반(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물인터넷, 비콘 등)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계층 별 문화 콘텐츠 확보가 필요함

3. 지속가능한 관광

1)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 및 주요 이슈¹²⁾

가.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

- 1. 경제성: 관광목적지와 관광산업이 경쟁력과 경제성을 갖추어야 함. 그 결과 관광은 장기적으로·지속적으로 편익을 창출하고 전달함
- 2. 지역 번성: 관광은 관광목적지 사회의 번영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 하여야 함. 방문객들의 지출이 지역에 환원됨
- 3. 일자리의 질: 임금 수준, 근무 환경, 성별·인종·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상황 등을 포함하여 관광이 지역의 일자리 수 및 질을 강화함
- 4. 사회적 형평성: 관광으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소득, 기회,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등)이 폭넓게 분배됨
- 5. 방문객 기대 충족: 성별·인종·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우며 기대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제공함
- 6. 지역 관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관리 및 미래의 관광 개발 등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에 지역 사회를 참여시키고 권한을 부여함
- 7. 지역사회 복지: 사회적 구조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 어메니티, 생활지원

12) 「UNWTO(2013),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시스템,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하락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강화함

- 8. 문화적 풍요: 역사적 유적, 진정성 있는 문화, 전통, 지역사회의 독특성 등을 존중하고 강화함
- 9. 자연 보전: 물리적으로 시각적인 환경 파괴 방지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 경관의 질을 유지하고 높임
- 10. 생물학적 다양성: 자연 지역, 서식지, 야생지역의 보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함
- 11. 자원 효율성: 관광 시설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족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사용을 최소화함
- 12. 환경적 청정: 공기, 물, 토지 오염을 최소화하며, 관광산업 및 방문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최소화함

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핵심 이슈

- UNWTO(2013)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영역을 5개의 대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대영역별로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각 영역과 앞서 ‘가.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에서 살펴본 목표들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음
- 첫 번째 대영역은 관광정책과 거버넌스로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 관광의 우선순위, 관광정책과 규제 틀, 관광 거버넌스와 제도적 편제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됨
- 두 번째 대영역은 경제적 성과·투자·경쟁력이며 하위 영역으로는 관광 및 경제에 대한 관광의 기여도 측정, 교역·투자·사업 환경, 브랜드·마케팅·상품 포지셔닝, 회복성·안전성·위기 관리 등이 있음
- 세 번째 대영역은 고용, 양질의 일자리와 인적 자원으로 인적자원 계획 및 근무 환경, 숙련도 평가 및 훈련 제공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됨
- 네 번째 대영역은 빈곤 감소와 사회적 포용이며 하위 영역으로는 관광을 통한 빈곤 감소, pro-poor 관광 강화, 불우한 계층의 관광부문 참여, 사회적 부작용 예방 등이 있음

- 마지막 대영역은 자연 및 문화적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며 자연과 문화유산관련 관광, 기후 변화에 집중, 관광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속가능성 강화, 관광의 영향 측정 및 모니터링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됨

[표 7-3] 지속가능한 관광의 주요 영역 및 관련 목표

지속가능한 관광의 영역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
1. 관광정책과 거버넌스 1.1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 관광의 우선순위 1.2 관광정책과 규제 틀 1.3 관광 거버넌스와 제도적 편제	12개 목표 모두
2. 경제적 성과, 투자, 경쟁력 2.1 관광 및 경제에 대한 관광의 기여도 측정 2.2 교역 · 투자 · 사업 환경 2.3 브랜드, 마케팅, 상품 포지셔닝 2.4 회복성, 안전성, 위기 관리	1. 경제성 2. 지역 번성 5. 방문객 기대 충족
3. 고용, 양질의 일자리와 인적 자원 3.1 인적자원 계획 및 근무 환경 3.2 숙련도 평가 및 훈련 제공	3. 일자리의 질
4. 빈곤 감소와 사회적 포용 4.1 관광을 통한 빈곤 감소 4.2 pro-poor 관광 강화 4.3 불우한 계층의 관광부문 참여 4.4 사회적 부작용 예방	2. 지역 번성 4. 사회적 형평성 6. 지역 관리 7. 지역사회 복지
5. 자연 및 문화적 환경의 지속가능성 5.1 자연과 문화유산관련 관광 5.2 기후 변화에 집중 5.3 관광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속가능성 강화 5.4 관광의 영향 측정 및 모니터링	8. 문화적 풍요 9. 자연 보전 10. 생물학적 다양성 11. 자원 효율성 12. 환경적 청정

자료: UNWTO(2013),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전략

- 명확한 방향 설정: 분명한 전략적 방향 및 한계를 설정하고 재원을 마련함.
국가·광역·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측정가능한 결과를 수집함
- 매력성: 중요성(의미), 독특성, 매력적인 문화 및 자연유산 집합, 여가 편의
시설, 관광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춤
-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변화의 기회, 위험,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
에서 환경적 계획을 수립함
- 측정가능한(적정한) 개발: 관광 규모와 발전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에 양적 목표와 지표를 설정함
- 전략 확정: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전략을 마련함. 의사결정에 있어 참여
과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마련하고 관련 당국, 주민,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형성함
- 공정한 편익 분배: 세계 유산지역 주민을 인정하고 편익을 공정하게 분배함
 - 세계유산으로 인한 생활양식 훼손에 대한 보상
 - 관련 지자체간 수입의 균형있는 배분
 - 당일 관광객도 문화유산 관리에 기여해야 하므로 숙박 관광객과 같은 수준의 비용
(예: 관광세) 부과
 - 관광세 도입은 투명해야 하며 세금은 지역 단위에서 유산 관리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유산 지역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효율적인 홍보: 주요 협력기관을 설정하고 SNS, IT 등 효율성과 효과성 높은
수단을 사용하여 홍보함

2) 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

가. 유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 및 관리 수단¹³⁾

- 국제·국가·광역·기초 단위의 규제의 틀
- 계획 수립 및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 과정
- 유산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

13) 「Ministry of Culture of Montenegro(2013), Enhancement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 환경적 계획 및 관리(EPM)
- 세계유산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수단
- 수용력
- 문화적 영향 평가(CIA, HIA)
- 허용가능한 변화의 한계(LAC) 계획 시스템
- 관광부문에 대한 ICT 적용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리 수단으로 GIS

나. 자연 및 문화적 환경의 지속가능성

- [표 7-9]의 지속가능한 관광 대영역 중 마지막 영역인 ‘자연 및 문화적 환경의 지속가능성’의 하위 영역 중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이 높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UNWTO, 2013)

■ 5.1 자연과 문화유산관련 관광

- Issue 1: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 행동
- Issue 2: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 행동
 - 국가의 관광 정책, 전략, 마스터 플랜 등에 문화유산과 관련한 관광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가?
 - 문화에 대한 정책이 관광과 관련한 이슈와 기회를 포함하고 있는가?
 - 국가의 문화유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잘 보호되고 보전되고 있는가?
 - 문화유산 지역에서의 관광이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 국가적으로 문화유산과 관련한 관광 상품 및 제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 전반적으로 국가의 문화유산이 관광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관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가?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5.2 기후 변화에 집중

- Issue 1: 관광분야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충분한 관심

■ 5.3 관광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속가능성 강화

- Issue 1: 관광개발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정도
 - 자원 제약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이슈가 관광계획 수립시 고려되고 있는가?
 - 일반적으로 관광개발 및 계획의 영향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가?
 - 각각의 관광개발이 효과적인 토지 이용 계획 과정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환경 및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가 관광개발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경제적 수단이 이용되고 있는가?
 - 개발사업자들에게 그들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언이 제공되고 있는가?
- Issue 2: 관광 운영이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
 - 관광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규제가 존재하며 실행되고 있는가?
 - 일반적으로 관광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가?
 - 관광 운영자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정보에 있어 지속가능성 이슈를 고려하는가?
 - 관광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이 이용되는가?
 - 관광사업이 지속가능한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증체계가 있는가?
 - 관광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수용력 설정 및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 국가에서 관광객들이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시행하였는가?

■ 5.4 관광의 영향 측정 및 모니터링

- Issue 1: 환경적 상황 및 관광 영향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정도
 - 관광을 위한 지속가능성 지표와 그 영향이 설정되어 있는가?
 -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환경과 문화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얼마나 자주 관광 개발 및 운영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각 관광 사업자들이 그들 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하는가?
- 지표와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한가?

3) 유네스코의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¹⁴⁾

가. 비전

- 세계유산과 관광 이해관계자들은 인류 공동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적절한 관광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도 공유함

나. 미션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 증진, 수용력,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있는 참여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리와 발전을 촉진함
- 이와 함께 관광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보존에 기여함

다.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

- 지속가능한 관광을 포함하여 세계유산협약의 해설과 실행을 이행함
- 국가, 광역 및 기초 지방 정부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그들의 문화와 자연 유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게 하는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설정함
-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식하고 지원하며 관광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용력을 설정함
- 지역 사회는 자긍심을 갖고 세계유산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으며, 또한 세계유산에서의 관광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음
- 관광부문은 세계유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유산의 보존에 참여함. 세계유산에 대한 관광부문의 활동은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지원해야 함
- 방문객들은 세계유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하여야 함

14)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팸플렛의 주요 내용임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라. 프로그램의 5대 목표

■ 목표 A: 세계유산협약의 구조 속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원칙 통합

-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 협약 구조 속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원칙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도록 노력함
- 증가하는 세계유산 수가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모니터링, 보고 등을 위하여 세계유산 협약 구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표 7-4] 목표 A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활동	사업	성과 지표
A.1 목적지 접근 방식을 통해 관광 기준선 분석을 위한 등재 과정 요구사항 및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요소 개발	• 관광 영향과 관리를 고려한 템플릿 개발 • 적절한 경로를 통해 템플릿 초안 확산	• 기준선 분석 완료 • 등재 과정을 위한 템플릿 개발 • 주정부에 템플릿 확산
A.2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지표를 운영 가이드라인에 통합하고, 이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 개발	• 운영 가이드라인에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지표를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 및 개발 (잠정적으로 부록으로 반영) • 운영 가이드라인 실행을 지원하는 자료 및 방법 개발, 적절한 경로를 통한 확산	• 통합 프레임워크 완료 및 관리 지표 설정 • 운영 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한 지원 자료 및 방법 개발 및 확산
A.3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지표를 정기보고, 보전상태 보고, 반응 모니터링에 포함하고,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기회와 도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략적 분석 실시	• 정기보고, 보전상태 보고, 반응 모니터링에 포함하는 관리 지표 설정 및 평가 • 결과에 대한 전략적 분석 방법 개발 및 적절한 경로를 통한 확산 • 데이터와 결과 수집, 분석, 공유	• 모든 세계유산 범주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광 지표 설정 및 평가 • 기회와 위협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전략적 분석 방법을 설정 및 적절한 경로를 통한 확산 • 데이터와 결과 수집, 분석, 공유

자료: UNESCO(2013),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 목표 B: 문화 및 자연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인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원하는 옹호 정책, 전략, 프레임워크, 수단을 활용한 환경 강화

- 지속가능한 관광이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세계유산 보전과 관련한 정책 개발에 있어 관련 국제기관과 기구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함

[표 7-5] 목표 B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활동	사업	성과 지표
B.1 성공적인 정책·규정·제도적 정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생산 및 우수한 연구 지원,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한 환경, 정책 개발, 의사 결정을 강화하는 전략 개발 지원(국가 및 목적지 수준 모두에서)	• 명확한 연구 요구 확인 • 연구 제안서 작성 및 실행 파트너에 배포 • 실행 파트너는 연구 수행 • 적절한 경로를 통해 연구 성과 배포	• 다수의 연구 제안서 배포 • 관련 연구 수행 및 활용가능한 결과 생산
B.2 세계유산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수단의 확산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관 및 기구(예: UN 관련 기구 등)와 협력	• 관련 국제기관 및 기구간 계약 및 협력관계 설정 • 세계유산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책, 프레임워크, 수단 개발을 촉진하거나 옹호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포럼 활용	• 정책 개발 및 관련 정책 확산에 있어 관련 국제기관 및 기구간 협력
B.3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수립 및 관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 목적지에 대한 관광의 영향과 수용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위한 방법론, 실행 방안, 기술 확인 및 확산	• 연구 필요성을 설정하고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실행 파트너에 배포 • 실행 파트너는 방법론, 실행 방안, 기술을 확인하고 테스트 • ‘세계유산의 OUV에 대한 관광 및 공공 활용 활동과 개발의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 실행 파트너는 연구 수행 • 적절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 및 연구 성과 배포	• 다수의 연구 제안서 배포 • 방법론, 실행 방안, 기술에 대한 확인 및 확산 • 매뉴얼 개발 및 확산 • 다수의 관련 연구활동 수행 및 활용가능한 결과 생산

자료: UNESCO(2013),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목표 C: 목적지 접근법을 적용하여 유산을 보전하며 지역사회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계획 수립, 개발, 관리(경영)와 관련한 폭 넓은 이해관계자간 협력 촉진

- 세계유산 및 주변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계획수립, 개발, 관리(경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대시킴
- 세계유산 및 주변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계획수립, 개발, 관리(경영)에 있어 목적지 관리접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폭넓은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형성함

[표 7-6] 목표 C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활동	사업	성과 지표
C.1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계획 및 기타 적절한 계획의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 개발, 폭 넓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편익을 주는 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연구 수행 및 관련 자원 확인 • 적절한 경로를 확인하고 확산 전략 수립 • 선택된 유산을 확인하고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 실행 지원 • 추가실험 가능한 우수한 실험 및 사례를 확인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확산	•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 • 선택된 유산 지원 • 추가실험 가능한 우수한 실험 및 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C.2 성과지표에 기반한 자체 평가 수단을 개발하고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광 관리를 진흥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발	• 보상방안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자체 평가 수단 홍보 •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결과와 우수 실험에 대해 공유 • 자체평가 모델을 확인하고 정기 보고를 보완하는 자체 평가 수단 개발 적용	• 자체평가 수단 개발 및 보상 체계 마련 • 수집된 자료, 결과, 우수 실험에 대한 공유
C.3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수립, 개발,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와 편익 등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및 양질의 연구 지원	• 관련 데이터와 지표 확인 •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실행 파트너에 배포 • 실행 파트너는 연구 수행 • 적절한 경로를 통해 연구 성과 배포	• 관련된 데이터와 지표를 확인하고 연구 제안서를 배포 •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활용가능한 결과 생산
C.4 네트워크 기회 및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정보 공유, 경험 및 실험 성과 교환 촉진	• 정보 공유, 수용력 설정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기회 및 보상 체계 개발 • 핵심적인 관광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수용력 설정 회의와 행사 지원	• 정보 공유, 수용력 설정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기회와 보상 체계 마련

자료: UNESCO(2013),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 목표 D: 지역사회와 상황과 요구에 기초하고 있어 관광을 효율적이고 책임질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용력 및 수단을 세계유산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 세계유산 및 주변에 대한 관광 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사용가능하여야 하고,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이 세계유산 및 주변에 대한 관광 관리에 참여하여야 함
- 세계유산 이해관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이 관광을 효율적이고 책임질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함

[표 7-7] 목표 D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활동	사업	성과 지표
D.1 세계유산 및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간 수용력 개발,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요구 확인, 세계유산 수용력 설정 전략 등 현재 존재하는 내용들과 통합하여 접근방법 개발	• 수용력 개발, 훈련 및 교육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 실시 • 세계유산 수용력 설정 전략에 맞는 시범 사업 개발	• 수용력 설정, 훈련, 교육 요구를 확인하고 시범 사업 발굴
D.2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리에 있어 지역의 상황과 요구가 반영되도록 이해관계자들(특히 유산 관리자 및 조정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 개발	• 현재 존재하는 수단, 훌륭한 실험을 확인하고 요구 평가 실시 • 지역의 요구에 기초하여 수단과 전략 개발 • 적절한 경로를 통해 수단과 전략 확산 • 추가실험 가능한 우수한 실험 및 사례를 확인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확산	• 수단과 전략 확산 • 수단과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용
D.3 이해관계자간 정보 공유, 연계, 네트워킹, 협력을 지원하고,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위하여 훈련, 교육, 연구기관(세계유산 범주2 센터 포함)간 연계 형성	• 정보 공유, 네트워킹, 수용력 설정, 협력을 위한 구조 마련 • 정보 공유 체계에 이해관계자 포함	• 관계자들과 함께 구조를 만들고 운영

자료: UNESCO(2013),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목표 E: 이해관계자간 책임있는 행동을 고취시키고 세계유산의 보호와 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진흥할 수 있는 양질의 관광상품 및 서비스 촉진

- 세계유산의 가치와 세계유산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이해, 평가를 증진시킴
- 책임있는 행동을 고취시키는 양질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증대시킴

[표 7-8] 목표 E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활동	사업	성과 지표
E.1 이해관계자들이 관광 경영에 있어 OUV 및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 이해, 평가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법을 확인하고 공유·지원	• OUV 이해, 평가, 적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수단 개발 • 적절한 경로를 통해 수단 확산	•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및 수단 확산
E.2 이해관계자(특히 관광산업 및 방문객)들이 유산 보전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지역 사회에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취하기 위한 보상 체계 마련	• 현재 존재하는 수단과 우수한 실험을 확인하고 요구 평가 실시 • 적절한 보상체계(예: 정책, 가시성, 인지, 재정 보상, 인증, 시상, 기술적 수단, 앱 등) 개발 • 보상체계 운영	• 보상체계 확인 및 개발 • 보상체계 운영
E.3 세계유산과 목적지 전반에 대한 방문객 경험에 대해 높은 품질과 낮은 영향을 제공하는 진정성 있고, 지속가능하며 책임질 수 있는 관광 확인 및 촉진(홍보)	• 관광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지속가능성, 책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기준, 표준) 개발 및 적용 • 적절한 경로를 통해 척도(기준, 표준) 확산 • 선택된 유산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추가실험 가능한 우수한 실험 및 사례를 확인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확산 • 품질이 우수하고 지속가능하며 책임질 수 있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촉진(홍보)	• 척도(기준, 표준) 개발, 적용 및 확산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추가실험 가능한 우수한 실험 및 사례 확인 후 확산 • 상품 및 서비스 촉진 (홍보)
E.4 방문, 영향, 트렌드 등에 대한 데이터 생산 및 우수한 분석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우수한 실험 및 연구에 대한 활용 가능성 제고	• 영향과 트렌드관련 지표 개발 및 적용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데이터 비교 및 데이터베이스 공동 분석 • 결과 및 우수한 실험 공유	• 지표 개발 및 적용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결과 및 우수한 실험 공유

자료: UNESCO(2013),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ction Plan 2013-2015

2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관광객 관리계획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증대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유적의 보존과 주변 자연의 훼손을 예방하고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교육적·문화적 혜택 제공을 위하여 유적지 관광객 관리를 위한 유적지 관광 방안을 제안함

1. 관광객 관람 인원수 제한 관리 프로그램

-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분포하는 유적과 유구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훼손요인은 크게 자연적·환경적 훼손요인과 관람활동요인 등 2가지로 구성된다. 본 계획에서는 관람활동요인으로 인한 훼손요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함

■ 유적지별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수

- 앞에서 살펴본 지구별 가용 공급면적 추정결과와 원단위(1인당30m²)를 적용하여 유적지별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추정 결과 공산성의 경우 2,03명, 송산리고분군 1,195명,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3,030명, 정림사지 988명,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8,430명, 왕궁리유적 3,293명 미륵사지 3,420명으로 추정할수 있음
- 이에 따라 유적지별 동시 관람 인원을 모니터링 하여 관광압력으로 인한 유적지 훼손의 사전적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함

[표 7-9] 지구별 가용 공급면적 추정

(단위: m²)

구 분		유산구역 (a)	서비스 불가능 제외 면적 (b)	서비스 가능 추가 면적 (c)	공급 면적 (a - b + c)	동시 관람 가능 관광객 수
공주	공산성	203,100	142,170	-	60,930	2,031
	송산리고분군	16,300	3,260	22,820	35,860	1,195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606,000	515,100	-	90,900	3,030
	정림사지	15,200	2,280	16,720	29,640	988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266,200	13,310	-	252,890	8,430
익산	왕궁리유적	123,500	49,400	24,700	98,800	3,293
	미륵사지	120,700	30,175	12,070	102,595	3,420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즉각적인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인 관리 체계로 단기적 시행방안과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함
- 단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 즉각적인 관람객 수 모니터링을 위하여 수용력 분석결과에 따라 관광객 압력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에 유료관람권 환불 시스템 또는 자동화 입·퇴장 계측 출입구 설치를 통해 현재 유적지 내부에 입장해 있는 관람객 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진행
 - 개찰원 및 입장관리원 : 시설물 내부 관람객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개찰원 및 입장관리원의 직접적인 계측을 통해 유적지 내부 관람객 수를 산정
 - 환불시스템 : 2015년 현재 어른기준 부소산성 2,000원, 정림사지 1,5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음. 입장시 관람료를 일정금액 징수하고 유적지 내부 스탬프 인증 및 통합안내 어플을 통해 유적지 퇴장시 일정금액을 다시 환불해주는 시스템을 도입
 - 관람객 자동계측 : 유적지 진출입부에 관람객 수를 계측하는 장치설치를 통해 내부 관람객들의 수를 자동으로 계측

[그림 7-2] 사물인터넷 활용 관람객 및 관광객 압력 관리 체계(안)



- 장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기술의 발달과 이를 이용한 각종 콘텐츠 및 시스템의 발달로 역사·문화 관람에서 스마트폰 어플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 사전예약 및 안내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유적지의 현재 상황(잔여 주차장 수, 대기시간, 주변 역사·문화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람 쾌적도 확보 및 관광객 분산 유도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문화유산 관광 안내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관광객 관리 프로그램을 동일콘텐츠로 묶어 위치인식 및 첨단ICT 안내서비스를 동시 제공

■ 예약제 시행을 통한 사전적 관광객 수요관리

- 수요 예측 결과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는 관광객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산리고분군과 같은 서비스가능면적이 작은 유적지에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유적지의 관리 및 관광객들의 쾌적한 관람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약제 시행을 통한 관람객의 조정 및 관리가 필요함
- 제주도의 거문오름의 경우 사전탐방예약을 통해 유네스코자연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있음

- 탐방 출발 시간 : 09:00~13:00 일 5회(매 정시)
- 1일 탐방인원 : 450인
- 예약 방법 : 전화예약 및 인터넷 예약

일정선택(Choose Date) 2015-08-20			
시간 Hours	예약현황 Reservation Status		
	예약가능여부 Check Reservation Availability	잔여인원 Available Reservations	신청하기 Apply
09:00	예약가능 Reservation Available	19명	신청하기 Apply
09:30	예약불가 Reservations Unavailable	0명	-
10:00	예약가능 Reservation Available	36명	신청하기 Apply
10:30	예약가능 Reservation Available	36명	신청하기 Apply
11:00	예약가능 Reservation Available	40명	신청하기 Apply
11:30	예약가능 Reservation Available	46명	신청하기 Apply
12:00	예약가능 Reservation Available	46명	신청하기 Apply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2. 관광객 관람 관리·제한 프로그램

■ 관람루트 제안을 통한 동선 강제(일방통행)¹⁵⁾

- 유적지 관람시 관람객들간의 방향성 없는 관람으로 인해 동선 충돌 및 일부 유적·유구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 관람객들의 동선 충돌로 인한 보행로 및 산책로의 훼손을 방지하고 관람 대기열의 방향성 설정을 통해 관람객들의 체제시간 단축 도모
- 지구별 주요 유적을 설정하여 관람객들에게 코스에 대한 설명과 관람 동선을 제시함
- 공산성 : 매표소 → 금서루 → 추정왕궁지 → 진남루 → 임류각지 → 영동루 → 토성 → 연지 및 만하루 → 공북루(성안마을) → 공산정(전망대) → 금서루 → 매표소

공산성 유적 코스 설명

- 공주 공산성은 백제가 서울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웅진시기의 백제 왕궁으로 웅진성이라 불리었다. 공산은 남쪽으로 공주시가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금강의 물줄기와 접하고 성곽의 외곽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지형적인 천연요새가 형성되어 있다.
- 공산성 안에는 추정왕궁지를 비롯하여, 임류각지, 토성, 연지 및 만하루, 성안마을 등 백제시대의 다양한 유적들이 남아있어, 이 코스를 통해 동아시아의 교류, 성의 공간배치, 성곽의 축성기술, 백제만의 독특한 성의 입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추정왕궁지 등 공산성 내에 분포하는 다수의 벽주 건물지를 통해 백제의 독특한 건축기술의 하나인 화려한 의장건물의 초기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판축기법으로 쌓은 성벽인 공산성 토성의 모습도 함께 관찰할 수 있다.
- 성과 성벽을 쌓는 판축기술 등은 동아시아에서 중국-백제-일본을 잇는 교류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데, 백제가 두 나라의 교량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의 입지 면에서 강변에 위치한 산성이 왕궁을 방어하는 형태는 평지성과 산성의 결합이라는 백제의 전통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다.

[그림 7-3] 공주 공산성 유적 코스



15)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홈페이지(<http://www.baekje-heritage.or.kr>)- 각 유적별 설명자료 인용 및 가공

- 송산리 고분군 : 주차장 → 웅진백제문화역사관 → 매표소 → 무령왕릉전시관 → 송산리고분군 → 송산리 제1~4호분 → 송산리 방단계단형 적석유구 → 국립공주박물관 → 주차장
- 송산리 고분군의 경우,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물리적 관광압력이 가장 우려되는 유적지로 루트설정시 인근 국립공주박물관, 한옥마을, 문화역사관까지 동선을 넓게 설정하여 관광객들의 체제시간의 조절이 필요함

송산리 고분군 유적 코스 설명

- 송산리고분군은 백제왕실(웅진시대)의 능묘군으로 원래 무덤이 17기였으나 현재는 1~6호분과 무령왕릉, 7기만 복원되어 있다.
- 무령왕릉은 5~7세기 제왕의 능묘의 유일한 구조를 알 수 있는 증거로, 무령왕릉의 묘지석의 장례기록과 정지산 빈전 유적은 삼년상제와 빈전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5~7세기 유물과 유적이다. 또한 공주 송산리고분군은 능산리고분군까지 이어져 백제 횡혈식석실분의 전통을 보여준다.
- 이 코스에서는 동아시아 능묘의 교류, 독특한 백제만의 고분형태, 그리고 능묘의 입지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송산리고분군의 능묘를 통해서 무덤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무령왕릉은 동아시아 왕릉 중 무덤에 묻혀있는 피장자가 정확한 유일한 사례이다.
- 또한 송산리고분군은 도성의 외부에 입지하는 경외장묘문화를 통해 도성과 능묘구역의 공간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능묘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경외장묘 문화 등을 통해 중국-백제-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장묘문화의 교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 송산리고분군 6호분에서 발견된 벽화고분은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우아한 백제 예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게다가 능선에 위치하는 능묘의 입지는 풍수사상이 가미된 산을 등지고 평원을 바라보는 입지적 독특성을 갖는데, 도시의 내부 평지에 입지한 이전 시기 한반도의 왕릉들과는 달리 새로운 계획 하에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7-4] 송산리 고분군 유적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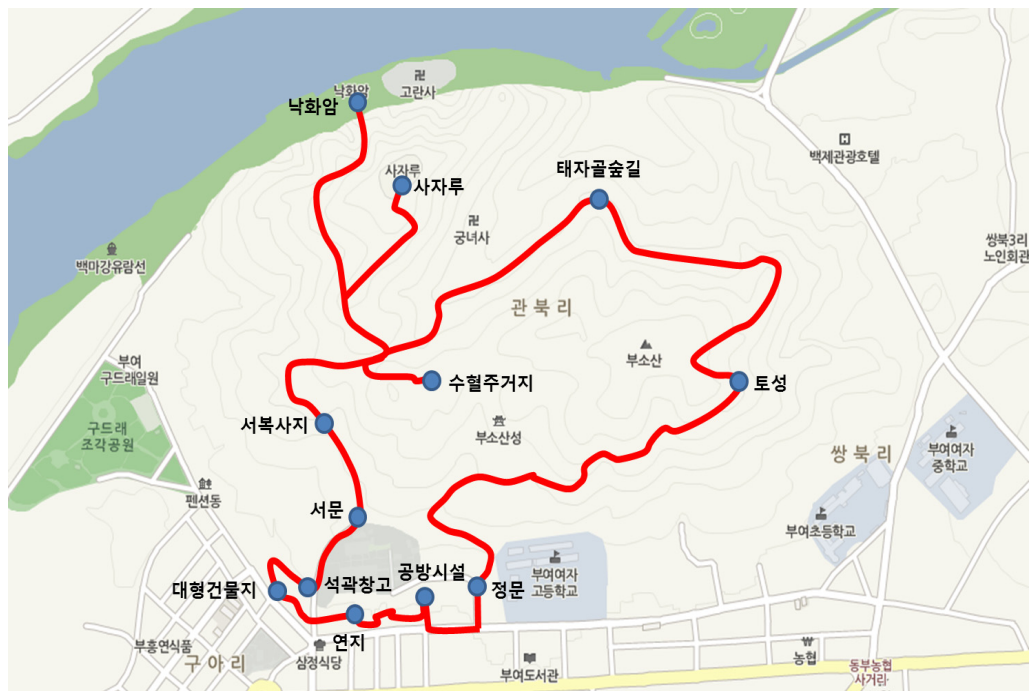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공방시설 → 연지 → 대형건물지 → 석곽창고 → 서문 → 서복사지 → 낙화암 → 사자루 → 수혈거주지 → 태자골숲길 → 토성 → 정문(매표소)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연접유적지로 두 개 유적지를 하나의 동선으로 구성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유적 코스 설명

-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은 백제 사비시기 왕궁의 위치로 부여의 현 시가지 북편에 위치한다.
- 부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부소산 정상에 축조되었으며, 서쪽으로는 백마강을 끼고 있다. 계곡을 품 으면서 외곽을 두르는 백제시대 성벽과 더불어 통일신라와 조선시대 성벽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 관북리유적에는 왕궁을 대표하는 대형건물지를 비롯하여 공방시설, 연지, 석곽창고, 와적기단 등이 남 아 있으며, 부소산성은 백제시대 토성을 비롯하여 낙화암, 수혈거주지, 태자골숲길 등이 남아 있다. 이 유적 코스에서는 동아시아의 교류, 왕궁 및 성의 공간배치, 성곽의 축성기술, 기단 건축기술, 백제 만의 성 입지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 관북리 유적을 중심으로 부소산성, 정림사지 및 궁남지 등을 통해 백제 사비시대 도성 내의 도시계획 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도성의 내부 공간배치의 관계 중에서 왕궁터의 입지와 왕궁터를 구성하는 시설물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건물에 적용된 기단과 초석 등의 하부구조 및 기와는 백제 목조건축물의 건축기술을 엿볼 수 있다. 부소산성도 도성 내 공간배치의 한 요소로 파악되는데, 후원과 비상시 배후산성의 역할을 담당 하였다.
- 부소산성은 판축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도성의 공간배치, 토목건축기술, 판축성벽은 중국-백 제-일본 등 동아시아 교류의 한 증거물이 된다. 부소산성은 공산성과 마찬가지로 금강 변에 위치하면 서 백제의 도성 입지 형태를 알 수 있는 독특한 백제 유산이다.

[그림 7-5]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유적 코스



- 정림사지 : 매표소 → 연지 → 정림사지 5층석탑 → 서편건물지 → 강당지 → 북승방지 → 정림사지 박물관 → 매표소

정림사지 유적 코스 설명

- 이 유적코스에서는 사찰의 가람배치, 백제만의 독특한 의장기술 및 외적기단, 석탑의 건축기술, 도성 공간배치 등을 엿볼 수 있다.
- 정림사지는 사찰내 1탑 1금당 그리고 강당으로 이루어진 사찰구조로 이는 동아시아 사찰문화의 독보적인 모습이며 5층석탑은 백제 석탑 건축기술의 증거로 백제인들은 석탑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건축하였다.
- 정림사지는 왕궁지를 중심으로 남북대로 상의 동측에 위치하며, 궁남지와 더불어 도성내 공간배치의 주요시설 중 하나로 백제 사회에 미쳤던 불교의 막대한 영향력을 증언한다. 또한 사찰 내 1탑 1금당 가람배치는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뚜렷한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정림사지 석탑에 적용한 석탑 건축 기술(비례의 완벽성)은 동아시아에서 백제의 독창적 기술을 보여준다.

[그림 7-6] 부여 정림사지 유적 코스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능산리 고분군(나성) : 매표소 → 백제왕릉원 → 의자대왕단비 → 능산리동하층(모형) → 능산리전시관 → 능사 → 나성 → 매표소

능산리 고분군 유적 코스 설명

- 능산리 왕릉들은 웅진시대와 사비시대를 거치며 완성된 백제 석실분의 정점을 보여주며, 능산리고분군 1호분에서 발견된 벽화고분은 우아한 백제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사례이다.
- 부여 능산리고분군과 나성에는 백제왕릉원을 비롯한 의자대왕단비, 능사, 나성 등의 유적이 남아있으며, 이 유적코스에서는 동아시아의 교류, 도성과 능묘 및 외곽성의 공간배치, 성곽의 축성기술, 백제만의 독특한 고분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 능산리고분군은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마찬가지로 왕실무덤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건축기술의 산물로 황혈식석실분의 천장형태의 발전단계인 볼트형→육각형→사각형의 변화를 모두 볼 수 있으며, 외곽성인 나성 밖에 능묘를 배치하는 경외장묘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나성은 도성의 외곽성으로 평지와 산지에 각각 다른 축성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성벽판축기술의 내부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이다.
- 능산리 왕릉들은 동시기 중국에서 유행하던 능묘의 구조와 기술 및 벽화 등을 백제에서 수용하고 발전시켰음을 보여주는데, 백제의 정결한 황혈식 석실분은 동아시아 석실분의 완성형으로 일본 등 주변 국가 석실분의 모범이 되었으며, 중국 남조의 문화인 사신도 고분벽화, 고구려 사신도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능묘 입지의 풍수사상은 백제 묘지 선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금강을 이용한 서쪽과 남쪽의 자연방어와 북쪽과 동쪽의 성곽방어는 자연지형을 이용하는 백제의 특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나성의 평지와 산지를 이용하는 외곽성의 구축은 백제 유일의 특성이다.

[그림 7-7] 부여 능산리 고분군(나성) 유적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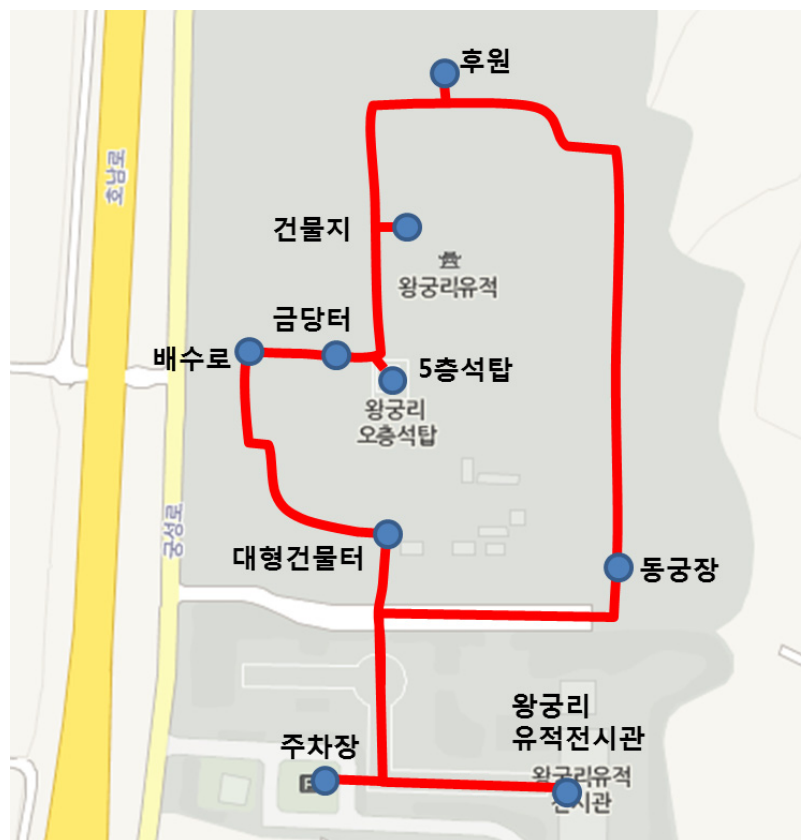


- 왕궁리 유적 : 주차장 → 동궁장 → 후원 → 건물지 → 왕궁리 오층석탑 → 금당터 → 배수로 → 대형건물터 → 왕궁리유적 전시관 → 주차장

왕궁리 유적 코스 설명

- 왕궁리 유적 코스에서는 동아시아의 교류, 백제만의 독특한 의장기술 및 와적기단, 왕궁내 공간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익산 왕궁리유적은 백제의 별궁유적이며 전조후원형 구조로 5~7세기 동아시아 궁궐의 내부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며, 남북과 동서길이가 2:1인데 왕궁은 전체적으로 2:1 또는 1:1의 비례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왕궁의 남측에 중요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북쪽에 후원을 두는 구조는 전조 후원형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의 고대 왕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와적기단의 경우에는 건물의 기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으로 백제의 독특한 건축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위치한 공주, 부여, 익산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림 7-8] 익산 왕궁리 유적 코스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미륵사지 : 매표소 → 유물전시관 → 미륵사지 당간지주 → 서원석탑 → 북승방지 → 강당지 → 금당지 → 동원석탑 → 목탑지 → 회랑지 → 연못 → 매표소

미륵사지 유적 코스 설명

- 백제는 1탑 1금당의 사찰구조를 바탕으로 불교의 미륵신앙을 구현하기 위해 <3탑-3금당>이라는 독특한 사찰구조로 미륵사를 만들었는데, 고대 백제인들의 신념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미륵사지 내에는 미륵사지 석탑을 비롯하여 미륵사지 당간지주, 북승방지, 강당지, 목탑지, 회랑지, 연못 등의 유적이 남아있으며, 이 유적 코스에서는 동아시아의 교류, 사찰의 가람배치, 석탑의 건축기술, 백제만의 독특한 의장기술 등을 엿볼 수 있다.
- 익산 미륵사지는 동원, 서원, 중원 각각에 1탑 1금당배치라는 사찰의 기본 공간배치인 가람배치를 적용한 사찰로 1탑-1금당-강당으로 이루어진 사찰구조는 동아시아 사찰의 기본 형태로 불교 교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탑 1금당의 3원배치는 백제에서만 볼 수 있는 사찰 배치방식으로 백제의 독보적인 것이다. 또한 백제인들은 석탑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건축하였는데, 화재에 취약하고 내구성이 약한 목탑의 약점을 극복한 것으로 정제와 우아함의 상징인 미륵사지의 석탑은 백제 석조 건축기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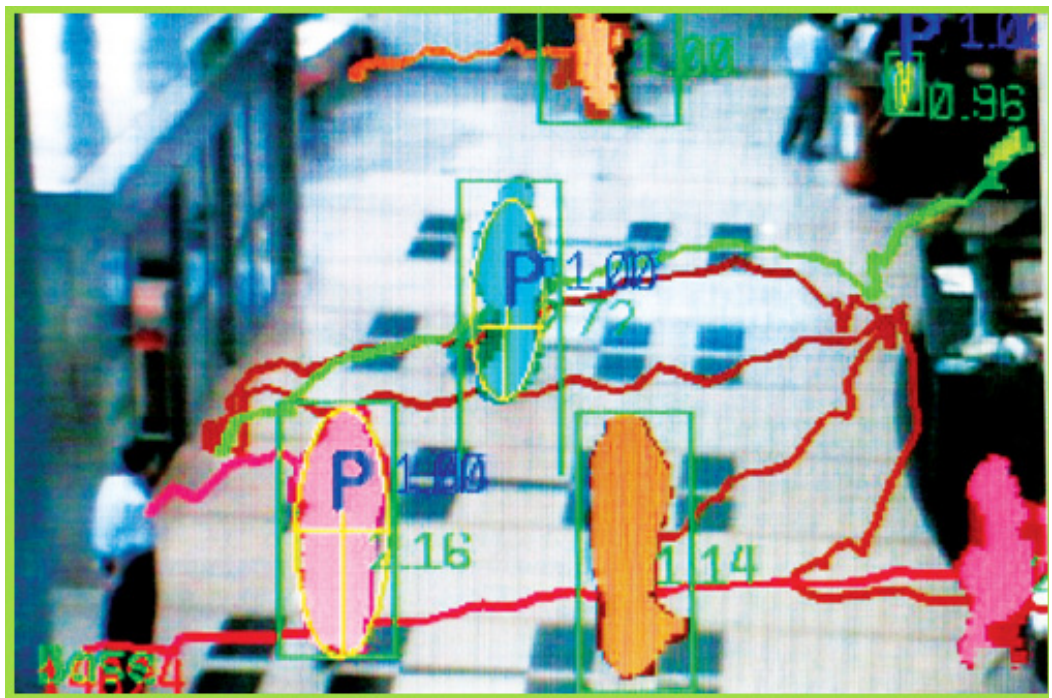
[그림 7-9] 익산 미륵사지 유적 코스



■ 무인 관람활동 감시 시스템

- 유적지 내 주요 관람동선이나 문화재, 유구 주변에 무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관람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을 감시하고 관광객들의 점적 집중으로 인한 문화유적의 훼손 예방
 - CCTV : 감시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유적지 내부 대표 유물 근처에 CCTV 설치를 통해 유물과 관람 관광객들의 분포를 확인
 - 사물인터넷(IOT) 감시 시스템 :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및 스마트 감시시스템을 관람객들의 이동동선을 감시하고 유물 인근으로 접근 시, 안내방송을 통해 접근 및 이동 경고 실시

[그림 7-10] 스마트 감시시스템



출처 : http://www.boannews.com/plan/plan_view.asp?idx=5142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3 지구별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각 지구별 현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별 관광객 관리 계획을 제시함

[표 7-10] 각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안)

구 분		세부 내용
공동 사항		· 유적지별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수 제한 ·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관광해설 기능 제공 ·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관람정보 제공 · 예약제 시행을 통한 사전적 관광객 수요 관리 · 관람루트 제안을 통한 관광객 이동 동선 강제(일방통행) · 무인 관람활동 감시시스템
공주	공산성	· 유산 해설 기능 강화: 안내 시설 보수, 해설 인력 확충 등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 안전조치 강화: 산성 내부 및 성곽주변 낭떠러지 구간 등 안전시설 보완, 안전 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등 ·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송산리고분군과 셔틀버스 연계방안 검토 ·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 제공 · 장애인 관람 조건 개선: 리프트 시설, 전동 휠체어 배치
	송산리고분군	· 주변 전시관 기능 및 역할 부여 :웅진백제역사관, 모형전시관 안내·교육·서비스·콘텐츠 강화를 통한 공주시 관광중심지로 조성 · 유적지구 통합 관광 코스 제안: 국립공주 박물관, 웅진 백제역사관, 모형전시관 까지 공간범위 확대하여 관광코스 제공 · 자원봉사자 및 사회적 기업 참여를 통한 콘텐츠 확보(수문병, 백제병사) · 스마트 폰 등 IT기기를 활용한 해설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공공주차장 확보 및 인근 유적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콘텐츠 확보 ·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유적지 입장 대기 시간 안내 및 수용가능 관광객 모니터링 우선시행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단체 관광객 집중 시 대응방안 수립(50인 이상 단체관광 1일이전 예약) · 부여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주차장 확보 및 불법주차 관리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내 토성 개방 구간 훼손 방지 방안 마련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내 샛길 통행 제한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 마련
	정림사지	· 정림사지 현장 해설 및 안내 강화 ·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부소산성과 셔틀버스 연계방안 검토 · 관람객 자동계측 시설 및 주차장 잔여 공간 안내 시설 설치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 능산리고분군의 유산해설 기능 대폭 강화 · 능산리고분군 진입 안전조치 강화 · 안내 책자에 관광코스 제시, 효율적 관광동선 확보 및 관광객 안정성 확보
익산	왕궁리유적	· 안내표지판 중심의 해설 서비스를 인적 해설 서비스로 전환 · 왕궁리 5층 석탑 보호 강화를 위한 펜스 설치(필요시) ·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매점 등) ·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 유적전시관 관광압력 대응 체험콘텐츠 확보
	미륵사지	· 가상시뮬레이션 시스템등을 통한 시각적 전달 콘텐츠 구축 · 보수과정 관광상품으로 개발, 체험프로그램 제공 · 내부 탐방로 정비 및 방문객 동선 정비 ·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이움을 통한 소통가능한 콘텐츠 개발 · 내부 공간 나무식재 또는 외부 숲길데크 조성 · 동선 제시를 통한 관람 방향 제시

1. 공주시구

가) 공산성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공산성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공산성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공산성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성곽, 추정 왕궁지 및 건물터 등인데 지상 유물이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산성 내 주요 이동로(폭 3~4m) 및 성곽 정상부(폭 1m 내외)는 대부분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인한 답압 상승 및 훼손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관광객의 주요 관광행동은 공산성 내부의 이동로나 성곽을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7-11] 공산성 현황



■ 관광객 관리계획

- 공산성은 관광객 수 관리 보다는 관광객들에게 공산성이 보유하고 있는 백제 역사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관광객들의 방문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우선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안내 시설을 보수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산성에 대한 유산해설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주차장 부근의 공주시 관광 안내소가 위치해 있고, 공산성 내부에는 종합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 집 등이 있으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 공산성 내부에 공산성 백제역사유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예약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해설 기능제공 필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 사업단에서 추진중에 있음)

[그림 7-12] 공산성 안내 시설



[공주시 관광 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 집]

[종합 안내소]

- 공산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공산성 백제 역사유적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대부분의 체험 프로그램이 특별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관광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 백제역사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 유산 해설사 등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Hi-Touch 百濟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한 참여 수요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표 7-11] 공산성 Hi-Touch 百濟 프로그램

구분	세부 내용
운영 기간	2014년 9월~11월
운영 일시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00~12:00, 13:00~15:00)
주요 프로그램	문화교육: 문화재 발굴조사와 공산성, 교과서 속 우리고장 문화재 발굴조사 체험: 백제 성벽 다지기, 백제 건물지 발굴하기, 백제 집 만들기, 탁본 등 지표조사 체험: 공산성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라, 기와에도 암수가 있다

[그림 7-13] 공산성 체험 프로그램



[백제 병영 체험]

[옥사 체험]

[백제문화 체험]



[발굴 조사 체험]

[활쏘기 체험]

[의상 체험]

- 성곽구간 중 상대적으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을 진행하는 대신 관광객 집중시 우회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훼손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산성 성곽 중 석축구간 일부와 토성구간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아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훼손 가능성이 있음
 - 관광객이 증가하여 이들 구간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관광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우회 루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훼손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그림 7-14] 공산성 내부 비포장 성곽 부분



[석축 성곽 비포장 구간]

[비포장 성곽 구간]

[토성 성곽로]

- 공산성 내부 및 성곽주변 낭떠러지 구간 등에 대한 안전시설, 경고 등의 조치를 보완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석축 성곽로 및 내부 이동로 주변 급경사면에 주의 안내 및 펜스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안전확보가 필요함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그림 7-15] 공산성 내부 급경사면



[내부 이동로 주변 급경사면]

[석축 성곽로]

[토성 성곽로]

- 공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만약 주차장 추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송산리고분군과의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주차장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공산성 주차장은 주변 통행도로와 인접해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대형 11대, 소형 23대, 장애인 2대)하여 주차장 혼잡시 주변 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
 - － 공산성 부근에 제2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송산리고분군을 먼저 방문한 후 공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을 도입함
-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 혼잡이 발생할 경우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예: 30분 코스, 60분 코스 등)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관광객 혼잡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공산성의 경우 진입로 경사가 가파르고 성곽능선으로 인한 장애인의 관람 조건이 좋지 않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관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진입로 입구~공산성 입구까지 리프트 시설설치나 전동 휠체어의 배치가 필요함

[그림 7-16] 공산성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산성 진입로]

[공산성 주차장]

나) 송산리고분군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송산리고분군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관광객이 30%이상 증가하면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백제역사유적 지구 중 관광수용력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송산리고분군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왕릉으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전혀 개방되고 있지 않으며 지상 유물도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주요 자원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송산리고분군 진입로 및 고분군 내 주요 이동로(폭 5m 내외)는 모두 석재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인한 답압 상승 및 훼손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백제시대를 설명하는 웅진백제역사관과 송산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에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분군 밀집지역에서는 이동로를 따라 선형의 관광 행태가 형성되므로 세계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관광객의 주요 관광행동은 공산성 내부의 이동로나 성곽을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분군 지역은 이동로 외에는 진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7-17] 송산리고분군 현황



[고분군 입구]



[고분군 내 이동로]



[고분군 내 이동로]



[고분군 내 이동로]



[폐쇄된 왕릉]



[출입 금지 경고문]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관광객 관리 방안

- 송산리고분군은 공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주차장, 진입로 등)가 양호하고 충분한 안내 및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공주시 백제역사유적 관광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우선 웅진백제역사관과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차별화된 안내 및 해설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함
 - － 웅진백제역사관은 웅진 백제시대 전반 및 공주시 관광에 대한 전시를,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은 송산리고분군 왕릉 및 출토 유물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 각 시설별로 핵심적인 콘텐츠를 보완하고 전시 및 해설 내용을 배타적으로 설정하여 관광객들이 각각의 전시 및 안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현재 각 시설에서 운영중인 인적 해설 서비스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전문 해설 인력 등을 양성·확충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시 고분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산구역을 설정하였는데,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면 국립공주 박물관, 웅진백제역사관, 송산리 고분군 매표소,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 등까지 공간 범위를 확대하여 물리적 관광객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 송산리 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앞서 제시한 유적지 관람 루트를 통한 관람객들의 이동동선 강제(일방통행)의 시행이 필요함
 - － 유적지 관람 루트(예) : 주차장 → 웅진백제문화역사관 → 매표소 → 무령왕릉전시관 → 송산리고분군 → 송산리 제1~4호분 → 송산리 방단계단형 적석유구 → 국립공주 박물관 → 주차장
- 지역 자원봉사자 및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통해 백제 수문병 재현 프로그램등을 기획,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또한 필요함
 - － 백제 캐릭터 및 콘텐츠는 관람객들의 이동동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관광객 관리차원과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자긍심 고취 등 여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이 필요함

[그림 7-18] 수원화성 자원봉사 사례



[그림 7-19] 웅진백제역사관 및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웅진백제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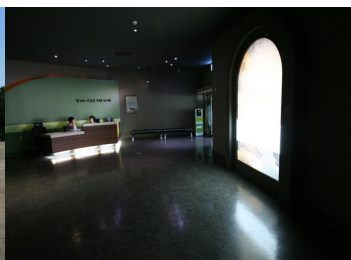
[웅진백제역사관]



[웅진백제역사관]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 스마트 폰 등 IT기기를 활용한 해설 서비스 등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서비스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한국관광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트렌드(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부응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또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해설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및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그림 7-20] 웅진백제역사관 및 송산리고분군 모형 전시관



[웅진백제역사관 안내]



[스마트가이드]



[무령왕릉 스토리텔링 서비스]

- 송산리고분군이 공주시 백제역사유적 관광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차장의 확보 및 주차장, 문화역사관·송산리 고분군 입구 광장에서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부여가 필요함
 - 성수기 예상되는 공산성의 주차장 혼잡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산성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편의 제고 프로그램을 검토함
 - 또한 주변 공주국립박물관, 곰나루 관광지 등 백제관련 관광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백제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관광객 관리 공통 추진 내용인 최신 기술(사물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관광객 관리방안을 송산리 고분군에 우선 추진하여 관람객들에게 입장대기시간 안내 및 주변 유적으로의 유도가 필요함

2. 부여지구

가)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70% 이상 증가하면 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의 물리적 관광 수용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부소산성, 관북리 지역의 백제 건물터 등인데 지상 유물이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부소산성 및 관북리 유적 지구 내 이동로(폭 2~3m)는 대부분 석판이나 벽돌로 포장되어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인한 답압 상승 및 훼손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7-21] 관북리 유적(상) 및 부소산성(하) 현황



- 부소산성 관광객의 주요 관광행동은 부소산성 내부 이동로를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관광객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낙화암, 고란사 등은 유산구역이 아니라 완충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세계유산에 대한 훼손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관북리 유적 지구 역시 이동로를 따라 선형으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장소의 관광객 집중 현상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관광객 관리 방안

- 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의 경우 관광객 수 관리 보다는 관광객들에게 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이 보유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훼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의 주차장 및 광장은 부여군 관광의 중심지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 집중 시 일시적인 수용력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비상시 압력 대응방안은 수립이 필요함
 - 50인 이상의 단체 관광은 반드시 최소 1일전 예약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입장 시간 및 체제 시간 조절을 통해 유적지의 단체관광으로 인한 관광압력 발생 대응 방안 필요
- 주변으로 부여군 관광지 및 맛집, 관광시설 등이 집적화 되어 있어 향후 관광객 증대 시, 유적지 인근 가로들에서 주차난 및 불법주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인 주차장 설치 및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함
- 우선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안내 시설을 보수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에 대한 유산해설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차장 부근의 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가 위치해 있고, 부소산성 내부에는 문화유산해설사의 집 등이 있는데, 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설 및 인력을 수행하나 부소산성 내 시설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부소산성 내부에 부소산성 백제역사유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예약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또한 현재 해설 및 안내와 관련한 시설 및 인력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관북리 유적에 대해서도 안내판 이외의 효과적인 해설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는 부여군 백제역사유적 관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및 루트 등에 대한 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7-22] 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 및 부소산성 안내 시설



[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



[부여군 종합 관광안내소]



[부소산성 매표소]



[부소산성 수혈건물지 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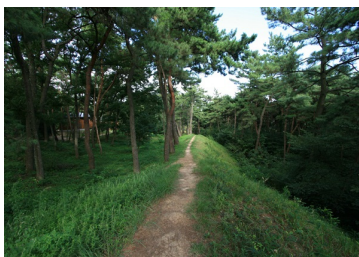
[부소산성 문화관광해설사 집]



[부소산성 문화관광해설사 집]

- 부소산성 내 토성 개방을 확대할 경우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탐방 인원 증대 등 자원관리 방안과 함께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토성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문화유산해설사 동행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해설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림 7-23] 부소산성 내 토성 구간



- 부소산성 내 조성된 일부 샛길에 대한 통행을 단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객 증가로 인한 산책로 훼손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함
- 관광객들의 이동이 많은 샛길의 경우 토양이 벗겨지고 나무 뿌리가 노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광객들이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도 예방하여야 함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그림 7-24] 부소산성 내 샛길



- 향후 부소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혼잡이 발생할 경우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예: 60분 코스, 90분 코스 등)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관광객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정림사지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정림사지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정림사지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정림사지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5층 석탑과 정림사 터 등인데 펜스 설치로 인해 5층 석탑에 대한 관광객의 직접적인 접촉 등은 불가능하며, 석탑 외에 지상 유물은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주요 자원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정림사지는 5층 석탑을 중심으로 개방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관광객이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정림사지 입구에서 관찰이 가능함. 이 경우 정림사지 박물관 등 대안 시설을 먼저 관람하는 등 관광활동을 조정하여 관광객 스스로 혼잡상황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임
 - 혼잡에 대한 대응적 행동으로 이용회피(displacement)가 있음. 이용회피는 탐방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탐방객들은 불만족을 느끼며,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활동 유형을 변경하거나 저밀도 탐방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임(국립공원연구원, 2007)
 - 이용회피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에서 고밀도 지역에서 혼잡을 지각하게 되면 저밀도 지역으로 휴양행동을 회피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시 정림사지 지역만 유산구역으로 설정하였는데, 관광객들의 동선을 고려하면 진입로 및 정림사지 박물관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진입로 및 정림사지 박물관 지역은 유산구역과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들 면적까지를 포함한 물리적 관광수용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7-25] 정림사지 현황



[입구에서 바라본 정림사지]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 터 진입금지 안내판]



[정림사지 내 통행로]



[정림사지 내 데크]



[정림사지 입구 및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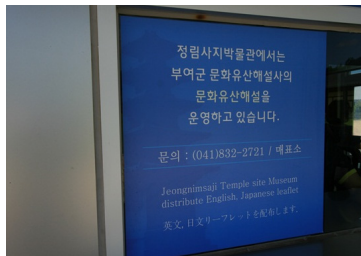
■ 관광객 관리 방안

- 정림사지에 대한 현장의 해설 및 안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확충 및 안내 시설 보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정림사지 현장에서의 안내는 유물에 설치된 안내판이 전부이며 문화유산해설사 등 인력 해설 서비스는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음
 - － 정림사지 박물관에서는 10명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설 인력은 1명 수준임
 - － 현장성 있는 정림사지에서 충분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그림 7-26] 정림사지 안내 서비스



[정림사지 안내판]



[문화유산해설 서비스]



[문화유산해설 서비스]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정림사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함.
만약 주차장 추가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부소산성 방문자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주차장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림사지 주차장은 현재에도 혼잡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며 주차장 출입문 외부 부분에도 상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림사지 부근에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부소산성을 먼저 방문한 후 정림사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함

[그림 7-27] 정림사지 주차장



[정림사지 주차장]

[정림사지 주차장 외부 주차 차량]

- 정림사지 입구에서 정림사지 및 정림사지 박물관 혼잡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림사지 매표소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정림사지 5층 석탑 지역과 정림사지 박물관의 관광객 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함(주차장 주차 가능 차량 수 표시 서비스와 유사함)
- 정림사지 5층 석탑 진출입 통로인 2곳에 센서를 설치하고 정림사지 박물관 입구에도 센서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각 지구의 대략적인 관광객 수를 집계할 수 있음

다)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능산리고분군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왕릉으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전혀 개방되고 있지 않으며 지상 유물도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주요 자원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능산리고분군 내 이동로(폭 약 3m)는 모두 석재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인한 답압 상승 및 훼손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능산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 능산리고분군 전시관에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분군 밀집지역에서는 이동로를 따라 선형의 관광행태가 형성되므로 세계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나성의 경우 선형을 이루는 유산자원으로 관광객들의 탐방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물리적 관광수용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7-28] 능산리고분군(상) 및 나성(하) 현황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관광객 관리 방안

- 우선 능산리고분군 전시관에서의 유산해설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능산리고분군 전시관에 유산해설 서비스 안내는 있으나 실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능산리고분군 전시관에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예약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그림 7-29] 능산리고분군 전시관



- 차량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능산리고분군 진입로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능산리고분군 주차장은 2차선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수기,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들이 증가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
 - － 따라서 차량들이 안전하게 능산리고분군 주차장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신호등 등 안전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능산리고분군과 나성의 연결로 인해 관람 동선이 불규칙하여 관광객들의 관람 효율성이 떨어짐. 두 유적지의 관광루트를 유적지 안내 책자를 통해 알리고 동선을 유도하고 안내하여 백제 유적의 OUV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 능산리 고분군과 나성의 연결 구간에 수로에 의한 단차 발생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우려되는 바, 코스에 따른 이동 동선 확보로 안전상 문제의 해결 또한 필요함

3. 익산지구

가) 왕궁리 유적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왕궁리 유적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왕궁리 유적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왕궁터 내 다양한 건물지, 5층 석탑 등인데 5층 석탑에 대한 관광객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변보다 지형을 높게 형성하였으며, 석탑 외에 지상 유물은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주요 자원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7-30] 왕궁리 유적 현황



[5층 석탑]

[안내판 및 건물지]

[콘크리트 포장된 건물지]



[유적 내 건물지 이외 공간]

[유적 내 건물지 이외 공간]

[발굴 진행 구역-통제 구역]

- 왕궁리 유적 내 5층 석탑 및 건물지 이외의 공간은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어 관광객 탐방 및 증가로 인한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왕궁리 유적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발굴이 진행중인데, 이곳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미발굴 유적에 대한 훼손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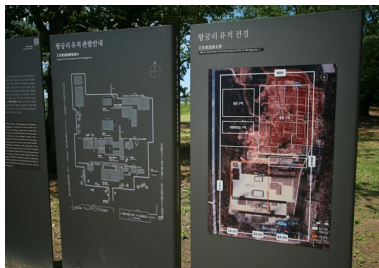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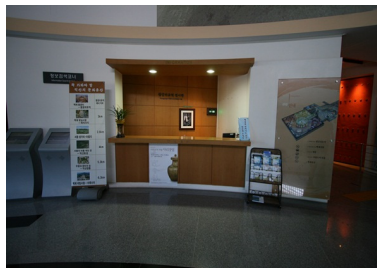
■ 관광객 관리 방안

- 왕궁리 유적의 경우 관광객 수 관리 보다는 관광객들에게 왕궁리 유적이 보유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어떻게 관광객들의 방문 편의를 제고할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현재 안내표지판 중심 해설 서비스를 인적 해설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는 등 유산해설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왕궁리 유적에 대한 전시 및 해설은 주로 왕궁리 유적 전시관에서 이루어지고, 왕궁리 유적 현장에는 안내도 및 안내판 중심의 해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 왕궁리 유적 현장에서 백제역사유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상주하여 예약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그림 7-31] 왕궁리 유적 안내 서비스



[왕궁리 유적 안내도]



[왕궁리 유적 전시관]



[오디오 가이드 어플]

- 왕궁리 5층 석탑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정림사지 5층 석탑과 같이 석탑 보호를 위해 관광객 접근을 제한하는 펜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 왕궁리 유적의 경우 물리적 관광수용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보다 엄격한 세계유산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5층 석탑에 대한 관광객의 직접적인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음
- 왕궁리 유적이 상업시설과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왕궁리 유적 전시관은 대부분 왕궁리 유적에 대한 전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관광객들의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점, 식음료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왕궁리 유적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왕궁리 유적이 도심과 격리되어 있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적전시관 내부 면적이 협소하여 관광객들이 집중될 경우 관광압력으로 인한 관람대기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콘텐츠를 통한 즐길거리 확보가 필요함
 - 주차장과 유적전시관 사이 광장공간에 현재 소수의 전통체험 시설만이 존재하고 있어 광장공간을 활용하여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동안 백제 유적들과 역사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안내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필요

나) 미륵사지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 미륵사지에 대한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향후 관광객이 증가하여도 미륵사지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미륵사지의 주요 백제역사유적은 미륵사지 내 여러 건물지, 미륵사지 석탑 등인데 현재 지상 유물이 없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미륵사지 유물에 대한 전시는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서 이루어지며 무너진 상태로 남아있던 석탑은 복원중에 있음
- 미륵사지 내 건물지 이외의 공간은 토양이나 잔디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 관광객 탐방 및 증가로 인한 훼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미륵사지 내 이동로는 대부분 흙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에는 벽돌 포장,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토양 훼손 가능성도 낮음
- 관광객의 주요 관광행동은 미륵사지 내부의 이동로를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VII. 관광수용력 관리계획

- 새롭게 만들어진 석탑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엄격한 관점에서 보면 유산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유산과 같은 수준에서 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은 없음

[그림 7-32] 미륵사지 내부 현황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미륵사지 내부]



[미륵사지 내부 이동로]



[미륵사지 건물지]

■ 관광객 관리 방안

- 미륵사지의 경우 관광객 수 관리 보다는 관광객들에게 미륵사지가 보유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미륵사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미륵사지 내 건물지 등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관광객들에게 미륵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미륵사지 5층석탑은 국사책(역사책)에 항상 소개되는 국보문화재로 이를 관람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을 것이나 2017년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관람하기 어려운 실정임
 - 가상시뮬레이션(VR)시스템 등을 통한 시각적 전달과 보수과정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보수과정을 교육·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구축이 필요함



[그늘이 없는 유적지 전경]

[보수가 진행중인 미륵사지5층석탑]

[유적지내 연못]

-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는 실존 유물들의 부재로 인해 찾은 관광객들에게 피부에 닿는 공감가능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리즘을 통한 콘텐츠들을 통해 관람객들과 백제가 소통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 등의 스토리텔링을 가미 역사 이외의 새로운 매력성 확보가 필요하며 유적지내 연못을 활용 소규모 식생(연꽃)공원을 조성으로 유적지내 부족한 휴게공간 조성이 필요함
- 미륵사지 전반적으로 나무 식재 공간이 작아 무더운 날씨 및 햇빛으로 인해 관람객들의 관람 만족도가 떨어짐
 - 내부 공간 나무식재 또는 외부 숲길데크 조성을 통한 쾌적한 관람로 조성이 필요함
- 다음으로 미륵사지 내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의 동선 등을 설정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재현된 미륵사지 석탑과 복원중인 미륵사지 석탑을 잇는 선의 뒷부분은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도 예방할 필요가 있음

[그림 7-33] 미륵사지 내부 지역





08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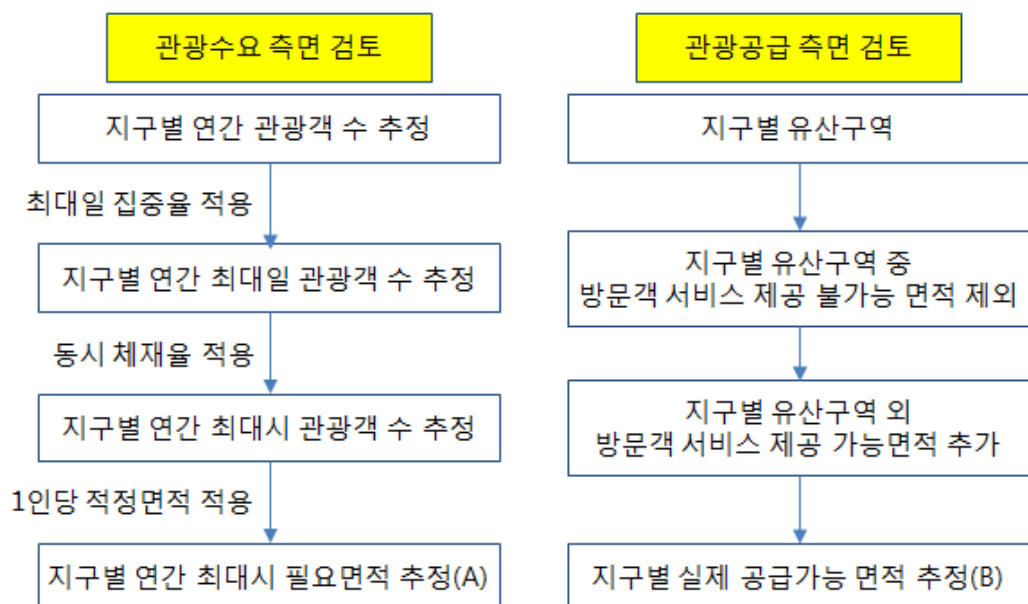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의 필요성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방문객의 경험과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필요함
- 방문객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등재 신청 문화유산의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방법

- 본 계획에서는 여러 관광수용력 중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1년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과 실제 등재 신청 지구별 공급가능 면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 지구별 연간 관광객 수에 최대일 집중율과 동시 체재율을 적용하여 최대시 관광객 수를 추정한 후 1인당 적정면적을 적용하여 연간 최대시 필요면적(A)을 추정함
 - 지구별 유산구역 중 숲과 같이 방문객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하는 한편 유산구역과 접하여 하나의 단지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은 포함하여 실제 공급가능 면적(B)을 추정함
- 연간 최대시 필요면적(A)과 실제 공급가능 면적(B)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각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평가함

[그림 8-1]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절차





VIII. 결 론

■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물리적 수용력 평가 결과 공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는 방문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물리적 관광수용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송산리고분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송산리고분군은 관광객 수 증가율이 30% 이상이 되면,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관광객 수 증가율이 70% 이상이 되면 물리적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8-1] 물리적 관광수용력 평가 결과

구 분		관광객 수 증가율 시나리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	공산성	0.507	0.549	0.592	0.634	0.676	0.718	0.761	0.803	0.845
	송산리고분군	0.993	1.075	1.158	1.241	1.324	1.406	1.489	1.572	1.654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0.738	0.799	0.861	0.922	0.984	1.045	1.107	1.168	1.230
	정림사지	0.476	0.516	0.555	0.595	0.635	0.674	0.714	0.754	0.793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0.026	0.029	0.031	0.033	0.035	0.037	0.040	0.042	0.044
익산	왕궁리유적	0.248	0.269	0.290	0.310	0.331	0.352	0.372	0.393	0.414
	미륵사지	0.420	0.455	0.490	0.525	0.560	0.595	0.630	0.665	0.700

■ 백제역사유적지구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방안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수용력 관리 역시 교육·홍보·정보, 지역 관리, 가격, 행위 제한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국립공원연구원, 2007)

[표 8-2] 단계별 관광수용력 관리 방안(안)

단계	관리 대안	세부 내용	장단점
1단계	교육, 홍보, 정보	• 양질의 정보 제공(홈페이지, 광역정보체계 및 모바일 환경) – 세계유산, 주변 관광지, 기타 문화재, 혼잡 정보 등 • 저혼잡 관람유도 프로그램 마련 – 혼잡도 등급제, Diet Map, 자기안내식, 전시물 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 학계, 도민, NGO 등과 협의체 구성 운영 • 세계유산 안내소 기능 강화(신설 또는 보수)	• 잠재된 강력한 관리수단 • 관광객 행동 변화 강조 • 자유의지 존중
2단계	지역 관리	• 혼잡지역의 훼손 및 접근 방지 – 시설물 재배치, 식생·펜스 등 장애물 설치, 순찰 강화 등 • 관광객 분산·유도 시설물 설치 – 유적지 내 탐방로, Viewpoint 등 • 관광객 분산을 위한 시설물 제한(주차장, 화장실 등) • 민감한 세계유산지역에 대한 일시·영구적 폐쇄(휴식년제 등)	• 필수 관리수단 • 자원보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목적
3단계	가격	• 성수기 요금 차등화, 혼잡요금제(congestion pricing)	• 정책효율성은 큰 반면 갈등요인
4단계	행위 제한	• 혼잡시기 방문예약제, 휴식일제 등 관광객 수 제한 정책 •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부과 등 사법권 강화 • 차량통행 제한(극성수기 셔틀버스 운행 등)	• 행위규제 강조 • 관광경험의 질 저하 우려

자료 : 국립공원 수용력 조사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2008

■ 통합 및 지구별 관광객 관리 계획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각 지구별 현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을 마련함
- 각 지구별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인접 세계유산간 연과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세계유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함



VIII. 결 론

[표 8-3] 각 지구별 물리적 관광수용력 관리 계획(안)

구 분		세부 내용
공통 사항		· 유적지별 동시 관람 가능 최대 관광객 수 제한 · 관람객 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관광해설 기능 제공 ·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관람정보 제공 · 예약제 시행을 통한 사전적 관광객 수요 관리 · 관람루트 제안을 통한 관광객 이동 동선 강제(일방통행) · 무인 관람활동 감시시스템
공주	공산성	· 유산 해설 기능 강화: 안내 시설 보수, 해설 인력 확충 등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 안전조치 강화: 산성 내부 및 성곽주변 낭떠러지 구간 등 안전시설 보완,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등 ·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송산리고분군과 셔틀버스 연계방안 검토 ·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 제공 · 장애인 관람 조건 개선: 리프트 시설, 전동 휠체어 배치
	송산리고분군	· 주변 전시관 기능 및 역할 부여 :웅진백제역사관, 모형전시관 안내·교육·서비스·콘텐츠 강화를 통한 공주시 관광중심지로 조성 · 유적지구 통합 관광 코스 제안: 국립공주 박물관, 웅진 백제역사관, 모형전시관 까지 공간범위 확대하여 관광코스 제공 · 자원봉사자 및 사회적 기업 참여를 통한 콘텐츠 확보(수문병, 백제병사) · 스마트 폰 등 IT기기를 활용한 해설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공공주차장 확보 및 인근 유적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콘텐츠 확보 ·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유적지 입장 대기 시간 안내 및 수용가능 관광객 모니터링 우선시행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단체 관광객 집중 시 대응방안 수립(50인 이상 단체관광 1일이전 예약) · 부여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주차장 확보 및 불법주차 관리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내 토성 개방 구간 훼손 방지 방안 마련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내 샛길 통행 제한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관람시간별 추천 코스 마련
	정림사지	· 정림사지 현장 해설 및 안내 강화 ·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부소산성과 셔틀버스 연계방안 검토 · 관람객 자동계측 시설 및 주차장 잔여 공간 안내 시설 설치
	능산리고분군 및 나성	· 능산리고분군의 유산해설 기능 대폭 강화 · 능산리고분군 진입 안전조치 강화 · 안내 책자에 관광코스 제시, 효율적 관광동선 확보 및 관광객 안정성 확보
익산	왕궁리유적	· 안내표지판 중심의 해설 서비스를 인적 해설 서비스로 전환 · 왕궁리 5층 석탑 보호 강화를 위한 펜스 설치(필요시) ·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매점 등) ·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 유적전시관 관광압력 대응 체험콘텐츠 확보
	미륵사지	· 가상시뮬레이션 시스템등을 통한 시각적 전달 콘텐츠 구축 · 보수과정 관광상품으로 개발, 체험프로그램 제공 · 내부 탐방로 정비 및 방문객 동선 정비 ·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이움을 통한 소통가능한 콘텐츠 개발 · 내부 공간 나무식재 또는 외부 숲길데크 조성 · 동선 제시를 통한 관람 방향 제시

참고문헌

- 국립공원관리공단(2000). 국립공원별 특성에 따른 공원관리방안 연구.
- 국립공원연구원(2006), 입장료 폐지시 공원관리 강화 방안.
- 국립공원연구원(2007), 국립공원 수용력 관리시스템 연구.
- 권영선 · 이경재 · 송근준(1988), 치악산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자의 심리적 수용능력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2, 181-195.
- 권현교 · 신원섭 · 한상열(2010), VERP 모델을 이용한 한라산국립공원 수용력 지표관리프로그램 개발. 한국임학회지, 99(4), 508-516.
- 김보현 · 오구균(2012), 무등산도립공원 시간대별 탐방객 이동패턴에 따른 관리방안 연구. 한국 환경생태학회지, 26(6), 960-969.
- 김사헌(1999), 관광경제학신론. 일신사.
- 김사헌(2003), 관광경제학. 백산출판사.
- 김선희(2005), 관광지의 적정수용력 산정과 관리방안 연구: 광릉지역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0(3), 321-334.
- 김진선(2007), 방문객 행태분석과 지표구축을 통한 국립공원 관리: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인천 국제관광 학술대회 발표 자료.
- 문화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 박석희(2012), 신관광자원론. 대왕사.
- 박영섭·윤킨이(1999), 중요한 유적지에서의 관광관리를 위한 국제문화관광헌장(ICOMOS에 의해 1999년 10월 제 12차 멕시코 총회에서 채택됨)
- 반상 · 서환 · 강태호(2012), 경주 동궁과 월지의 적정수용력 연구-물리적 · 심리적 수용력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3), 21-28.
- 신원섭(1999), 야외휴양관리. 도서출판 따님.
- 신원섭 · 권현교 · 한상열(2007), 국립공원 탐방집중도 분석 및 사회 · 심리적 수용력 평가. 한국 산림휴양학회지, 11(2), 43-50.
- 신원섭 · 권현교 · 한상열(2007), 국립공원 탐방집중도 분석 및 사회 · 심리적 수용력 평가. 한국 산림휴양학회지, 43-51.
- 엄봉훈(1992), 공원잔디공간의 레크레이션 수용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3), 93-102.



- 오순환(2013), 참여관찰에 의한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쓰레기 관리방안 탐색. 관광연구, 28(4), 237-257.
- 우경덕 · 이주희 · 심규원(2004), 설악산국립공원 시 · 공간분석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8(3), 53-62.
- 유기준 · 김정민(2009), 백두대간 등산로 이용행태 및 환경영향 수준에 대한 이용객 인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6), 603-612.
- 이대중(2012),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탐방객 적정수용력: 물리적 · 관리적 수용력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대중 · 구철현 · 조계중(2012), 탐방객 적정수용력 연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1), 103-114.
- 이성민(2011), 지속가능한 연안관광지 적정수용력 평가모형 연구: 순천만 생태관광지의 사례분석,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일열(2008),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지역 관광자원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프랑스의 사례. 관광연구, 23(3), 447-469.
- 이창환(1991), 관광지 개발에 있어 이용객 추정을 위한 적정규모의 산정. 환경과 조경, 42, 124-129.
- 이흥 · 강태호(2012), 경주 동궁과 월지의 생태적 수용력에 관한 연구: 탐방로의 이용행태 및 손상도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0(6), 70-78.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 조현길(1989), 산악형 국립공원 야영장의 수용력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봉구(1997), 국립공원의 사회심리적 수용력에 관한 사례연구. 호텔경영연구논총, 5, 145-167.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999), 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방안 연구: 국립공원 주민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한상열 · 권현교(2009), 한계효용이론 모델을 이용한 북한산국립공원 사회 · 심리적 수용력 평가. 한국임학회지, 98(3), 297-304.
- Abernethy, V. D.(2001), Carrying capacity: The tradi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limits. Ethics in Science and Environmental Politics ESEP 23.
- Ahn, B. Y., Lee, B. K. & Shafer, S.(2002), Operationalizing sustainability in regional tourism planning: an application of the limits of acceptable change framework. Tourism Management, 23, 1-15.

- Audrerie, D. & Souchier, R.(1998), *Le Patrimoine mondiale*; PUF(Q-S-J).
- Bimonte, S. & Punzo, F.(2005), *A proposito di capacita di carico turistica. Una breve analisi teorica*. ATS Working Papers Series, Vol.4.
- Buckley, R.(1999),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carrying capa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3), 705-708.
- Canadian Arctic Resources Committee(2002), *Carrying capacity and thresholds: theory and practice in environmental management*. Macleod Institute, Calgary.
- Castellani, V. & Sala, S.(2012), *Carrying capacity of tourism system: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nd management constraints towards sustainability. Visions for Global Tourism Industry-Creating and Sustaining Competitive Strategies*.
- Ceballos-Lascurian, H.(1996), *Tourism, ecotourism and protected areas: the state of nature-based tourism around the world and guidelines for its development*.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130-136.
- Chamberlain K.(1997), *Carrying capacity*. UNEP Industry and Environment 8, Paris.
- Clark, J.(1997), *Coastal zone management handbook*. Lewis Publishers, Boca Raton.
- Coccossis, H. & Mexa, A.(2002), *Defining, measuring and evaluating carrying capacity in European tourism destinations*. University of the Aegean.
- Coccossis, H. N. & Mexa, A.(2004), *The challenge of tourism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theory and practice*. Ashgate, Basingstoke, Hampshire.
- Coccossis, H. N. & Parpairis, A.(1992), *Tourism and the environment: some observation on the concept of carrying capacity*. In Briassoulis H. and van der Straaten J.(eds), *Tourism and the Environment: Regional, Economic and Policy Issu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 Cole, D. N.(1994), *Management ecological impacts at wilderness campsites*. *Journal of Forestry*, 79(2): 86-89.
- Computer Technology Institute(2012), *Application of a combined SWOT – STRASSE analysis for the enhancement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 Cooper, C., Fletcher, J., Gilbert, D., Shepherd, R. & Wanhill, S.(1998), *Tourism principles and practice*(2nd ed), Longman, Harlow.
- European Commission(2002), *Defining, measuring and evaluating carrying capacity in European tourism destination*. Material for a document, prepared by Coccossis H., 175



- Mexa A. and Collovini A, University of the Aege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tudies, Laboratory of Environmental Planning, Greece.
- Federal Provincial Territorial Ministers of Culture and Heritage(2012), Cultural & heritage tourism—a handbook for community champions.
- Godschalk, D. R. & Parker, F. H.(1975), Carrying capacity: a key to environmental planning. *Journal of Soil and Water Conservation*, 30(4): 160–165.
- Graefe, A. R., Kuss F. R. & Vaske J. J. 1990. Visitor impact management: the planning framework. National Parks and Conservation Association. Washington D. C.
- Graefe, A. R., Vaske, J. J. & Kuss, F. R.(1984), Social carrying capacity: an integration and synthesis of twenty years of research. *Leisure Sciences*, 6, 395–431.
- Hall, C. M.(1995), An introduction to tourism in Australia. 2nd ed. Longman: Melbourne.
- Hall, M. C. & Lew, A. A.(1998), Sustainable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Harlow: Longman.
- Hammit, W. E. & Cole, D. N.(1987), Wildland recreation: ecology and management. John Willey & Sons: New York, NY.
- Hendee, J. C., Stankey, G. H. & Lucas. R. C.(1990), Wilderness management. North American Press: Golden, CO.
- Hof, M. & Lime, D. W.(1997), Visitor experience and resource protection framework in the national park system: rational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Proceedings - Limits of Acceptable Change and Related Planning Processes: Progress and Future Directions*, General Technical Report, S.F. McCool, D.N. Cole, (Eds), (pp. 29–36). Ogden, UT: USDA Forest Service, Intermountain Research Station.
- Ioannides, D. & Billing, P.(2005), Seminar paper on carrying capacity for interreg IIIC “GEDERI” .
- Lein, J. K.(1993), Applying expert systems technology to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a demonstration prototype.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37, 63–84.
- Lime, D. W.(1970), Research for determining use capacities of the boundary waters canoe area. *Naturalist*, 21(4), 9–13.

- Linderberg, K., McCool, S. & Stankey, G.(1997), Rethinking carrying capa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2), 461–464.
- Maggi, E. & Fredella, F. L.(2011), The carrying capacity of a tourist destination: the case of a coastal Italian city.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papers*.
- Manning, R. E.(2007), *Park and carrying capacity*. ISLAND PRESS.
- Martin, B. S. & Uysal, M.(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rying capacity and the tourism lifecycle: manag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31, 327–33.
- Mathieson, A. & Wall, G.(1982), *Tourism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Longman.
- McArthur, S.(1997), Beyond the limits of acceptable change. in 1996 Tread Lightly Conference Proceedings. Tread Lightly Australia: Brisbane.
- McCool, S. & Lime, D.(2001), Tourism carrying capacity: tempting fantasy or useful reality?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9, 372–388.
- McIntyre, G.(1993),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guide for local planners*, World Tourism Organization, Madrid.
- Middleton, V. C. & Hawkins, R.(1998), *Sustainable tourism: a marketing perspective*, Butterworth–Heinemann, Oxford.
- Miller, G.(2001),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sustainable tourism: results of a delphi survey of tourism researchers. *Tourism Management*, 22, 351–362.
- Ministry of Culture of Montenegro(2013), *Enhancement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Mid – Term Conference.
- Odum, E.(1989), *Ecology and our endangered life support systems*. Sinauer Associates, ISBN 0878936300 Sunderland.
- O'Reilly, A. M.(1986), Tourism carrying capacity: concepts and issues. *Tourism Management*, 7(3), 254–258.
- Papageorgiou, K. & Brotherton, I.(1999), A management planning framework based on ecological, perceptual and economic carrying capacity: the case study of Vikos–Aoos National Park, Greece.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56, 271–284.



- Regional Activity Centre(2007),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for tourism of the Larnaca district. Cyprus. Mediterranean Action Plan – Priority Actions Programme.
- Santonocito, S. D.(2009), Sustainable tourism and carrying capacity in the Mediterranean area focus on Sicily. 3rd IRT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Vol.1.
- Saveriades, A.(2000), Establishing the social tourism carrying capacity for the tourist resorts of the east coast of the Republic of Cyprus. *Tourism Management*, 21, 147–156.
- Shelby, B. & Heberlein, T. A.(1984), A conceptual framework for carrying capacity determination. *Leisure Science*, (6)4, 433–451.
- Shelby, B. & Heberlein, T. A.(1986), *Carrying capacity in recreational settings*, Corvallis: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 Simón, F. J., Narangajavan, Y. & Marquês, D. P.(2004), Carrying capacity in the tourism industry: a case study of Hengistbury Head. *Tourism Management*, 25, 275–283.
- Stankey, G. H. & McCool, S.(1984), Carrying capacity in recreational settings: evolution, appraisal and application. *Leisure Sciences*, (6)4, 453–473.
- Turismo de Portugal & UNESCO World Heritage Center(2013), *Tourism and world heritage: selected management approaches and experiences from world heritage sites of Portuguese origin and influences*.
- UNEP · MAP · PAP(1997), *Guidelines for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for tourism in Mediterranean coastal areas*. Priority action programme, Regional Activity Centre, Split.
- UNWTO(2013),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
- UNESCO(2011), *World Heritage Capacity Building Strategy*
- Vereczi, G.(2006), Statistical and sustainability indicators concerning tourism, Second Meeting of the Reflection Year on World Heritage Periodic Reporting, UNESCO Headquarters.
- Wagar, J. A.(1974), Recreational carrying capacity reconsidered. *Journal of Forestry*, 72.
- Washburn, R. F.(1982), Wilderness recreational carrying capacity: are numbers necessary? *Journal of Forestry*, 80, 726–728.

Wolters, T. M.(1991), Tourism carrying capacity. World Tourism Organization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Paris. 3-25.

WTO(1981), Saturation of tourist destin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Madrid.

WTO(1999),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Proceedings of Thirteenth session of General Assembly: Santiago, Chile.

油井正昭・岡本昌光(1989). 自然公園の施設-利用據點の整備計画/木材を活用した公園施設, 國立公園協會.



부 록

1. 세계유산 역량강화 전략 (UNESCO, 2011)
2. 중요한 유적지에서의 관광관리를 위한
국제문화관광 헌장(ICOMOS, 1999)

부록 1. 세계유산 역량강화 전략(UNESCO, 2011)

1. 배경 (Background)

2001년에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세계적 훈련 전략이 세계 유산 위원회 25차 세션(핀란드)에서 승인되었다. 전략은 공간적으로 국제적 & 국지적(지역적) 두 차원에서 수립되었다. 국제적 수준에서, 협약의 구현 강화와 관리 및 보존의 전문적 기술(skill)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고, 각각의 (5개) 지역별 전략도 수립되었다.

전략이 실행된 9년간, 훈련 상황이 상당히 변화한 것이 분명하며, 이에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전략의 재검토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특히 훈련의 프레임워크가 훨씬 풍부해졌다. 급격한 변화의 요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세계 유산과 관련하여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institutions)의 등장이다. 다음으로, 수많은 새로운 학습 환경이 제안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용이해졌으며 ‘지식 전달’에서 ‘지식 획득’으로 초점이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주요 이슈들이 최근 등장하였다.

2001년 전략에서는 또한 ‘정기적 보고(Periodic Reporting)’가 지역에서 훈련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각 지역의 “실행계획(action plan)”에 훈련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만, 각 지역 차원의 포괄적·종합적(full-fledged) 전략이 (이미 존재하는 AFRICA 2009를 제외하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지역의 효과적인 전략수립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침(guidance)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현황 분석 (Situation analysis)

State of Conservation Reports (SoC)에서 세계 유산 시스템 내 역량강화 수요와 관련한 중요한 트렌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산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와 괴리되어 유산 그 자체에 한정짓는 고립적인 방식이 지속적인 유산의 보존·관리·활용(practice)에 악영향을 주는(penalize) 것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의 효과적 관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유산이 입지하는 공간·장소(site)를 초월해 나타날수록 심각해진다. 또한 장소의 유산 관리자들은 그들의 역량과 상관없이 변화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08년에 점검된 158개의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중에서, 100개 이상이 개발 및 인프라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관리 및 법률 문제도 있었다. 천재(天災) 및 인재의 증가를 볼 때, 지금까지의 유산 관리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이 분명함을 보여 준다. 개별 전문가의 훈련은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 입법, 정부 및 자원 취급 관련 제도의 강화 등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다. 게다가, 유산은 지역공동체(community)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녕(well-being)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있으므로, 유산의 보호는 그 보존과 관리에 직접적 책임을 지는 소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거대 집단의 관심사로 보아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현재의 니즈를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주제를 고려해야 한다:

- 재해 위험 경감
- 지속가능 관광
- 유산 영향평가
- 관리 유효성
- 지역공동체, NGOs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의 관리 프로세스 참여
- 국가 수준의 법적 및 행정적 지원체계 강화
- 일반 대중의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인식 개선
- 세계유산 프로세스와 관련 타 계획 메커니즘의 통합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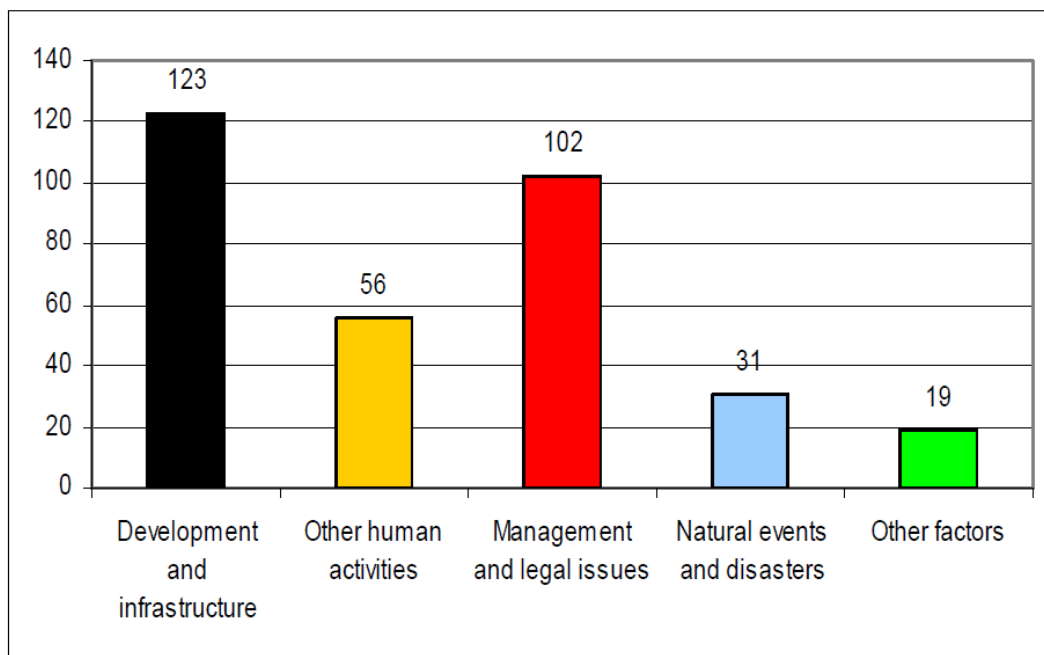


그림 1. 2008 World Heritage State of Conservation Reports에서 인용한 문제 분석

3.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훈련에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로

이 전략은 전통적 방식의 훈련을 넘어 역량 구축 접근법을 지향한다. 현재의 유산 관련 수요들은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역량강화 전략들이 폭넓고, 다양하며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 및 유산 부문을 보다 상위 수준의 지역공동체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역량 창조 및 강화는 개별 전문가(practitioners)들의 훈련만큼이나 우선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조직적 프레임워크 및 유산과 광역 환경 간 인터페이스가

강화되고, 외부의 유산-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개인들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전략은 “세계적 훈련 전략”에서 “세계 유산 역량 강화 전략”으로의 이동을 표방하며, 세계유산협약의 Article 5에 일치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5가지 전략적 목표(the 5Cs)¹ 중 하나로 역량 구축에 초점을 두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전이다. 이 전략의 목적은 효과적인 역량 구축이 다른 네 전략적 목표(신뢰성, 보존, 소통,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성공을 담보함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목적을 위해, 세계유산 프레임워크의 역량 강화는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역량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설정 및 달성하기 위한 개인, 조직, 사회의 능력”²이라면,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는:

- 유산 보존 및 관리에 직접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지식, 능력, 기술, 행태 강화,
- 의사결정자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제도적 구조 및 프로세스 개선,
- 유산과 그 맥락 사이에 보다 역동적인 관계를 도입, 결국,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한 더 큰 상호 이익

그리하여 임무와 목적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된다.

역량 구축은 - 전문가(practitioner)든, 제도든,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든 - 사람-중심의 변화이며, 문화 및 자연 유산을 관리하는 접근법 개선을 위해 개인들의 집단과 작업하는 것을 수반한다.

세계유산협약과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으로 인한 대중성을 고려하면, 폭넓은 유산 보존 및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 세계유산 역량 강화 전략이 사용되어야 한다. 세계유산 위치로의 역량 강화 메시지는 세계유산과 다른 것들 간의 구별 없이¹⁶⁾ 현장에서 훌륭한 보존 및 관리 실행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량 구축은 세계유산위원회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의 다른 가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수단이며 유산과 사회가 서로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¹⁶⁾ 이 역시 중요한 이유는 많은 전문가(practitioner), 기관 및 네트워크가 이러한 범주들 간의 구별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4.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 문화 및 자연 유산 연계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전략에 내재된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은 자연 유산과 문화 유산 행위자(actor)를 분리하여 인지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공동 기회 창조를 통한 역량 구축 활동 강화로의 변화이다. 세계유산협약에서는 하나의 규범적인 기구(normative instrument)에서 문화 및 자연 유산 양자의 보호를 관장하기를 권장한다. 효과적인 세계유산 역량 강화 전략은 문화 및 자연 유산 전문가들을 위해 강력한 공동 네트워크가 창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공적인 방법론과 각 유산 유형으로부터 학습된 긍정적인 교훈은 서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각각에 대한 특정한 보존 니즈와 염려를 존중할 수 있다. 끝으로, 스위스 정부는 네트워킹 구축과 공동 역량 강화의 프로세스를 위해 자문위원회(Advisory Bodies)과 밀접히 작업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유산 역량 강화 전략을 통해 이러한 노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5. 대상(Target Audience)

역량강화의 정의는 역량이 존재하는 세 광의의 분야(area)와 역량강화가 지향해야 하는 대상들을 규정한다: 전문가(practitioner), 제도,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크. 이는 이미지를 채택한 다른 부문(예로, UNDP와 보건 및 식량원조 부문 NGOs)과 비슷한 세계유산에 대한 접근법이다. 다음 표는 전략의 대상들을 학습 분야와 니즈에 연결한다.

역량이 있는 곳: 역량 강화 전략의 대상	주요 학습 분야
전문가(practitioner)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보존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개인과 집단 포함)	• 협약의 이행 (잠정목록, 등재 등) • 보존 및 관리 쟁점: 계획, 이행, 모니터링 • 기술적 및 과학적 이슈 • 위치(site) 수준의 전통적 보존 프로세스 • 자원 활용 및 관리
기관 (관리 및 보존 환경에 책임이 있는 당사국(State Party) 유산 조직, NGOs, 세계유산위원회, 자문위원회, 그 외 기관들 포함)	• 법률적 쟁점 • 제도적 프레임워크/쟁점 (거버넌스, 이식화) • 재정 이슈 • 인적자원 • 지식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크 (생업으로 하는 국지적 지역공동체 혹은 근처 자산, 그리고 이들을 키우는 거대 네트워크를 포함)	• 상호 이익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 연결 • 관리(stewardship) • 전통적 보존 프로세스의 계속되는 지속가능성 • 의사소통 / 해석

6. 강령(Mission Statement)

본 전략의 목적은 다음을 통해 전문가(practitioner), 기관,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크의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강화 혹은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행동 및 프로그램의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역량 구축 분야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정책 및 결정을 알림

세계유산 시스템의 당사국(State Party) 및 다른 행위자(actor)의 역량 구축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이행, 모니터링 지향

더 넓은 보존 공동체에 대한 레퍼런스를 구성하고 보편적으로 유산 보존에 대한 역량 구축 활동을 지원하는 더 넓은 협력의 발전을 위한 촉매로써 활동

7. 비전

전문가(practitioner), 기관,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크가 세계유산과 보편적 유산들을 보호하고 지역공동체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의 작업이 밀접하게 조정될 것이다.

전문가(practitioner)들은 세계유산을 더욱 잘 보호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들은 우호적인 입법 및 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 더 효과적인 행정적 체계(set-up)를 수립, 유산 보호를 위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크는 유산과 유산 보존 지원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8. 세계유산 맥락에서 역량강화 주체(Some of Providers of Capacity Building in the World Heritage Context)

역량 강화 전략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원래의 전략이 승인된 2001년과 대비되는 2011년의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 때문이다. 다음은 2011년에 존재하는 관련 주체들 중 일부이다.

당사국(State Party): 당사국들은 일반적으로 역량 구축, 교육, 훈련에 대한 보편적 프레임워크 제공, 특히 단기 코스 및 훈련 기회,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의 보호를 위한 필요 자원 제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국들은 또한 위치들과 전문가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한다. 당사국은 종종 그들의 역량 구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훈련 기관 및 대학과 밀접히 일하기도 한다.

자문위원회(ABs):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많은 방식으로 역량 구축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훈련 활동 조직, 과정, 세미나, 워크숍 자료 제공자로 참여, 임무 중 개인적인 당사국들과의 작업, 자료 창출 등이 포함된다. 세계유산 역량 구축 임무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았던 자문위원회인 ICCROM은 세계 훈련 전략 및 그 개정에 대한 개발 및 이행에 책임을 지고 있다. ICCROM은 또한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된 직간접적 주체의 정규적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세계유산센터(WHC): 세계유산센터는 워크숍과 세미나 조정을 통해, 그리고 당사국과 직접적으로 일하면서 역량 구축을 제공한다. 특히 정기 보고(Periodic Reporting) 프로세스 조직에서 그들의 역할은 당사국을 위한 역량 구축 핵심 분야를 제공해왔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센터(C2Cs): 이들 조직은 유네스코 후원 하에 활동하며 유네스코의 전략적 프로그램 목표 지원(여기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 지원)에 관여한다. 이들은 이들이 입지한 회원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금지원을 받는다. C2Cs는 일반적인 특징을 짓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한 구조를 취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지역적 범위를 가지는 데에 반해 다른 일부는 한 지역 이상을 담당하기도 하고 주제별 쟁점을 따라 조직되기도 한다. 대부분 역량 구축 및 연구와 관련이 있지만, 몇몇은 다른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도록 설립, 자금지원을 받는다.

대학 프로그램: 현재 세계적으로 세계문화 보존 및 관리를 핵심 초점으로 제공하는 학위 수여 프로그램(degree program)은 다섯이다. 그 외 대학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관련 주제를 다루는 하나 혹은 일련의 과정을 제공할 수도 있다.

지역 훈련 파트너: 세계유산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학위 전문적 훈련 혹은 최신 과정들을 제공하는 훈련 기관이 많이 있다.

UNESCO Charis 및 UNITWIN Networks (UNITWIN/UNESCO Chairs): UNITWIN/UNESCO Chairs 프로그램은 경계를 넘는 지식 전달을 통해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학-간 협력을 장려하여 유네스코 전 분야의 경쟁력에 대한 선진 연구, 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습 프로그램, 연구 및 반영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기존 대학의 프로그램 강화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활용된다.

Forum UNESCO-University and Heritage(FUUH): FUUH는 고등 교육 기관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는 활동 착수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FUUH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스페인 발렌시아 기술 대학(UPV)의 공동 책임 하에 있다.

9. 세계유산 역량 강화의 핵심 목적 및 요약 실천 계획(summary action plan)

역량 강화 전략은 세계유산협약에서 설립된 전략적 방향을 재현하는 “5Cs”에 따라 조직된다. 아래 표는 전략의 아홉 가지의 주요 목적, 각각과 관련된 주요 실행(action), 그리고 전문가(practitioner), 기관,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주요 대상을 규정한다.

제시된 실행은 하나의 조직 혹은 조직의 집단에 의해서만 수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유산 역량 강화 전략은 실행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국제적, 지역적, 혹은 국가적 수준의 행위자들이 개인의 역량강화 활동과 함께 지역 및 국가 역량 강화 전략의 창조를 지향한다. 제시된 실행들은 세계유산의 이익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현재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많은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 실행계획의 의도는 보다 전략적인 역량 구축을 위한 선택지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 전략 주체들은 현장에서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보호 임무를 잘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된 활동 및 자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량 강화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에 면대면 및 인터넷 활동 및 그 외 기술 모두의 폭넓은 다양한 전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 관광, 흙건축(earthen architecture), 선사시대, 도시, 문화 경관, 해양 및 연안지역, 숲,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유산위원회의 분야에서 승인된 다른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들을 이 전략의 실행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적	실천	대상			잠재적 이행 파트너
		전문가	기관	지역 공동체	
신뢰성					
1. 협약을 이해하고 보존의 부정적 영향을 피하면서 전반적인 긍정적 영향을 달성한다.	1.1 국지적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당사국 및 협약의 모든 행위자는 문화 및 자연 유산 보존을 지원하는 협약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이해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 세계유산협약의 핵심 개념과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특정한 훈련 및 의사소통 도구와 기회를 창출.	x	x	x	자문위원회, WHC, C2Cs, 당사국
	1.2 문화 및 자연 유산 보존의 긍정적 및 부정적 경향을 식별하기 위해 보존 상태(State of Conservation) 보고 프로세스 및 그 외 모니터링 및 관리 효율성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일습의 지표들을 개발.	x	x	x	자문위원회, WHC, C2Cs
	1.3 세계유산협약 관련 쟁점들에는 훈련된 전문가들이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더 나은 기본 인식과 강점 및 약점을 인지하도록 학위 프로그램과 장기 직업 과정을 포함.	x			ICCROM, 대학 프로그램, C2Cs, UNITWIN/UNESCO Chairs, FUUH
	1.4 세계유산 메시지는 다른 프레임워크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협약과 유네스코의 다른 부문 간 연결 강화.	x	x		WHC, 자문위원회, C2Cs
	1.5 위원회 회의에 대한 효과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유망하고 새로운 위원회 회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도구를 창조.		x		자문위원회, WHC
	1.6 지역 역량 구축 전략은 협약과 그 프로세스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주기적 보고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각 지역을 위해 개발 및 이행됨. (아래 10.7 참조)	x	x		자문위원회, WHC, C2Cs, 그리고 지역의 훈련 파트너



부 록

목적	실천	대상			잠재적 이행 파트너
		전문가	기관	지역 공동체	
2. 보다 균형 잡힌 세계유산 목록을 만들고, 등재 과정의 심각한 문제들을 경감시킨다	2.1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새로운 자원 매뉴얼과 관련 훈련 자료를 완성, 당사국에 발행, 널리 번역함.	x	x		자문위원회, WHC, 대학 프로그램, UNITWIN/UNESCO Chairs
	2.2 당사국의 훌륭한 등재 서류일체 준비를 돕기 위한 훈련과정 개발 및 이행.		x		자문위원회, C2Cs, 지역의 훈련 파트너, 당사국
	2.3 한정된 세계유산 목록에서 각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잠정적 목록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강화.		x		자문위원회, C2Cs
	2.4 적절한, 우선순위의 잠재적 목록 식별을 보조하고, 지역과/또는 주제를 적절하게 목록에 조화시키기 위해 우선순위의 주제 연구 및 다른 도구들을 창조.		x		자문위원회
	2.5 멘토링 프로세스는 잠재적 목록에서 식별된 우선순위와 일치되게 효과적인 등재를 개발 및 이행할 수 있는 강화된 역량이 필요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함.		x		C2Cs, 지역의 훈련 파트너, 자문위원회, 당사국
	2.6 등재를 고려하는 당사국에 대해 즉각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국과 자문위원회 사이의 조정된 자문을 제공.		x		자문위원회, WHC, C2Cs
	2.7 등재 준비에 보다 효과적인 지역 공동체 참여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 지침 및 관련 훈련 및 도구들 창조.	x	x	x	자문위원회, WHC, 지역의 훈련 파트너, 당사국
	2.8 자문위원회 및 그 네트워크와 함께 당사국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장.	x	x		자문위원회
보존					

목적	실천	대상			잠재적 이행 파트너
		전문가	기관	지역 공동체	
3. 국가 기관(제도?)은 효과적으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규명, 보존, 제시한다.	3.1 국가 수준에서 그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강화된 역량을 확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일련의 지침 문서를 개발. 토픽은 다음을 포함: a) 법률적 프레임워크와 그 적용; b) 국가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지원 개선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에 참여하는 비-유산 부처들의 역량 포함), c) 유산 기관의 효과적이며 협약된 적절한 자원 획득 능력.		x		자문위원회, C2Cs, UNITWIN/UNESCO Chairs
	3.2 정기 보고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사이클을 위해 제도 및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개발 및 준비. (아래 Point 12 참조)		x		당사국
	3.3 훈련 자재 및 활동은 국가 제도의 유산 보존 및 관리 향상 역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발 및 이행		x		당사국, 자문위원회, WHC, C2Cs
	3.4 집중적인 경력자(mid career) 훈련은 각 부처, 정부 기관, NGOs를 포함한 국가 유산 기관의 자연 및 문화 전문가의 전문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됨.	x	x		ICCROM, UNITWIN/UNESCO Chairs, C2Cs, 대학 프로그램
	3.5 자연 유산의 포컬포인트는 세계유산 역량 구축에 대한 과소인식된 핵심 대상으로 정기 보고 (Periodic Reporting) 시행기간동안 당사국과 함께 규정함.	x			당사국



부 록

목적	실천	대상			잠재적 이행 파트너
		전문가	기관	지역공 동체	
	3.6 국가수준에서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 관리 및 보존도구개발: a) 자연 및 문화 유산과 관련한 개발 평가 시스템 및 프로젝트 (예: EIA), b) 유산에 대한 재해 위험 경감 과 관련한 통합된 국가 및 자산 수준의 계획		x		자문위원회, WHC, C2Cs, 당사국
	3.7 관광산업 및 세계유산의 적 절한 보존에 영향(공공과 민간 모두)을 주는 그 외 부문의 핵심 이해당사자들에게 집중적 훈련을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은 세계유 산위치Site (그리고 잠재적 세계 유산위치Site)의 특정 부문과 관 련되어야 함.	x	x	x	C2Cs, 지역의 훈련 파트너, 당사국
4. 세계유산에 대 한 효과적이고 지 속가능한 관리 및 보존을 행하며, 지구적 세계유산 프로세스라는 더 큰 프레임워크 내 에서 특정한 국지 적 맥락 및 환경 의 역동성을 고려 한다.	4.1 자연 및 문화 세계유산 (Heritage properties) 관리에 대 한 새로운 자원 매뉴얼 완성, 당 사국에 발행, 널리 번역.	x	x	x	자문위원회, WHC
	4.2 당사국 및 전문가들을 위한 자산의 보존 및 관리의 핵심 쟁 점을 포함하여 기존 출판물과 그 외 자원에 대한 서지학을 개발.	x	x		자문위원회, WHC
	4.3 명백한 지표를 가진 관리 효 율성 평가 방법론 및 도구를 포 함하는 계획 및 관리 강화를 위 해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관리에 대한 훈련을 개발 및 이 행.	x	x		ICCROM, C2Cs, UNITWIN/UNESC O Chairs, 대학 프로그램, 당사국

목적	실천	대상			잠재적 이행 파트너
		전문가	기관	지역 공동체	
	4.4 모든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을 위해 기존의 관리 효율성 평가 도구를 개선 및 발전시키며, 세계유산 위치 Site 관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하고 일관성 있으며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자연 자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을 포함.	x	x		IUCN, 자문위원회, 지역의 훈련 파트너
	4.5 천재(天災) 및 인재 모두에 계획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훈련을 개발 및 이행.	x	x	x	자문위원회, WHC, C2Cs, 당사국
	4.6 최대 20개의 학습 장소(classroom site) 망은 훌륭한 위치 관리 실행 모델을 사용, 현장 훈련 개최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과 위치 유형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세계유산 목록에서 식별.	x	x		자문위원회, WHC, 당사국
	4.7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에 대한 관리 및 보존 니즈 연구의 우선 순위 프로그램은 주기적 보고, SOC 보고, 전반적 SOC 경향 평가, 관리 효율성 평가 결과로부터의 정보에 기반하여 수행.	x	x		UNITWIN/UNESCO Chairs, C2Cs, 대학 프로그램, FUUH
	4.8 전문적 자문의 네트워크 강화는 위치 관리자에게 더 큰 지원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UNESCO Category 2 센터, UNESCO 지역 사무소, 다른 파트너들의 연결을 창조하고 발전시킴.	x	x		자문위원회, C2Cs, WHC, 지역의 훈련 파트너
	4.9 State of Conservation 프로세스와 다른 관련 위원회 결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당사국이 거론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즉각적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메커니즘을 개발.		x		WHC, 자문위원회, C2Cs, 당사국
5.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 기술	5.1 특정 보존 기술을 적절하게 숙련한 개인의 유용성을 지역 정기 보고 회의(Regional Periodic Reporting)와 국가 수준에서 평가	x	x		자문위원회, WHC, C2Cs, 당사국



부 록

목적	실천	대상			잠재적 이행 파트너
		전문가	기관	지역공동체	
을 강화한다.	5.2 기술이 부족한 분야 혹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기술이 필요해진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훈련 활동을 고안 및 이행.	x		x	자문위원회, C2Cs, 지역의 훈련 파트너, 대학 파트너
	5.3 보존 전문가(practitioner)와 지역공동체 집단이 함께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미래 역량 구축 니즈를 더 잘 확인하도록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x		x	당사국
6. 세계유산 위치의 보존 니즈를 충족시키는 자금 및 자원 조달의 강화	6.1 위치 수준에서 파트너의 네트워크 (위치 관리자와 위치의 다른 관련자들)는 자산에 대한 우선순위 보존 니즈를 지원하는 데에 함께 작업하며, 모든 관리 효율성과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	x	x	x	당사국
	6.2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보존 및 관리 개선을 위해 당사국이 국제 원조(International Assistance) 프로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		x		자문위원회, WHC
	6.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추가 예산 조달을 요청 및 확보할 수 있도록 당사국과 위치 관리자들의 능력 강화를 위한 도구 개발		x		자문위원회, WHC, C2Cs, 지역의 훈련 파트너
	지역공동체				
7. 지역공동체와 그들의 유산의 상호 이익 증진을 통해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한다	7.1 세계유산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 실행의 예시와 사례연구 제공을 위해 세계유산 보존 및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통합에 대하여 그 이익과 최적 실행에 관한 표적 연구를 착수.		x	x	대학 프로그램, UNITWIN/UNESCO Chairs, C2Cs, FUUH
	7.2 국가 및 국지적 기관, 세계유산 위치 관리자, 그 외 이해당사자들이 관련 부문 (자연, 문화, 관광, 개발)에서 유산 보존 및 개발을 통합하도록 훈련 및 역량 강화 활동을 고안하고 이행함.	x	x	x	C2Cs, 당사국, 지역의 훈련 파트너

목적	실천	대상			잠재적 이행 파트너
		전문가	기관	지역공동체	
	7.3 지속가능 관광에서 연구와 최적 실행은, 참여적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는 것을 포함,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보호 및 지역공동체 발전의 긍정적 방식에 기여하는 관광 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착수됨.	x	x	x	대학 프로그램, UNITWIN/UNESCO Chairs, C2Cs, FUUH
	7.4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네트워크는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국가 및 지역 스케일에서 개발 활동에 공헌하는 이러한 자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변 국가들 중 적절한 곳에서 창조됨.		x	x	당사국
	7.5 UNESCO Chairs 네트워크는 맥락-관련 참여적 접근법을 개발, 적응, 이행하고, 국가 수준에서 지식을 접근 가능하며 작동할 수 있도록 획득된 지식을 교환하기 위해 창조됨.	x	x	x	UNESCO Chairs, 당사국
8. 유산 보존, 제시 및 관련 발전에 대한 국지적 지역공동체의 참여 강화	8.1 자산들 간 역량 구축 및 학습에 활용되는 성공적인 예시를 규명하는 기반으로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으로 학습된 교훈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체 개입과 참여의 효과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를 착수.	x	x	x	대학 프로그램, UNITWIN/UNESCO Chairs, C2Cs, FUUH
	8.2 세계유산협약을 이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봉사활동(outreach)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일련의 도구들을 고안 및 확산시킴.			x	자문단, WHC, 대학 프로그램, UNITWIN/UNESCO Chairs, C2Cs, FUUH
	8.3 국지적 지역공동체, 그리고 위치 관리자와 일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의 보호 및 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		x	x	당사국
	8.4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기본 정보는 가능한 많은 언어로 온라인과 인쇄된 형태로 구할 수 있도록 함.			x	WHC
	의사소통				



부 록

목적	실천	대상			참재적 이행 파트너
		전문가	기관	지역공 동체	
9. 유산 보존 및 세계유산협약의 기여에 대한 필요 및 이익 인식 강 화.	9.1 세계유산 상징(Emblem)과 브랜드의 활용에 대한 효과적이 고 적절한 지침을 통해, 당사국 과 현장과 더 보편적 수준에서 세계유산을 보여주는 세계유산 위치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안.	x	x		WHC, 자문위원회, 당사국, C2Cs, UNESCO Chairs, 대학 프로그램
	9.2 학교 교과과정으로 세계유산 협약을 포함하도록 장려, 적극적 인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UNESCO의 프로그램 및 국가 수 준의 교과과정 개발을 통한 학교 용 세계유산에 대한 자원 준비 및 보급 포함.			x	WHC, 당사국, 대 학 프로그램(1차 및 2차 교육에 초 점)

역량 강화: 시스템 강화					선도 책임
10. 역량 구축에의 기여를 넘어 세계유산협약의 다른 4 “Cs” 전략적 방향을 위한 긍정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유산 역량 구축 자체가 효과적이고 세계유산위원회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10.1 분명하고 공유된 역량 강화 전략 거버넌스는 ICCROM과 파트너 IUCN, ICOMOS, 세계유산센터와 함께 수행되고, 조정되며, 세계유산 역량 구축시 핵심 행위자들 간 효과적으로 조정된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됨 (C2Cs, 관련 UNESCO Chairs, 세계유산 집중 파트너 및 그 외를 포함).				ICCROM
	10.2 효과적이고 재원이 적절한 정보 관리 구조는 훈련 프로그램, 활동, 세계유산 역량 구축에 우호적인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창조. 이러한 구조는 지속적인 전략적 접근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노력은 모든 수준에서 역량 강화 기획의 존재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				ICCROM과 WHC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보급 선도에 공헌)
	10.3 역량 강화 전략의 주체들과 주체/수혜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이들 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더 폭넓은 활동의 일부로 행위자들을 장려하기 위함.				ICCROM
	10.4 UNESCO C2Cs에 초점을 둔 세계유산의 효과적이고 지역적으로 균형 잡힌 네트워크의 발전 강화 및 멘토링.				WHC
	10.5 정보가 넓은 범위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도달하도록 다양한 문서들의 번역 및 확산 프로그램 시작.				ICCROM, IUCN, ICOMOS
	10.6 새로운 학습 환경과 정보의 제공 및 확산 수단 연구, 시범 사업 이행 (온라인 도구, 짧은 영상, 기타).				ICCROM, IUCN, ICOMOS



부 록

역량 강화: 시스템 강화					선도 책임
10. 역량 구축에의 기여를 넘어 세계유산협약의 다른 4 “Cs” 전략적 방향을 위한 긍정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유산 역량 구축 자체가 효과적이고 세계유산위원회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10.1 분명하고 공유된 역량 강화 전략 거버넌스는 ICCROM과 파트너 IUCN, ICOMOS, 세계유산센터와 함께 수행되고, 조정되며, 세계유산 역량 구축시 핵심 행위자들 간 효과적으로 조정된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됨 (C2Cs, 관련 UNESCO Chairs, 세계유산 집중 파트너 및 그 외를 포함).				ICCROM
	10.2 효과적이고 재원이 적절한 정보 관리 구조는 훈련 프로그램, 활동, 세계유산 역량 구축에 우호적인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창조. 이러한 구조는 지속적인 전략적 접근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노력은 모든 수준에서 역량 강화 기획의 존재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				ICCROM과 WHC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보급 선도에 공헌)
	10.3 역량 강화 전략의 주체들과 주체/수혜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이들 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더 폭넓은 활동의 일부로 행위자들을 장려하기 위함.				ICCROM
	10.4 UNESCO C2Cs에 초점을 둔 세계유산의 효과적이고 지역적으로 균형 잡힌 네트워크의 발전 강화 및 멘토링.				WHC
	10.5 정보가 넓은 범위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도달하도록 다양한 문서들의 번역 및 확산 프로그램 시작.				ICCROM, IUCN, ICOMOS
	10.6 새로운 학습 환경과 정보의 제공 및 확산 수단 연구, 시범 사업 이행 (온라인 도구, 짧은 영상, 기타).				ICCROM, IUCN, ICOMOS

역량 강화: 시스템 강화					선도 책임
	10.7 지역 전략과 각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은 (때에 따라 하위지역, 국가적 접근을 포함) 역량 구축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해 존재. 이러한 계획들은 주기적 보고 활동의 결과이며, 적절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고려하고, ICCROM, IUCN, ICOMOS, 세계유산센터 및 관련 지역체의 노력을 통합한 다른 지역의 니즈 평가 및 프로그램에 기반을 둠.				ICCROM과 C2Cs 그리고 지역의 훈련 파트너
	10.8 자금조달은 역량 구축 전략의 이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계획되고 이행됨. 자금 출처는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의 역량 구축에 대한 기여 증대와, 협약에 대한 당사국의 예산외 자금과, 새로운 외부 파트너들을 포함할 수 있음.				세계유산위원회와 당사국
	10.9 시간에 따른 이행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세계유산 역량 구축 전략에서 윤곽이 제시된 10개의 목적 각각에 대하여 일습의 지표 개발.				ICCROM
	10.10 모니터링과 보고는 10.9의 지표들에 대해, 역량 구축 전략의 목적과 실천 달성과 관련하여 연례 기반으로 수행.				ICCROM
	10.11 <u>문화 및 자연 유산의 전반적 보존</u> 에 관련된 구축 역량에 대하여 세계유산협약이 거둔 성과와 효율성은 주기적 보고와 동일한 주기 (매 6~8년)마다 평가 및 결과 보고				ICCROM



10. 지역 역량 강화 전략과 이행 계획

세계유산 역량 강화 전략은 각 유네스코 지역 수준에서 지역적 역량 구축 전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각 지역의 특정한 니즈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의 개발을 위한 유사한 방법론이 있다. 제시하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지역에서 정기 보고(Periodic Reporting) 활동을 시작할 때, 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회(그리고 특히 ICCROM), 지역의 알려진 핵심 역량 구축 조직들은 지역의 역량 구축 전략 창조를 선도하는 하나 이상의 조직을 선택하는 데에 자문해야 한다. 만약 지역에 세계유산 쟁점을 다루는 유네스코 Category 2 Centre가 있다면, 세계유산센터, 대학 프로그램, UNITWIN/UNESCO Chairs, 다른 지역 및 국가 기관은 역량 구축 개발의 조언자나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선도 조직은 그 지역의 주기적 보고를 위한 지역 및 하위지역 회의 전부에 초청되어 참여해야 한다. 주기적 보고 프로세스는 국가 및 위치 수준 모두에서 니즈 평가로 이어지며, 이전 작업으로 정기 보고(Periodic Reporting)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표준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수합 및 분석을 통해 지역 혹은 하위지역 수준의 니즈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선도 조직과 파트너는 지역의 기존 역량 구축 제공자들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대학 훈련 프로그램, 비-유네스코 관련 훈련 기관, NGOs, UNESCO Chairs, 등). 이 정보의 유형은 정기 보고 설문지의 일부가 아니며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할 수도 있다. 선도 조직과 파트너들은 정기 보고 설문조사의 결과가 지역에서 필요한 훈련 니즈 모두를 파악하는지 혹은 추가적 자료 수집 (예를 들면 NGOs, 개발 조직, 개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이 필요한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 계획은 선도 조직 및 파트너들이 개발하고 동의해야 한다.

최종적인 정기 보고의 발표 다음 해에, 선도 조직 및 파트너들은 그 다음 회의에서 위원회에 발표해야 하는 훈련 전략과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지역 역량 구축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기존 이니셔티브 위에 구축되며, 역량 구축 니즈를 확인하고, 역량 구축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 (훈련의 형태인지 혹은 다른 유형의 재원인지)을 식별하기 위해서 지역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전략은 필요에 따라 하위지역의 구성요소를 가질 수 있다.

확고한 프로그램에 특정 활동, 시각표, 책임, 필요 자원 확인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전략은 전 지역에 대해 단일한 역량 구축 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작은 지리적 하위지역, 언어 집단 분류(grouping), 주제 집단 분류 (예를 들어, 도시 보존 혹은 해양 환경 보존에 대한 지역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보다 소규모의 역량 구축 프로그램의 형태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하는 지역 역량 구축 전략의 준비 및 이행에 대한 각 지역의 시각표이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랍국가들	역량구축 계획 시작 • 마그레브 • 걸프 • 중동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3 주기 정기 보고 (3rd Cycle Report)	3주기 정기 보고 완료 적응 및 이행	개정된 역량구 축 전략 적응 및 이행
아프리카	정기보고 완료	역량구축 계획 시작 - 지역 자문을 통해 구 조 결정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3 주기 정기 보 고	3주기 정 기 보고 완료 적응 및 이행
아시아 태평양		정기 보 고 완료	역량구축 계획 시작 - 지역 자문을 통해 구 조 결정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3 주기 정기 보 고
중남미			정기 보 고 완료	역량구축 계획 시작 - 지역 자문을 통해 구 조 결정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유럽 북아메리 카				정기 보 고 완료	역량구축 계획 시작 - 지역 자문을 통해 구 조 결정	이행	이행	이행



11. 국가적 역량 강화 전략

이해 당사국이 국가적 역량 강화 전략을 개발하는 게 유용하다. 국가 전략은 지역 수준 전략과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 보고 설문조사의 준비 및 분석 시기에 도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exercise)은 개별 당사국이 국가적 및 자산 기반의 역량 강화 니즈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국은 또한 어떤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역량 강화 기관이 국가 및 국지적 역량 개발을 도울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역량 강화 전략은 당사국이 국가 기관 (유산 기관뿐만 아니라, 관광, 계획, 개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관 포함)에서 인적자원 니즈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세계유산(Heritage properties) 수준과 국지적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다른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역량 구축이 있다면 이러한 국가적 전략은 더욱 유용할 것이다. 어떤 예에서, 하나 이상의 국가가 공동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회, 다른 역량 구축 제공자들은 국가적 전략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당사국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편리화를 제공해야 한다.

부록 2. 중요한 유적지에서의 관광관리를 위한 국제문화관광 헌장(ICOMOS, 1999)

(ICOMOS에 의해 1999년 10월 제12차 멕시코 총회에서 채택됨)

개요

헌장의 정신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은 전 인류의 자산이다. 우리 개개인은 그 세계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며, 보존해야 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유산은 광의적 개념으로 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포함한다. 이는 경관, 역사적 장소, 사적지, 인조환경 뿐만 아니라 종의 다양성, 소장품,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문화적 관습, 지식, 그리고 현존하는 경험들까지 포함한다. 이는 역사발전의 오랜 과정을 기록하고 나타내며, 국가, 지방, 토착,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며, 현대 생활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는 변화하는 기준점이자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구이다. 각각의 장소 또는 공동체가 가지는 특유의 유산과 공동의 기억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다.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 또는 지역의 유산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 보존, 해석, 소개하는 것은 어느 곳의 사람들에게나 중대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한 적용기준의 관점에서는 유산의 관리는 대개 특정한 공동체 또는 관리 단체의 책무이다.

유산 관리의 첫 번째 목적은 그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해당 공동체와 방문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유산과 문화적 발전에 대한 합리적으로 잘 관리된 물리적, 지적, 그리고 감성적인 접근은 권리이자 특권이다. 이는 유산의 가치, 오늘날의 해당 공동체, 현지 관리자 혹은 소유주 간의 평등과 이해관계, 그리고 그 유산이 진화되어왔던 문화와 경관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수반한다.

문화유산과 관광간의 동적 상호작용

국내와 국제 관광은 문화교류를 위한 최우선 매체로서 지속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남겨진 것 뿐 아니라 현대의 다른 사회와 생활에 대한 사적 경험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문화의 보존을 위한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 점차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관광은 유산의 경제적 특질을 포착하여, 이를 재원 마련, 공동체 교육과 정책 반영에 활용함으로써 보존을 위한 동력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많은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성공적으로 관리된다면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관광 자체는 점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생물-물리학, 생태학, 미학 분야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방문객과 지역 혹은 해당 공동체 간의 기대와 열망사이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많은 기회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다양성과 현존하는 문화는 주요한 관광자원이다. 개발과 관련하여 과도하거나 방치된 관광은 이들의 물리적 성질, 총체성, 중요한 특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 장소에 대한 방문객들의 경험과 함께 생태적 환경, 해당 공동체의 문화와 생활양식 또한 퇴락할 수 있다.

관광은 해당 공동체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들의 유산과 문화적 관습을 유지하고 보살피기 위한 동기와 중대한 수단을 제공한다. 미래의 세대들을 위하여 유산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또는 현지 공동체의 지도자, 보전주의자, 관광업 종사자, 소유주,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입안자, 사적지 관리자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ICOMOS(국제 기념물 유적협회)는 이 현장의 입안자로서 다른 국제기구들과 관광 산업계에게 이 같은 과업을 헌정한다.

현장의 목적

이 국제 문화관광 현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유산에 대한 해당 공동체와 방문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한 유산의 관리와 보존에 종사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촉진하고자 한다.

해당 공동체의 현존하는 문화와 유산을 강화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광을 증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촉진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획득하기 위한 요구를 포함하여, 유적지와 수집품 그리고 현존하는 문화의 중요성과 훼손되기 쉬운 성질에 관하여 관광 산업과 보존주의자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촉진하고자 한다.

보존과 보호의 측면에서 유적지와 문화 활동에 관한 소개와 해석에 대한 구체적이며 예측 가능한 목표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이 현장은 유산의 관리와 보존의 총체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ICOMOS와 다른 국제기구들, 그리고 관광 산업으로의 보다 폭넓은 발의에 대해 지지한다.

이 현장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이해관계, 책임과 의무가 상충되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이 현장은 특정한 조직과 공동체의 요구사항 또는 특수한 환경에 따라 기본원칙들의 실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지침의 수립을 장려한다.

문화 관광 현장의 원칙

제1원칙

국내와 국제 관광은 문화교류를 위한 최우선 매체에 해당하므로, 보존은 우선 해당 공동체의 일원들과 방문객들에게 그 공동체의 문화와 유산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잘 관리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은 역사의 발전을 설명해 주는 물질적, 정신적 자산이다. 이것은 현대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물리적, 지적, 감성적으로 일반 대중이 접하기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물리적 속성, 무형의 양상, 동시대의 문화적 표현, 그리고 광범위한 맥락에 대한 보존과 보호 프로그램은 공평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공동체와 방문객으로 하여금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2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개별적 양상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지만, 국가적, 지역적 혹은 지방적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차원의 중요성을 가진다. 해석 프로그램은 당대의 흥미롭고 적합한 교육, 언론, 기술적 형식과 역사적, 환경적, 문화적 정보에 대해 사적인 설명을 통해서, 해당 공동체 및 방문객들과 관련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

1.3 해석과 소개 프로그램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장기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높은 수준의 공공의 자각과 지원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1.4 해석 프로그램은 과거의 경험들 가운데서 유적지, 전통, 그리고 문화적 관습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문화적 또는 언어적 소수 집단을 포함한 그 지역과 해당 공동체의 다양성을 나타내야 한다. 방문객은 항상 특정한 유산 자원의 원인이었는지 모르는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

제 2원칙

관광과 유적지와의 관계는 역동적이며, 상반되는 가치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부 록

2.1 중요한 유적지는 인류에게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생활문화, 유적지, 수집품들과 이들의 물리적, 생태적 총체성과 환경적 맥락에 대한 장기간 보존과 보호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문화적 그리고 관광개발 정책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2.2 유산 자원 또는 가치와 관광과의 상호작용은 역동적이며, 잠재적 갈등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전과 기회를 양산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관광사업, 활동 그리고 개발은 방문객의 열망과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유산과 해당 공동체의 생활양식에 거스르는 충격들을 최소화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2.3 보존, 해석, 관광 개발 프로그램은 특정한 장소의 전승적인 의미에 대한 특수한, 때때로 복잡하거나 상반된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 그 의미에 대한 발전적 이해와 감상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자문이 중요하다.

2.4 유적지와 소장품의 진정성 유지는 중요하다. 이는 과거로부터 남겨진 무형의 전통과 채집된 기억, 물리적 재료 속에서 표출되며, 그 문화적 의미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프로그램은 문화유산의 이해와 감상을 위해 문화적 경험과 장소의 진정성을 해석하고 나타내야 한다.

2.5 관광 개발과 기반시설 사업은 미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들과 자연적 그리고 문화적 경관, 생물학적 다양성의 특성들 그리고 유적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적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역적 건축양식 또는 토착적 전통이 고려되어야 한다.

2.6 늘어난 관광객을 위해 유적지를 개발하거나 조성하기 이전에 관리계획은 그 자원의 자연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변화, 특히 그 장소의 물리적 특성, 총체성, 생태학, 생물다양성과 지역적 접근 및 교통체계, 그리고 해당 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적 복지에 미치는 방문객수의 영향에 관하여서는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약 예상되는 변화의 수준을 수용할 수 없다면, 개발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2.7 특정한 장소 또는 공동체에 대한 관광 활동과 개발이 미치는 단계적인 영향을 사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3원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관광 계획은 방문객의 경험이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가치 있는 것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1 보존과 관광 프로그램은 중요한 유산의 특성과 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방문객이 적절한 태도로 그 장소를 즐길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3.2 방문객은 스스로가 원한다면, 그들 자신의 걷는 속도에 맞추어 유적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장소의 물리적 조직과 총체성, 그 자연적, 문화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이동 경로가 필요할 수 있다.

3.3 사적지의 관리자, 방문객, 정책입안자, 계획가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있어 성스런 장소, 관습, 그리고 전통의 신성함에 대한 존중은 중요한 사안이다. 방문객들은 해당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가치를 존중하고, 도굴품의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의 밀매를 거부하며, 다시 찾았을 때에도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분별 있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환영받는 방문자로서 처신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3.4 관광 활동을 위한 계획은 방문자들의 편안과 안전,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중요한 특징 또는 생태적 특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방문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 4원칙

해당 공동체와 주민은 보존과 관광에 대한 계획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4.1 지역적 차원에서 해당 공동체와 소유주, 그리고 자신의 소유지 및 사적지에 대한 전통적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는 현지의 관련 주민들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 이들은 관광의 측면에서 자신의 유산 자원, 문화적 관습과 당대의 문화적 표현의 식별, 보존, 관리, 소개, 그리고 해석하기 위한 목표, 전략, 정책, 그리고 규약을 수립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4.2 특정한 장소 혹은 지역적의 유산이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떠한 관습, 지식, 믿음, 활동, 인공물 또는 사적지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지적 접근을 제한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일부 공동체 또는 현지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은 존중해야 한다.



제 5원칙

관광과 보존 활동은 해당 공동체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5.1 정책 입안자는 여러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개발을 증진하고 빈곤 완화가 필요한 곳에 기부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역을 넘어서 관광 수익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2 보존 관리와 관광 활동은 교육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정규직 고용의 기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현지 혹은 지역 공동체의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5.3 특별히 유적지의 관광 프로그램으로부터 비롯된 수익의 상당 부분은 자연적, 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그 장소의 보호, 보존, 소개를 위해 할당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방문객은 이러한 수입의 배분에 대해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

5.4 관광 프로그램은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의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공동체로부터의 안내인과 현장 해설가의 고용과 훈련을 장려해야 한다.

5.5 해당 공동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산에 대한 해석과 교육 프로그램에는 현장 해설가의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보존과 보호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고취함으로써 그들의 유산에 대한 존중과 지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5.6 보존 관리와 관광에 관한 프로그램은 정책입안자, 계획가, 연구자, 디자이너, 건축가, 해설가, 보존주의자 그리고 관광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포함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때때로 상반되는 쟁점, 기회,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을 돕고 이해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제 6원칙

관광 진흥 프로그램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특성들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

6.1 관광 진흥 프로그램은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우고, 잠재적 방문객에게 어떠한 장소 또는 해당 공동체가 가지는 특별한 유산에 대한 성격을 주지시켜서 그로인해 적절히 처신하도록 해야 한다.

6.2 중요한 유적지와 수집물들은 동시 방문객의 수의 초과를 방지하고, 퇴장객수의 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방문 경험의 질을 높이고, 그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6.3 관광 진흥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지방색 또는 지역성을 경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장소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폭넓은 수익의 분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 지역 공예품과 기타 산물에 대한 판매, 유통, 판촉은 해당 공동체에 합당한 사회적, 경제적 대가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 문화적 총체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